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비행 여자 청소년의 비행 발현

과정과

재비행 요인 탐색

-근거이론을 활용한 질적 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주 희

비행 여자 청소년의 비행 발현
과정과

재비행 요인 탐색

-근거이론을 활용한 질적 연구-

김 정 규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주 희

인 준 서

김 주희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4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 발생 과정과 반복적인 비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질적 연구의 접근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 청소년의 비행 관련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중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들의 경험을 질적연구방법 가운데 근거이론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재비행으로 보호관찰기관에서 보호 중인 여자 청소년 20명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각각 1회당 50분의 면담을 2차례씩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 방법 중 Corbin(2015)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심리학적 용어로의 적용과 전환을 통하여 절차를 보다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비행 여자청소년들의 비행 발생에 대한 인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으로 복합외상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조건이 나타났다. 맥락은 권위체계의 경험과 외상의 정도와 종류, 연령이었으며, 개인의 특성으로 남성성과 호기심이 비행의 발생과 상호작용을 하였다. 호기심의 경우에는 비행의 개시와 재비행에 모두 중재를 하였으며, 이들이 비행 또래를 형성하는데 작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미해결과제인 애정, 공감, 지지, 권력의 추구였다. 이러한 미해결과제가 반복해서 회귀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반복회귀 계슈탈트라는 범주로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반복되는 미해결과제가 초기 발달부터 시작된 폭력과 학대에 기인하는 바, 미해결과제를 해결하기위해 또래들과의 강한 유착, 즉 융합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들의 비행과정을 각 범죄 별 사고, 정서, 행동, 이미지, 신체상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범죄유형별 분석에서 폭력에는 사고의 정지, 자

기가치감의 손상, 융합, 권력의 행사, 오지각, 외상의 경험이 작용하였으며, 절도에는 욕구, 권력유지, 사고의 단순화, 긍정적 정서의 발생, 융합, 호기심이 작용하였다. 폭력을 통제하는데 작용한 조건은 의미 있는 타인, 결과인식, self-soothing, 적응적인 대처(대화 및 도움 요청)가 소용되었으며 절도를 통제하는 요소로는 결과인식, 의미 있는 타인, 부정적 정서의 발생(분노, 슬픔, 죄책감, 두려움)이었다. 성매매 발생은 인식의 부족, 융합, 호기심, 욕구의 충족, 권력의 획득이 동기가 되었으며, 성매매를 통제하는데, 결과인식과 부정적 정서가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범죄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문제에서 밝힌 비행 여자 청소년들의 범죄 발현 및 재비행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행위 주체의 관점에서 내적 과정을 탐색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양적 연구에서는 알 수 없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호기심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대의 유형에 따라 관여하는 비행의 종류가 다르며, 그 중 언어적 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 없는 범죄(자신이 피해자인)에 노출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인특성에 따라 비행 집단 내에서 계급의 차이가 발생하며,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를 위해 재비행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덧붙여 이 연구의 의의는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을 활용하면서 가장 최근의 방법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밝힌 절차를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연계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연구방법을 심리학적 발견에 적용하여, 이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주제어 : 비행 여자 청소년, 재비행, 근거이론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청소년 비행 및 범죄현황	7
2. 비행 및 범죄이론	9
1) 비행 및 범죄연구	9
(1) 개인적 원인론	11
① 생물학적 원인론	11
② 심리학적 원인론	12
(2) 사회환경 원인론	15
① 사회학습이론	15
② 사회유대이론과 통제이론	16
③ 긴장이론	17
④ 낙인이론/갈등이론	18
⑤ 통합모형	19
3. 국내 여성 및 여자 청소년 범죄연구 동향	20
4. 국내 비행 청소년 연구에서의 제한점	26
1) 개인적 특성	26
(1) 공병의 문제	26
(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28
(3) 치료연구	29
2) 사회환경 중심이론	31
III. 연구문제 개발	33

1. 재비행을 하는 여자 청소년의 배경과 특성은 무엇인가?	33
2. 비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중재조건은 무엇인가?.....	35
3. 비행발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며, 이들이 채택한 전략은 무엇인가?	37
4. 이러한 전략이 개인에게는 어떠한 효과를 미치며, 사회적 상황 안에 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39
IV. 연구방법	41
1. 연구방법의 선택	41
1) 연구방법 선택의 배경	41
2) 근거이론의 이론적 배경	43
3) 근거이론의 절차	44
2. 연구절차	48
1) 연구대상	48
2) 연구 참여자 특성	49
3) 연구자의 준비	50
4) 자료수집방법	51
5) 면접지 구성	52
6) 연구자료분석	54
3. 근거이론 방법의 주요개념	56
1) 이론적 표집이란?	56
2) 개방코딩과정 : 기본적 개념화 과정	58
3) 코딩의 목적 : 개념화	59
(1) 기본적 개념화 과정	59
① 기본적 개념화 : 개방코딩의 의미 비교	59
② 기본적 개념화 : 원천개념의 추출	60
③ 기본적 개념화 : 원천개념의 범주화	62
(2) 이론적 개념화 과정	64
① 이론적 개념화 과정의 목적	64
② 이론적 개념화 : 축코딩의 의미 비교	65

③ 이론적 개념화 : 심리학적 연계	66
4. 연구방법의 요약 및 평가	71
1) 전체 방법의 요약	71
2) 연구방법론에 대한 평가	71
V. 연구결과	75
1. 비행발현과 지속	75
1) 기본적 개념화	75
(1) 원천개념의 추출	75
(2) 원천개념의 범주화	78
2) 이론적 개념화.....	139
2. 비행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159
1) 비행의 내적과정	159
(1) 폭력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159
(2) 절도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168
(3) 비행-약물-과 관련된 과정	174
(4) 비행-성매매-과 관련된 과정	175
2) 변화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179
VI. 논의	192
마치는 글	201
참고문헌	203
ABSTRACT	219
부록	223

표 목 차

표 1.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8
표 2. 여자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비율	9
표 3.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국내 질적연구	25
표 4. 보호처분 내용	48
표 5.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	50
표 6. 원천개념 추출의 예	60
표 7. 기본적 개념화	137
표 8. 생성된 개념과 범주	153
표 9. 비행과정(폭력을 자제한 경우)	161
표 10. 비행과정(폭력과정)	167
표 11. 비행과정(절도를 자제한 경우)	171
표 12. 비행과정(절도과정)	174
표 13. 폭력의 발생과 통제요인	175
표 14. 절도의 발생과 통제요인	176
표 15. 성매매의 발생과 통제요인	176
표 16. 비행의 위험요인	176
표 17. 비행의 보호요인	176
표 18. 변화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190

그림 목 차

그림 1. 근거이론 절차	45
그림 2. 이론적 표집	57
그림 3. 조건/결과 매트릭스	70
그림 4. 원천개념의 추출과 범주화	76

I. 서론

“나를 보호해줬음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좋은 것만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나한테 좀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그랬음 좋겠어요...아무도 잡아주질 않잖아요. 여기 있는 언니들도 나가면 아무도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인터뷰 내용 중)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 발생 과정과 반복적인 비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질적 연구의 접근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 청소년의 내적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중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들의 경험을 질적연구방법 가운데 근거이론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구체적 근거로써 최근의 비행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은 2007년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비행이 강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법에서 여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전체 강력범죄에서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구성 비율에 비해 소년 강력법에서 여자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최수형, 박현수, 2014). 또한 처음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1회 이상의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들이 다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범죄백서, 2014). 이는 비행에 노출된 소년들이 재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행의 개시 뿐 아니라 재비행에 관련된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 범죄의 현상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청소년비행의 남녀 차이에 관한 메타분석(서봉언, 2013)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비행 참여가 많고¹⁾ 구금률이 남학생에 필적하고 있으며, 비행 하위유형에서도 일관되게 여학생들의 참여가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로 여성 혹은 여자 청소년 범죄의 예방이나 개입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는 보고된 비행이나 범죄가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가 남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혹은 남자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해의 틀을 여성 혹은 여자 청소년 범죄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여성들의 범죄율이 높아진 이 시점에서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김지선, 2000; 김형수, 2004; 전영실, 2003; Foley, 2008).

그간 이루어진 비행이나 범죄 연구에서 반사회적 특성을 가진 여성들은 반사회적 특성을 가진 남성들보다 폭넓은 특정 발달적 위험과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적 학대에 노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예후가 보다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비행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우울과 비행의 관련성에 성차가 있다는 보고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 중 위험요인과 비행요인의 연구(이주영·오경자, 2010; Bender, 2008; Gelvin, 2001; Kearns-Psarouthakis, 2004; Wesley et al., 2012)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자아탄력성에 성차가 있다고 하였다. 사회학습이론과 사회유대이론에서도 역시 비행을 설명하는 또래의 영향력에 있어 성차와 연령이 증가하는데 따르는 차이가 있었다(최수형, 2007; Bender, 2008;

1) 서봉언(2013)의 국내 연구물 분석에서 모든 비행유형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참여가 많았고, 패널 자료분석에서는 재산비행, 폭력비행과 성비행만이 여학생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oley, 2008; Gelvin, 2001; Keenan & Loeber, 1999; Kearns-Psarouthakis, 2004; Laverso et al, 2015; Loeber & Keenan, 1994; Miller et al., 2010). 한편 이전 연구들에서 여자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비행 관련성에 대해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 Krischer(2008)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외상경험이 비행을 예언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외상경험 뿐 아니라 가족 관련 변수가 보다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된다고 밝히고 있어, 여자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대한 이해는 개인내적인 요인과 사회적 변수를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비행에 관련된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이러한 요인이 비행과 상관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비행에 이르는 과정은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한다(유영재, 2009; 최수형, 2007).

청소년 비행의 강력화,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는 양상은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탈 및 범죄라는 사회현상은 전적으로 구조적이거나 혹은 과정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개인과 그가 속한 환경이 서로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비행 혹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은 개인이 처한 사회의 구조와 개인들이 경험한 생활사, 그리고 개인이 지니게 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경험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김진혁, 2003; 이상문, 2013; Akers, 2009). 개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gender)이나 인종, 특성들이 환경의 요소들과 만나 어떤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단지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관련성이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은 제공해 주지만 사람들이 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는 맥락과 그들의 반응을 통제하는 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는다(Creswel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경험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는데,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 제시한 것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문제에 대해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가 필요할 때, 그리고 양적 연구의 보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부분적이거나 불충분한 이론이 존재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이론들이 문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거나 양적 분석에 대한 추가적 해석과 새로운 사실의 발견, 그리고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개인이 반응하는 맥락과 그들의 반응을 통제하는 내적인 과정을 그들의 삶 속으로 연구자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하며 그간의 양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한다(이동성 · 김영천, 2012; Creswell, 2007; Yin, 2011).

개인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는 최근의 질적 연구(김해운, 2010; 손순용, 2008; 주영신, 2007; Barnert et al., 2015; Henriques & Manatu-rupert, 2001; Richie, 2001; Sander et al., 2010; Weiss et al., 2010) 들에서는 재비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요소, 재사회화과정과 비행의 과정이 제시되었으며, 재범자들의 비행 및 재사회화의 인과적 조건과 현상, 맥락적 ·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Weiss(2010)는 기존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재범 여성들의 재범죄를 이끄는 유용한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혹은 여자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질적 연구들(김해운, 2010; 손순용, 2008; 주영신, 2007)은 남자청소년에 대한 연구이거나 성차와 같은 중요한 요인을 배제하여 여자 청소년들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행 이론이 남성 위주로 다루어져 여성의 비행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는데,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조차도 성차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같은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비행에 노출되는 여자 청소년은 어떠한 내적 과정에 의해 비행을 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는가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특히 재비행의 문제는 일회성의 우발적인 범죄나 청소년기 일탈의 지위비행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지속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에 반복적인 비행을 보이는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관심의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이거나 실태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내적과정을 여자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탐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내적 과정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양적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진 개인의 요인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것이 이들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어떤 것’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지를 앞으로써 기존의 이해를 보다 깊이 있게 해주며 나아가 개입에 명료성을 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최근 여자 비행청소년 연구에 요구되는 방향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반복적인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비행과 관련된 이들의 내적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연구방법 가운데 근거이론 방식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은 여타 연구방법론을 통해서 포착하기 어려운 인간 및 조직의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 현상인 기본적 사회과정(basic psychological process)과 기본적 사회·구조 과정(basic social structural process)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이동성·김영천, 2012재인용; Morse, 2001), 개인들의 행위 혹은 사회현상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의미가 생성되는지를 탐구하는데 유용하다(김영천, 2013. Glasser & Strauss, 1967 재인용). 이러한 탐구를 통하여 여자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과정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반복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그간의 연구들이 세워놓은 이정표를 지나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제시하자면(자세한 것은 III장) 다음과 같다. 재비행을 하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면접과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을 파악하였다.

1. 재비행을 하는 여자 청소년의 배경과 특성은 무엇인가?
2.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중재적 조건은 무엇인가?
3.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며, 이들이 채택한 전략은 무엇인가?
4. 이러한 전략이 개인에게는 어떤 효과를 미치며, 사회적 상황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이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 및 범죄현황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 경찰청 통계연보를 참조하면 소년범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증가하다가 2006년까지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후 2012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소년범죄²⁾의 비율은 실제 발생한 범죄 건수의 변화와도 관련이 되지만 정책의 변화, 즉 소년법의 연령기준이 달라지거나(2008년 소년법 개정)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2012년)에 의해 적발건수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 통계집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청소년 범죄의 양적 증가는 성인 범죄의 증가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범죄의 추세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있다. 이러한 소년범죄의 증가와 변화에서 눈여겨봐야 할 특징은 재범소년의 비율과 연령의 하향화, 고학력화이다. 이중 문제의 심각성이 시사되는 것은 저연령화와 재범소년의 비율이다. 2012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58.4%인데 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41.6%로 전년도에 비하여 0.9% 상승하였다(청소년백서, 2013).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08년

2) 소년법 제4조에 의하여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의 경우를 말한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연령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반면에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가능하다(김준호, 2009).

7.1%에서 2012년 13.6%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년범죄의 상습화 문제가 심각해짐을 보여주는 것이며, 재범률이 높은 소년 범죄자에 대한 개입이나 사후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시사한다(범죄백서, 2014; 사이버경찰청, 2012).

표 1.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청소년백서, 2013)

(단위: 명, %)

연도	연령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8		134,992 (1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9)
2009		113,022 (100)	1,96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		89,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2011		83,068 (1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
2012		107,490 (1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

주.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자료: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청소년 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양상 하나는 청소년 강력범에서의 여자 청소년 비율이다. 청소년 강력범에서 여자 청소년 비율은 2002년 4.8%에서 2011년 9.3%로 약 두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강력범죄의 가담률로 본 구성비 면에서도 성인 여성 범죄자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미국의 경우도 지난 15년간 여성 및 여자 청소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소년사법체계에서 여자 청소년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Kelly et al., 2007). 또한 심각한 범죄로 체포되는 여성들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Chambers et al., 2011; Foley, 2008; Simon & Ahn-Redding, 2005).

표 2. 여자청소년 범죄자의 구성비율

(단위 : %)

	형법 범죄	강력 범죄	강력범죄 세부유형				재산 범죄	재산범죄 세부유형		
			살인	강도	강간등	방화		절도	사기	기타
2002년	17.0	4.8	22.4	6.9	1.1	4.0	15.9	7.5	42.1	13.3
2003년	18.3	4.2	17.6	6.1	1.1	7.1	16.6	8.2	40.2	16.2
2004년	18.4	6.7	22.7	10.4	1.7	12.0	15.7	8.7	40.0	15.8
2005년	16.6	7.0	29.2	13.4	0.4	6.5	11.0	8.0	27.2	13.2
2006년	18.0	6.1	25.0	10.7	2.7	1.1	11.9	9.8	27.0	12.4
2007년	18.3	9.0	10.5	15.9	1.8	5.5	11.6	10.2	22.1	14.1
2008년	19.6	8.1	50.0	15.1	2.5	6.9	12.7	11.5	20.6	15.1
2009년	18.3	8.5	27.8	14.5	3.0	6.8	12.6	11.9	17.3	14.3
2010년	18.0	6.1	47.4	15.3	2.6	0.6	13.1	12.4	17.4	14.7
2011년	18.8	9.3	25.0	18.5	4.7	5.2	13.6	12.5	19.3	17.6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http://crimestats.or.kr) 자료 및 2012 범죄분석 자료 재구성

**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등+방화

*** 재산범죄=절도+사기+기타(장물+횡령+배임+손과)

2. 비행 및 범죄이론

1) 비행 및 범죄연구

비행 혹은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18세기 고전적 범죄이론³⁾을 시작으로 생물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사회심리학적 이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개인의 생물학적인 특성 또는 심리학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보는 개인적 원인론과, 개인의 특성보다는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에 비행의 원인

3) 사회철학자에 의해 대두된 범죄이론으로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모든 개인이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전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해악이 클수록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도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성 범죄에 있어 고전적 범죄이론은 Lombroso와 Ferrero(1895), Thomas(1967), Pollak(1961)의 이론에 의한 것으로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박상주, 2009).

을 두는 사회환경 중심의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 원인론은 다시 생물학적 원인론과 심리학적 원인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모두 개인에게 범죄나 비행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연결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관점도 방법론적인 문제로 인하여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들 요인의 효과가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매개되는 간접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지배적이다(민수홍 공역, 2013).

한편 사회환경 중심의 이론은 크게 네 가지 관점, 즉 긴장이론⁴⁾과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 이론, 낙인이론과 갈등이론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이론은 다시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여 청소년들이 비행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행성향이 안정적이라는 모집단 이질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영향에 따른 가변적인 경로를 갖는다는 상황의존론⁵⁾이 경험적으로 타당하게 나타났다. 이후 비행의 지속을 이해함에 있어서 낙인이론적 변수, 그리고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차등적 접촉이론의 변수들이 추가되었는데, 각각의 이론들이 최초비행발생과 비행의 지속에만 영향을 준다거나 비행의 시작에만 영향을 주는 등 어느 한 가지 경로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였다.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현재로서는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이론으로 검증이 되고 있으며, 각 이론들을 통합시키는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통합적 경로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와 맺는 유대의 정도를 비행의 중요한 통제요인으로 본 사회통제이론과

4) 아노미 이론이 거시적 관점이라면 긴장이론은 미시적 관점에서 본 사회환경 중심의 범죄이론이다. 기본적 가정은 열망과 가능성 간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범위반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으로 최근의 수정된 긴장이론에서는 목표 추구 행동(goal-seeking behavior)의 좌절 외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좌절과도 관련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Agnew, 1985).

5) 모집단 이질론과 상황의존적 관점은 범죄를 지속하게 되는데 적어도 두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반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전생애에 걸쳐 범죄를 지속하는 경우와 청소년기 비행이 상황변화를 만들어 범죄를 지속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Nagin & Paternoster, 2000).

약화된 사회통제로 인해 비행동료집단과 강력하게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로부터 사회적 보상 및 강화를 받아 비행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는 사회 학습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유영재, 2009). 다음은 대표적으로 알려진 비행 및 범죄이론들로서 개인적 원인론과 사회환경 중심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인적 원인론

① 생물학적 원인론

범죄자를 준법시민들보다 생물학적으로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들로 보는 생물학적 범죄학자들의 대표적인 초기 학자는 Lombroso⁶⁾, Goring⁷⁾과 Hooton⁸⁾을 들 수 있다. Lombroso는 그의 저서에서 신체적 특징을 통해 타고난 범죄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범죄자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에서 나중에는 생래적 범죄자⁹⁾를 전체 범죄자의 1/3정도라고 수정하였는데, 이러한 생래적 범죄자의 개념은 범죄이론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비판의 단서가 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이러한 범죄인의 열등성에 대한 관념이 발전되긴 하였으나 기본 원칙은 범죄자들이 일반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결정주의는 사회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으며 방법론적인 결함, 동어반복적 주장¹⁰⁾, 경험적 연구결과가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제

6) Lombroso는 여성은 수동적이고 경건함, 모성애, 저지능, 약함 등의 전형적인 특질이 있다고 보았고, 여성의 전형적인 특질이 부족한 소수의 여성범죄집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윤호, 2015).

7) Goring은 Lombroso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범죄자와 비범죄자 사이에 신체적 특징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대신 유전적 문제로 보았다.

8) 그는 Lombroso의 주장을 지지하였으며, 범죄자들의 신체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9) Lombroso는 타고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진화의 초기상태로 퇴행하는 “격세유전(atavism)”으로 설명하면서, 생래적 범죄자는 원시인의 체격, 정신능력,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법과 사회규범을 위반하게 되는데 얼굴이나 머리의 비대칭, 원숭이같이 큰 귀 등, 비정상적 특성 등에 의해 파악된다고 보았다(Akers, 2009).

기되었다(Akers, 2009).

후기 생물학적 이론은 생화학¹⁰⁾, 유전학, 신경생리학의 관점을 취하여 범죄인들의 순응적 또는 일탈적 행동이 생물학적 구성요인과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유전적 특성(기질 등), 뇌의 기능, 중추 및 자율신경체계, 영양상태(특히 비타민 B 등), 호르몬의 균형, 신진대사, 생리적 각성수준, 학습의 생물학적 과정 등의 측정 가능한 요소들과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제안한다(Akers, 2009; Andrews & Bonta, 2010; Subbarao et al., 2008). 이러한 주장들은 인체 내의 화학적 결핍이나 불균형이 사람들의 사고형태와 행동의 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불균형이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 모두가 개인의 특성이나 생물학적, 생화학적 불균형이 감정적 상태와 행동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지만, 중재하는 부분이 얼마간 있을 수는 있어도 직접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과잉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학업문제, 대인관계 등 비행이나 범죄적 행동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향이 되긴 하지만 역기능적인 가족과 같은 환경적 조건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Harden et al, 2015; Walsh, 1992, 2000).

② 심리학적 원인론

범죄의 원인이 심리적인 문제의 증상이라고 보는 심리학적 원인론은 크게 정신분석학적 이론 등의 성격이론을 들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설명들은 범죄나 비행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숙이나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 혹은 발달 단계에서의 고착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의 Id(원초아)를 자아와 초자

10) 주사(主辭)와 빈사(貧辭)가 동일한 개념인 판단.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맨 처음 정의를 뒤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egloos.com).

11) 인체 내의 생화학적 결핍이나 불균형으로 인한 감정적 장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가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혹은 해결되지 못한 죄의식을 표출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억압된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검거되는 것이라고 하는 무의식적 동기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성격¹²⁾ 특성의 차이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이론들의 경우는 비행이나 범죄가 비정상적이거나 부적절한 범죄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성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원인이나 문제가 발달과정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개인이며 개입 또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이윤희, 2015).

이러한 입장으로써의 정신분석학적 이론 외에 인성이론(personality theory)에 근거한 관점은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범죄자의 인성을 교정하거나 치료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Big 5모델-5요인-은 과거 십 수년 동안 중요하고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몇몇 일반적 특성인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과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를 포착하는데는 실패했다. 한편 인성이론의 주장은 개인의 성격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을 발전시켰다(Andrew & Bonta, 2010).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I-Level검사, Rorschach, TAT, 다면적 인성검사(MMPI :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Graham, 2007)와 우리나라의 PAI(김영환 등, 2002)등을 들 수 있는데, PAI의 경우 비행예측을 측정하는 도구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범죄심리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 2011). 이러한 인성검사 도구들은 정신증적, 혹은 신경증적 증상의 목록으로 되어 있지만 반사회적 성격특성이나 경계선 성격특성 등 비정상적인 성격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범죄에

12) 성격이란 사고, 감정, 행동의 전형적 패턴을 말한다(Andrews, 2010).

있어 가장 특징적인 성격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사이코패스¹³⁾ (psychopath)와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사이코패스는 인간의 심리적 특징, 행동적 특징 등을 반영하는 정의라면, 반사회적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의 진단분류(DSM)¹⁴⁾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 성격장애의 하나라고 하겠다. 비행 및 범죄에 반사회적 성격이 주로 언급되었다면 최근에는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비행과의 관련도 연구되고 있다(차타순, 2002).

개인적 특성, 즉 성격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1930년부터 1990년까지는 사회적 계급에 관련한 범죄이론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까지는 성격이론이 범죄이론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범죄자와 비범죄자 간의 차이는 문헌연구에서 약 42%~81% 정도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측정된 반사회적 성격 패턴은 범죄 행동을 강하게 예언하고 있으며, 이는 성, 문화, 인종에 걸쳐 일관되고 있다. 그러나 Widom(1977, 1985)의 연구에서는 법체계에 걸리지 않는 정신병질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투옥 등의 범망은 교묘하게 피하지만 정상에 오르기 위한 반사회적 행동에 최적화가 되어있다고 말하고 있어 범죄에 이러한 정신병질자가 상당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병질이 범죄를 야기한다고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Andrew & Bonta, 2010; Widom & Brzustowicz, 2006).

이러한 성격이론에 대한 문제는 방법론상의 문제와 인과관계, 그리고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성격특성이 범죄의 결과인지 조건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즉 범죄로 인한 행동과 결과가 성격특

13) Hare(1980)의 PCL-R이 대표적이며, 입심중음/피상적 매력(glibness/superficial charm)과 자기가치에 대한 웅대감, 자극의 필요, 병리적 거짓말, 충동성, 조기 행동문제 등이 항목에 들어있다.

14)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발간하는 진단분류로 2013년 5판이 발표되었다. 이 분류에 따르면 15세 이전에 품행장애가 시작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법적 행동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맞추지 못한다. 체포의 이유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감정, 소원, 권리 등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주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한다.

성을 구성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Gottfredson과 Hirschi의 범죄에 대한 일반 이론¹⁵⁾(General Theory)에서는 이러한 성격특성 원인론의 흐름을 바꾸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환경 원인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Andrews, 2010).

(2) 사회환경 원인론

① 사회학습이론

Bandura의 이론¹⁶⁾에서 출발하여,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이론으로 발전된, 에이커스(Ronald L.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의 차별교제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을 행태주의적 입장에서 변형시킨 것이다(Andrew & Bonta, 2010; Ellis & Walsh, 2000). 이는 한 개인이 학습한 가치와 태도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행위가 친밀한 인격적 집단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된다고 보는 것이다(Akers, 1989). Akers는 특히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¹⁷⁾,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한 개인이 상호작용, 혹은 교제의 양상(modalities)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법 준수 정의보다 법위반 정의에 먼저(우선성), 자주(빈도), 오랫동안(지속성), 강하게(중요성) 노출된다면, 개인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Akers, 2009).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15) 자기 통제(self-control)의 제한이 범죄를 야기한다고 보는 것으로, Hirschi와 Gottfredson의 주장에 대해 Akers는 이 또한 동어반복적(tautological)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6) “공격적인 행위가 취하는 특정 형태, 공격적 행위가 표현되는 빈도, 공격적 행위가 보여지는 상황, 그리고 공격을 위하여 선택되는 특정 목표 등은 대개 사회학습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이윤호, 2015).

17) 이는 범죄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순응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에 노출되게 되면 법 위반을 우호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을 더 학습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청소년들이 왜 차별적 접촉을 하는가, 그리고 접촉이 없어도 비행이 일어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는 차별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과 차별강화이론(differential reinforcement theory)은 비행친구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대중매체 속의 인물을 모방함으로써 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습되지만 학습의 중요한 기제인 강화에 의해 학습된다고 보았다. Akers는 차별접촉이론을 확장하고 차별적 강화의 원리를 통합시켜 사회학습이론을 발전시켰으며, 태도학습과 모방도 비행의 학습과정으로 중요하게 다뤘다(김준호, 2013).

② 사회유대이론과 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의 설명은 사회통제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에 순응한다고 본다. 즉 어떠한 요인들이 비행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가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혹은 사회유대이론)은 누구나 비행동기가 있으며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없어졌을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대는 타인에 대한 애착(attachment to others),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의 4가지 요소로 되어있고 ‘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고, 관여를 하며, 참여를 하고 사회의 도덕적 신념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비행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들은 대체로 이를 지지하였는데,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판을 받았고, 또한 그 이론이 사소한 비행을 잘 설명할 뿐, 보다 심각한 비행을 설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Akers, 2009; Jones, 2006).

이후 Hirschi와 Gottfredson은 통제의 한 유형인 자기통제에 근거한 범죄이론을 제안하였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에서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는

자기통제이론을 일반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평생에 걸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는데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으며, 경험적 연구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Burton et al., 1999; Sellers, 1999; Simpson & Piquero, 2002; Turner & Piquero, 2002). 우리나라의 민수홍(2006)의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인과성뿐만 아니라 일반성 주장도 경험적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Hirschi와 Gottfredson의 설명에서 10대 후반까지 비행이 증가하다가 정점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2차 년도에 바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회유대이론의 한계는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회적 유대가 약한 사람이라도 일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윤호, 2015).

③ 긴장이론

긴장이론적 관점은 청소년들의 긴장과 좌절이 비행의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아노미 이론¹⁸⁾(anomie theory: Merton)과 사회해체이론에서 발전되었다. 두 이론 모두 무질서나 사회적 분열 등을 범죄와 비행의 원인으로 본다. Merton(1938)의 아노미 이론에서는 중산층 이상은 제도 안에서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정당한 방법, 즉 대학을 간다거나 지원을 받는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통로가 없고 이러한 좌절로 인해 비행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미시적 수준의 긴장이론은 열망과 기대간의 격차, 혹은 기회제약인지도¹⁹⁾, 상대적 박탈감

18) 아노미와 긴장은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여 쓰기도 하고 구분하는 이론가들도 있다. 긴장이론은 목표에 대한 좌절이 개인적 범죄로 나아가는 미시적 수준의 과정을 언급하며 아노미이론은 거시적 수준으로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사회적 능력의 약화를 언급한다(Akers, 2009).

19)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자신이 처해 있는 구조적 여건상 그 기회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인지

등으로 설명하였지만 경험적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점차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극빈층의 비행과 심각한 비행에 대해서는 이러한 긴장이론적 관점이 설명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정 맥락적 관점에 보다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Hoffmann, 2002; Jones, 2006).

④ 낙인이론/갈등이론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낙인이론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의 기준이 사회적 제도나 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 범죄자가 되고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라 보는 관점이다(Andrew & Bonta, 2010; Ellis & Walsh, 2000). 즉 개인의 특성에 의해 범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범죄인으로 규정짓는 사법체계나 낙인으로 모는 행위가 문제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낙인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영향을 받아, 개인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의하여 자아가 형성되고 이러한 내적과정과 자아가 행동을 이끌게 된다는 것을 범죄에 적용하였다. 즉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일탈행동을 한 개인이나 청소년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러한 낙인에 의해 비행이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 실제 이러한 낙인효과가 범죄를 지속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적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거나 부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지 주변인들의 낙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비교적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청소년 지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김준호, 2014).

갈등이론의 경우는 법의 확립이 갈등 가운데서 권력을 갖게 된 힘 있는 집단, 즉 지배층의 이익이나 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하층민이나 노동자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한다고 보는 갈등이론은 경험적으로 지지되기

도를 말하는 것이다(김준호, 2013).

어려웠고, 최근 들어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줄이고 개선되는 부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다원주의적 갈등모델이 전개되고 있다(Akers, 2009).

⑤ 통합모형

Akers(2009)는 이론을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각 이론들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방법과 둘 또는 그 이상의 이론들을 경합시키는 이론경쟁, 그리고 어떠한 이론도 범죄의 모든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우수하고 우월하거나 공통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통합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통합모형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두 이론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론경쟁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어떤 이론이라도 경쟁과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이전의 이론이나 원문에 기초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론통합의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최근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통합모형(Delbert S. Elliott)은 ‘긴장’이 ‘사회유대’를 약화시키고 비행친구와의 강한 유대를 증진시키며, 비행행위를 ‘학습’하고 비행친구와의 강한 유대가 비행을 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론의 기본가정에서 통제이론은 모든 사람이 일탈할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사회통제가 얼마나 강하게 비행을 예방하는가에 달려있다(Akers, 2009). 반면 긴장이론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범죄수행의 내재적 동기를 가정하지 않는다. 긴장에 노출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행을 저지를 동기를 갖게 된다고 가설을 설정한다. 학습이론은 범죄수행과 억제 모두에 있어 동기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사회학습과 유대이론으로부터 도출해낸 크론(Marvin D. Krohn)의 네트워크 분석²⁰⁾과 사회구조, 사회유대, 사회학습이론의 요소들을

통합한 손베리(Terence P.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²¹⁾,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과 낙인이론, 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 및 통제이론을 통합하여 청소년 비행을 설명한 자아존중감(self-esteem)/훼손(derogation)이론²²⁾과 생애과정 범죄학 등이 있다(Kaplan, 1987; 1991; 1992; 1996; 2005; Krohn et al., 1988, 2008; Thornberry et al., 1994; Smith & Thornberry, 1995). 통합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찬반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들은 기존의 이론들이 부분적인 설명만이 가능한 것에 대한 보완적인 이론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연 이러한 설명들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론들이 사회 정책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개인의 복잡한 행동 과정을 단지 사회적 체계에 의해, 혹은 어떤 반응으로만 보기 어려우며, 특성과 사회적 체계를 연결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3. 국내 여성 및 여자 청소년 범죄 연구 동향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비행 혹은 범죄의 빈도나 수준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가 더 심각했었고 현재도 남성이나 남자 청소년의 범죄율은 전체범죄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남성이나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 및 여자 청소년 비행에

20)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의 행동을 억제하고 비행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 결과로 네트워크의 효과가 비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Haynie(2001)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21) 처음의 비행은 청소년기의 사회결속 약화에서 발생하며, 전통적 가치에 대한 연결이 약화될 때 비행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22) Kaplan은 인간에게는 자아존중감 동기가 있어서 부정적 자기태도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최대화하려는 행동을 취한다고 한다. 가정, 학교, 친구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자기평가절하로 이어지면, 비행의 동기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비행을 하고 비행친구의 반응에 긍정적으로 순응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체감을 발전시키고, 자아훼손의 긴장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Akers, 2009).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여자 청소년 비행이 강력범죄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김형수, 2004; 전영실, 2003; 최영신, 2006; Foley, 2008).

우선 실태적인 면에서 국내 여자 청소년 비행의 경우 90년대 초반까지 양적으로 큰 증가가 없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재산범죄의 비율이 줄고 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외국과는 크게 다른 현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여자 청소년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범죄는 1/3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폭력이나 강력범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후 20년 동안의 변화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소년 강력법에서 여자 청소년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강력범죄에서 전체 여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1995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가 그간 소년들의 비행에 한데 묶여 소홀히 취급되었음을 밝히면서 성과 비행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와 특성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27년 동안 여자 청소년 범죄자수가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체 범죄자 및 여성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통해서 볼 때,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절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폭력성 범죄가 80년대 중반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행원인론에서 남녀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 등 사회환경적 변인과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자아 정체성, 자아존중감 등 사회심리적인 변인들이 여자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기존의 남자 청소년들에서 나타난 주요비행이론들이 여자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용하며, 남자 청소년들은 친구와 학교에 의해 더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은 친구와 가정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더 분석되어야 할 ‘성’과 ‘인성적 특성’간의 상호작용효과와 더불어 왜 ‘남성성’집단의 비행성향이 강한지와 이러한 관계의 잠재적 중요성에 대한 제언²³⁾을 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실태연구로는 청소년 비행연구 동향을 고찰한 김지선(2000)의 연구와 여자 청소년에 대한 국내 비행 연구 동향을 개관한 김형수(2004)의 연구가 있는데, 김형수(2004)의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여자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간행물을 검색한 결과 개인 상담 및 비행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제외하고 학위 논문 19편, 학술 논문 15편, 단행본 2편을 포함해 36편이며, 대부분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비행 수준에 있어서는 지위비행이 많은 수를 차지하며 사례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 방식을 취한 연구는 세편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그에 앞선 김지선(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증연구의 경향이 강하여 주요 개념이나 이론들이 국내 상황에 얼마나 적용가능한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원인론에 대한 연구가 양적인 접근방법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이러한 연구방법으로는 비행 이면에 숨겨진 상징과 의미를 드러내기 어렵고, 겉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나 태도의 심층적인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23) 이 연구의 저자는 ‘남성성’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남녀 모두 비행성향이 높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입증되었으나 무엇이 이러한 인성특성을 가져오는지 밝혀지지 못했다고 말한다. 또한 성역할 인성특성은 남자들의 비행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들의 경우에 성역할 인성특성과 비행 간의 관계는 행위에 대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통제가 없다면 그 관계가 매우 약했다고 한다. 특히 성역할 인성특성은 강한 사회적 통제를 경험한 소녀들의 비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약한 통제를 받은 소녀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추세와 제안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들을 국회도서관과 KISS의 검색채널을 통해 검색어로 비행>청소년, 비행>여자청소년 비행청소년>질적연구(사례연구, 근거이론, 현상학, 문화기술, 내러티브)를 넣고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비행청소년을 주제로 발표된 연구는 대략 900여 편에 달하고 있었는데 반해 질적 연구는 모두 22편이었으며, 그 중 여자 청소년에 대한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와 문화기술적 연구로 총 2편이었다. 질적연구 중 사례연구가 가장 많아 10여 편 정도였으며, 근거이론 연구가 7편, 현상학적 연구가 2편, 문화기술적 연구가 1편이었다(표. 3).

한편 여자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는 24편이었는데, 치료연구가 10편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특성이 5편 정도, 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탐색한 연구가 2편 정도였으며, 이론 검증이나 대책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남녀 청소년 비행 비교연구는 서봉연(2014)의 메타분석에서 단일성(gender)으로만 이루어진 연구와 표본수가 10이하인 경우, 그리고 남녀 집단의 구분이 없는 경우, 경험적 연구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결과 남녀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이 25편, 박사학위논문이 7편, 학술지 논문이 28편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의 자료를 이용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비행참여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비행 하위유형에서도 일관되게 여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다. 그리고 남학생들의 '지위비행'과 여학생들의 '성비행'의 참여 정도가 많아 차별화된 비행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 중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한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들의 '삶의 유형'에 따라 같은 맥락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개별화된 개입 전략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주영신, 2007). 다른 재사회화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에서도 유형별 재비행 과정을 밝히고 있어 이러한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의

종류를 달리해야함을 기술하였다(최옥채, 2007).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행 이론이 남성 위주로 다루어져 여성의 비행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는데,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조차도 성차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들을 말하고 있어, 같은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비행에 노출되는 여자 청소년은 어떠한 내적 과정에 의해 비행을 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는가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이는 여성 혹은 여자 청소년에 대한 범죄 및 비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 불과 십여 년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겠다. 미국의 경우도 소년사법체계에서 여자청소년의 특성 및 이들에 대한 처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인데, 이는 여자비행의 증가현상 등에 기인한 것이다(전영실, 2004). 미국의 질적 연구들 중 청소년 재소자(남=12, 여=8)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 청소년 재소자들의 내적 요구(internal need)를 3가지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사랑과 관심’, ‘규제와 통제’ 그리고 ‘역할모델과 조망’이었다(Barnert et al., 2015). 현상학적 접근을 한 재비행 여성에 대한 연구는 재수감되는 과정과 환경적 요인을 내부자적 입장에서 탐구하였다(Henriques & Manatu-Rupert, 2001). Weiss 등(2009)은 여성 재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범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접근하여 재범(recidivism)을 이끄는 힘(“Sparkles”라고 명명)이 있고 ‘Sparkles’는 ‘옳고 그름의 재정의(revising meanings of right and wrong)’와 ‘결과의 최소화(minimizing consequences)’, ‘새로운 규칙 만들기(making new rules)’, ‘타인에게 영향 받기(being influenced by others)’로 구성되어 있으며, ‘Sparkles’에 의해 여성들이 법적 경계(legal boundaries)를 무시하고 그들의 개인적 경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비행청소년에 대한 국내 질적 연구

저자 (분야/종류/연도)	연령/성 별	대상	연구방법	제목
김해운 (석사/2010)	16~18 남	재산비행 청소년	근거이론	재산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비행원인 중심으로
이발희 (석사/2010)	17~23 남	소년원 퇴원생	근거이론	소년원 퇴원생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남)
조정미, 강희숙(청소년복지/학술/2008)	17~20 남	보호관찰 청소년	근거이론	보호관찰청소년의 일상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이정미 (청소년복지/학술 /2007)	16~20 남	소년원 퇴원생	현상학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양성은, 조주영 (청소년복지/학술 /2005)	13-20 남녀	보호관찰소/ 소년원	현상학	비행청소년의 초기 성행동에 대한 질적 연구
최옥채, 이정미(한국교정 학회/학술/2006)	18~21 남	소년원 퇴원생	근거이론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문영숙 (청소년복지/ 학술/2012)	15~17 여	보호관찰 9호	문화기술지	여자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9호 처분 여자보호소년을 중심으로
정기명 (청소년복지/ 학술/2013)	12~20 남녀	보호처분 4, 5호	근거이론	비행청소년의 보호관찰경험에 관한 연구
손순용 (박사/2008)	18~22 남	보호관찰 종료2년	근거이론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영신 (박사/2007)	14~20 남녀	보호관찰 재범	근거이론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사례연구는 표에 포함되지 않았음)

4. 국내 비행청소년 연구에서의 제한점

1) 개인적 특성

기존에 이루어진 여자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내적(생물학적, 심리학적) 변인들과 개인외적(사회환경적) 변인들을 확인하거나 그러한 여러 변인의 상관을 다루는 연구이다. 또한 남녀 비행청소년의 특성이나 요인을 비교하여 성차를 밝히는 연구들이 있는데, 남녀 비행청소년 모두에게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차가 있다는 것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Bender, 2008, Wesley et al., 2012). 그렇다면 여성 혹은 여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심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우선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범죄이론들이 여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1) 공병의 문제

우선 비행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비행과 우울의 관련성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우울은 내재화 장애에 해당하고 비행은 외현화장애에 해당하고 있어 내재화와 외현화가 공병 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러 연구들이 외국과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내재화 장애가 선행되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외현화 장애, 즉 품행의 문제가 선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외에 소녀들의 경우 품행장애²⁴⁾ 자체만으로 볼 때는 소년에 비해 위험이 낮지만, 공병의 경우에는 소년들에게서 보

24)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에 의하면 품행장애의 필수 증상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3가지 이상의 특징적 행동이 지난 12개월 동안 있어 왔고, 적어도 한가지 행동이 지난 6개월 동안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된다. 이러한 품행장애를 보이는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로 지칭되며, 비행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이다.

다 소녀들에게서 높았다(Loeber & Keenan, 1994; Miller et al., 2010). 특히 소녀들의 품행장애와 우울의 공병²⁵⁾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빈약한 학업적 성취와 적응, 성격, 또래관계의 질, 그리고 약물 의존이나 조기 성경험 등의 높은 위험행동을 발생시키고, 안정적이며 전반적인 기능의 손상과 관련이 있었다(Gelvin, 2001; Hagan & Foster, 2003; Keenan & Loeber, 1999; Marmorstein & Jacono, 2001, 2003).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우울과 품행의 공병 아동 및 청소년 연구는 우울과 비행 간에 남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여자청소년에서 상관이 더 높았다(이주영·오경자, 2010). 또한 여자 청소년은 우울이 비행에 선행하고, 비행 문제가 이후의 우울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인 관계였다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이 우울에 선행하는 일방향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영·오경자, 20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이 심각할수록 이후 시점의 비행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비행과 우울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인과모델이 지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정아, 2010). 이러한 연구들 모두 우울과 비행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지만, 일반 재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비행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였더라도 성차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재비행을 하는 여자 청소년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한편 비행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우울증척도가 상승하는(65점 이상) 집단에서 흥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처럼 '정신병질'이나 반사회적 특성이 청소년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박소은, 2008, 이경숙, 2012; Asscher et al., 2011). 그러나 비행을 예방하고 재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5) 공병(comorbidity)은 최초의 장애나 질병에 더하여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장애나 질병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추가된 장애나 질병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비행청소년들에게 우울이 공존한다는 것은 요인연구에서 줄곧 출현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 비행은 품행장애에 해당하고 우울 또한 임상적 기준에서 심리적 장애에 해당하므로 공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반사회적 특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실제 정신적 고통을 가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에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Akers & Sellers, 2009),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위의 연구에서도 성차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박소은, 2008, 이경숙, 2012)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에 정신병리나 내재화 문제에도 여러 가지 범주와 차원이 있으며, 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도 심리적 매커니즘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를 밝히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비행이 발생하는데 상호작용하는 변수에 대한 연구들은(고선영, 2004; 곽선영, 2005; 김경, 2004; 장혜연, 2008; 정혜정, 2012; 탁수연, 2004), 개인적인 변수(공격성이나 낮은 자기통제력, 충동성, 낮은 지능과 학업성취, 자아존중감의 문제나 우울, 불안)와 사회적인 변수(열악한 가정환경과 역기능적인 가족, 낮은 지지체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적 변수와 사회적 변수가 상호작용한다는 것 또한 논의되었다.

그러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비행에 한 가지 변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비행에 관련된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과 비행이 상관은 있지만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비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최수형, 2007; Murray & Farrington, 2010).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혹은 습관적 비행청소년들과 일반적 비행청소년들의 유의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차이가 비행에 야기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우며, 특히 반복적인 비행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박하다는 점도 재범 청소년들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3) 치료 연구

치료연구에서는(곽한영, 2007; 김민정, 2006; 김보애, 2002; 김주섭, 2000; 문영숙, 최승희, 2013; 소용주, 2007; 송혜정, 2013; 이선영, 2009; 유정미, 2009) 대부분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성이 나타났으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가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면,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한 소용주(2007)의 치료연구에서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김주섭(2000)의 연구는 경비행을 하는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기술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문제해결방법의 향상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공격성의 감소와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유의하지 않았다. 송혜정(2013)의 연구에서는 학년과 성별에 따른 치료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향상이 있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에도 공격성과 분노조절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성 및 행동변화를 치료목표로 삼은 김보애(2002)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현화 문제성향 중 일부인 비행, 공격성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내재화 문제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의 문제는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적 실행연구를 한 문영숙(2012)의 연구에서는 9호 처분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1차 시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차 시기

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비행유형에 따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곽한영(2007)의 연구에서는 법교육이 범의식이나 자아존중의식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혔으며, 적용의 용이함이 있으나 연령증가에 대한 효과의 감소에 대한 제한점이 있었다. 유정미(2009)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와 우울에 대한 치료 효과가 만족감,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우울정서, 흥미상실, 자기비하에서는 있었지만 의사소통, 개방성, 이해성, 행동문제, 생리증상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민정(2006)과 이선영(2009)의 연구에서도 우울과 대인관계, 대인관계능력의 하위 요인인 정서 안정성, 대인신뢰감 등은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하위 척도인 대인신뢰감의 지속성과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등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연구들에서도 비행의 종류나 심각정도, 그리고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연구의 대략적 검토에서 고려해봐야 할 것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개입을 실시할 때, 실제로는 한 가지 변수만 해도 관련되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민원홍, 2013). 이런 변수들의 영향과 보호요인 자체의 매개효과가 상황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수의 효과가 실험 상황에서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는 더욱 가변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양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이 어떤 맥락과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며, 비행의 다양성에 따라 개인의 특성과 환경 요인들이 어떤 형태로 상호작용하는지 알 수 있게 되며,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사회환경 중심이론

사회유대이론과 차별접촉이론 간의 논쟁에서 한미 비교연구를 한 연구(이성식, 1994)에서는 미국 표집에서의 경우 차별접촉이론이 적합할 수는 있어도 한국의 경우는 사회유대(애착과 관여)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발견되어 사회유대이론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이유를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문화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여자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고, 가족유대의 약화가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경비행의 경험 유무, 그리고 지속의 경우에서 비행한 청소년이 비행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폭력적 훈육의 경험이 더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여자청소년은 비행경력정도에 따른 폭력적 훈육 경험의 차이가 분명하며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남자청소년의 경우 중비행 경력으로 인한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 차후 중비행 경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중비행 경력으로 인한 비공식적 낙인의 영향력이 나타났다(최수형, 2007).

비행또래수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증가하는 폭이 크고 여자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첫 비행시기와 또래관계 형성 시기는 성숙과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이 더 일찍 시작되며 비행이 반복되거나 늦어지면 성비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귀가 거의 어렵게 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외국의 경우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있다(이원복, 2007; Haynei, 2003). 또한 이전 연구들에서 여자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비행 관련성에 대해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 Krischer(2008)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외상경험이 비행을 예언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외상경험 뿐 아니라 가족 관련 변수가 보다 영향력 있는 변수

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다른 연구에서도 초범여성에 비해 재비행 여성은 좀 더 덜 안정적인 생활방식과 덜 안정적인 가족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현수·김현실, 2001; Till & Rose, 2007). 따라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대경험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감안해야하며 남녀 모두에게 일반적인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성을 고려하는(gender-specific)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Cruise & Ford, 2011; Foley, 2008; Trojanowicz, 1992).

Ⅲ. 연구문제 개발

지금까지 비행과 범죄에 대한 개인적 원인론과 사회적 원인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국내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증연구의 경향이 강하며(김지선, 2000) 양적인 접근방법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러한 연구방법으로는 비행 이면에 숨겨진 상징과 의미를 드러내기 어렵고, 겉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나 태도의 심층적인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 관련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김형수, 2004; 전영실, 2003; Foley,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제한점을 파악하고, 재비행을 하는 여자 청소년의 배경과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중재적 조건은 무엇인가?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며, 이들이 채택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전략이 개인에게는 어떤 효과를 미치며, 사회적 상황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의 네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재비행을 하는 여자 청소년의 배경과 특성은 무엇인가?

최근의 범죄 관련 연구들에서는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간의 상호작용이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지만(Akers, 2009; Andrews & Bonta, 2010; Subbarao et al., 2008), 국내 연구에서는 아직 개인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한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들 중, 차타순(2002)은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심리적 특성(자존감, 적대감, 소외감)의 하나인 자기애가 적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적대감은 소외감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남자 청소년에 한정되었다. 또 다른 비행 관련 성격특성으로 자주 언급되는 반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경숙(2012)은 역시 남자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초범연령이 낮을수록 냉담/비정서, 자기애, 충동성으로 설명되는 반사회적 특성이 높다고 제시하면서, 이들에게서 자기애적 요인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러한 요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였다. 한편 이동원(2004)의 남자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자아개념(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의 차원과 비행의 유형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달라지며, 자아개념의 차원과 비행의 유형에 따라 왜 차별적인 영향이 발생하는지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보호처분 수준에 따라 고도와 중도 비행청소년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정혜정(2013)의 연구에서는 중도나 고도 비행청소년들이 일반군에 비해 FSIQ와 관리기능에서 차별적 결손이 발견되었다고 하였으며, 중도와 고도 비행청소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비행화 과정에 관련한 연구들 중 전명희(1995) 등의 남자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관련 요인 중 ‘훈육의 부재 및 잘못된 훈육’이 대상 청소년의 가정환경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많은 요인은 ‘가족구성원의 관계상의 문제’였다. 그리고 비행화의 중요한 계기 혹은 사건으로 ‘도벽’과 ‘성적 저하 및 학교부적응’, ‘비행집단에의 합류’, ‘가출’, ‘중퇴’, ‘경찰서에 들락거리기’를 들었다. 즉 가족 내에서 시작되는 비행가능환경이 비행성향을 형성하고 비행이 심화되면서 범죄청소년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상정한다는 의미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통합적 경로모형에 관한 연구(유영재, 2006)에서는 남녀 청소년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남학생과 여학생, 일반학생과 비행학생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이 비행을 유발

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전명희(1995)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최근의 질적연구방법으로 수행된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재범 후 삶에 관한 연구(주영신, 2007)에서는 연구참여자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편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환경적 조건에 대한 논의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고려할 때, 과연 기존의 범죄 이론을 우리나라 여자 비행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한편 최근 이루어진 비행 청소년 연구에서 최종옥(2016)은 비행청소년 집단에서 외상의 경험, 특히 복합외상 경험이 많았으며 이는 모든 유형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최수형, 2007; Cruese & Ford, 2011; Krischer, 2008)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복합외상의 관점은 비행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각이 되며, 개입에 보다 구체적인 방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단지 분석에 남녀 청소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여자 청소년에 적용하기에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존 연구들과의 경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비행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에 노출되기 전 상황과 사건, 그리고 특성에 대한 탐색을 하기로 하였다. 즉, 재비행을 하는 여자 청소년의 특성과 그들의 환경이자 인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을 탐구하면서 기존 이론의 적용가능 범위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2. 비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중재조건은 무엇인가?

치료연구들에서는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부분적인 효과만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곽한영, 2007; 김민정, 2006; 김보애, 2002; 김주섭, 2000; 문영숙, 최승희, 2013; 소용주, 2007; 송혜정, 2013; 이선영, 2009; 유정미, 2009), 제한점으로 비행유형이나 연령, 비

행의 심각도와 특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각 개인들이 사회적 변수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요소는 너무나 다양하며(민원홍, 2013), 각각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수를 모두 고려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의 변인들과 사회적 측면의 변인들로 구분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김경(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의 변수로 공격성, 충동성, 자아존중감을 들었으며, 사회적 측면의 변수로 부모애착, 부모감독, 학업성적, 기대격차, 교사애착, 비행접촉, 비행유대를 들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기대격차는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다른 비행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보다 비행에 대한 상호작용 모델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점을 들어 각각의 개인적 특성들이 다른 어떤 요소와 상호작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도 일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재비행 여자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단지 개인적 측면의 변인들과 사회적 측면의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모델이 비행에 대한 각 변인들의 영향력보다 설명력이 높다는 점은 비행을 하는 개인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의 궤적에 대한 Thornberry의 상호작용 모델을 검증한 이상문(2013)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비행의 시작이 항상 비행의 지속성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개인의 기질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비행은 개인의 성장과정 중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과정에는 개인의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으며, 위험요소가 발달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

고, 연령에 따라 비행 억제 전략이나 개입을 다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측정된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이나 기질이 환경적 요인에 따라 비행성향을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특성이나 기질이 원래 비행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들은 외부자적 입장에서 비행과정을 탐색하고,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을 양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양적인 방법은 제시나 분석에 편리함이 있지만 실제 비행청소년들의 경험 중 중요한 측면을 간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요소들을 양적인 방법으로 모두 점검하고 고려하기보다는 비행 참여 당사자의 경험을 분석해나가는 것이 방향성이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변수가 상호작용하는 맥락은 무엇이며 그 과정을 중재하는 조건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비행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얹이 다양한 방식의 비행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도구가 되겠다.

3. 비행발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며, 이들이 채택한 전략은 무엇인가?

그 다음으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개인은 개인 내적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가운데 의미를 생성하고 행동을 선택한다-에 근거하여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 발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며, 이들이 채택한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질적 연구들 중 청소년 재소자(남=12, 여=8)들을 대상으로 한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에서 청소년 재소자들의 내적 요구(internal

need)는 ‘사랑과 관심’, ‘규제와 통제’ 그리고 ‘역할모델과 조망’의 3가지로 기술하였는데(Barnert et al., 2015), 이 요소들은 청소년 재소자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요소라 볼 수 있다. 또한 여성 재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Weiss et al., 2009)에서는 재범(recidivism)을 이끄는 힘("Sparkles"라고 명명)이 있으며, ‘Sparkles’에 의해 여성들이 법적 경계(legal boundaries)를 무시하고 그들의 개인적 경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 범죄자들의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인지적 차원에서의 재정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물론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인간의 욕구 위계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이 생존과 관련된 욕구임에 틀림없으며, 그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개입에 고려해야 할 부분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 한다.

국내 연구 중 청소년의 비행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최옥채·이정미, 2006)는 소년원에 있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대충살기’였고, 상호작용 전략은 ‘버티기’, ‘어울리기’, ‘사고치기’, ‘도망치기’로 제시하였다. 다른 국내의 질적 연구들도 대부분 재사회화 과정이나 탈비행, 소년원 적응과정을 탐색하였으며, 절대적 수가 부족한 여자 청소년에 대한 연구 중에 문영숙(2012)은 이들의 소년원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비행 여자 청소년들의 소년원 경험을 기술하였고, 성장해온 배경이나 범죄에 노출된 상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 비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여자 비행 청소년들의 비행발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들이 채택한 전략을 세밀하게 탐색하는 것이 여자 청소년들이 겪는 세계를 이해하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4. 이러한 전략이 개인에게는 어떠한 효과를 미치며, 사회적 상황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개인의 경험과 경험 속에 이루어진 전략이 개인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이들이 얻는 득과 실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주영신(2007)의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후 삶에 관하여 근거이론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인과적 조건과 현상, 맥락, 중재적 조건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다른 형태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 개입하는 전략을 달리해야 하며, 어떤 체계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자료가 근거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자료가 들어있는 그들의 삶과 경험, 사건들을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게 되며, 그러한 전략을 통해 유사한 조건에서도 각기 다른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는 근거이론에서 밝힌 철학적 전제 중 하나인, '연구자는 사회현상 및 인간 행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개인은 의미에 기초하여 행위를 하며, 의미는 상호작용을 통해 재정의 된다'로 설명된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근거이론에서 정의한 철학적 전제 하에 비행 여자 청소년의 생생한 삶을 면밀히 탐색하면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온 개념과 이론들이 국내 비행 여자 청소년에게 얼마나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들에 대한 개입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V. 연구방법

1. 연구방법의 선택

1) 연구방법 선택의 배경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입이나 치료들은 비행이나 범죄의 과정을 이해하고 선행 조건을 밝히거나 결과를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이론들이 비행이나 범죄과정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거나 같은 조건이 있더라도 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다른 관점에서의 탐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주된 연구방법인 실험연구나 조사연구는 주로 외부자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설계의 특성상 인위적인 실험조건을 조성하여 조건을 통제하고 제한된 변인들에만 초점을 두거나, 맥락적 조건에 할애할 수 있는 문항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그들의 가치관이나 이론적 배경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를 유보하면서 내부자 관점에서 알고자 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과 연구자의 해석이 스며들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Yin, 2011; 박지연 2013 역). 외부자적 관점의 제한들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삶의 의미와 현실의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맥락적 조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관심이 되는 현상의 주체인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와 관점을 보여줄 수 있고, 경험한 맥락적 조건을 다룰 수 있는 내부자적 관점(emic)²⁶⁾을 취하는 질적 연구는, 외부자 관점의

26) 인류학자이면서 언어학자인 Pike(1954)에 의해 고안된 emic과 etic이라는 용어는 각각 음소론(phonemics)과 음성론(phonetics)에서 따온 것이다. 그가 원주민 사회를 연구하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를 설명하는 과정에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직접 음의 원소들을 사용하여 언어로 사용하는 현지인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다.

질적연구는 문제나 이슈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이슈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와 양적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인과이론이나 모델의 기제, 연결고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특정 인구집단이나 표본집단을 위한 부분적이거나 적절한 이론이 없을 때, 또는 현존 이론들이 검토하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질적 연구를 사용한다(Creswell, 2007). 특히 여러 질적 연구 중에서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개인의 행위 그리고 사회적 현상을 주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항상 변화하고 개별화되며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어떠한 현상에 대해 기존의 이론을 통해서 알 수 없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질적 연구 방식들이 탐색하기 어려운 인간 행위 및 사회현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영천, 2013; Glaser & Strauss, 1967).

내러티브 연구가 단일한 개인의 삶을 보고하고,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며, 사례연구는 단일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심층기술과 분석을 전개하는 반면에, 근거이론 연구의 목적은 기술 수준을 넘어서 과정(또는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추상적·분석적 구조인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론 개발이 그 과정을 경험해 온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자료에서 창출되거나 그 자료에 근거한다는 것이다(Creswell, 2007 ; 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이러한 이론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과정 경험자들이 갖고 있는 생생한 자료를 통해 일치되지 않는 기존의 가설들과 이론들에 대한 설명과 후속 연구 방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

들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자적 관점을 emic으로 지칭하였으며, 여러 요소가 모여 상대방에게 표현될 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외부자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etic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김영천, 2013; Yin, 2011).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근거이론의 이론적 배경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1967)가 탄생시킨 근거이론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철학사상인 프래그머티즘과 사회이론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사회심리학자인 Mead(1934)에 의해 제시되고 Blumer(1969)에 의해 체계화된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기초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동물과 달리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둘째, 인간의 사고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셋째,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와 상징을 학습하며, 의미와 상징은 인간의 구별적인 사고능력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의미와 상징은 사람들에게 구별적인 행위와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섯째, 사람들은 상황의 해석에 더하여 그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와 상징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섯째, 사람들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통해서 행위의 과정을 검토하고, 행위와 관련된 이익과 불이익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곱째, 집단과 사회는 행위와 상호작용의 뒤섞임을 통해서 형성된다(이동성, 김영천, 2012 재인용).

이러한 기초적 원리는 인간의 능동성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개인내적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의미를 생성하고 행동을 선택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인간이 반응적이기 보다는 주도적인 존재이며, 외부세계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시각(Clarkson, 2010, 김정규 공역)과도 연결된다.

1967년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에 의해 근거이론 방법론이 발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래로, 근거이론은 선형적인 이론적 지향과는 대조적으로 이론이란 현장, 특히 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초기 근거이론의 발전을 이끌던 두 사람은 의견의 불일치로 방향을 달리하게 되며, 그 후 최근의 근거이론 방법의 주류가 되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철학적 전제는 첫째, 연구자는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자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활동의 기초로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의 관련성과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연구자는 사회현상 및 인간 행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주체로서 개인은 문제 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역할을 배운다. 다섯째, 개인은 의미에 기초하여 행위를 하며, 여섯째, 의미는 상호작용을 통해 제정의 된다. 일곱째, 연구자는 사건과 과정이 발전, 전개되는 본질에 대하여 민감성을 지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조건(구조)과 행위(과정) 그리고 결과 사이의 상호관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근거이론의 절차

근거이론의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Strauss와 Corbin(1997, 1998, 2015), 그리고 Glaser(1967)의 절차와 최근의 Charmaz의 구성주의적 접근, 그리고 실증주의적 토대에 있는 Clarke의 접근방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과정과 행동,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보다 체계적인 절차를 사용한 Strauss와 Corbin(2015)의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Strauss와 Corbin(1998)은 우선 질적연구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요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면접이나 관찰, 문서, 녹음이나 필름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data)이며, 두 번째는 연구자가 자료를

해석하고 조직화할 때 사용하는 절차(procedures)이다. 절차는 자료의 개념화(conceptualizing)와 환원(reducing), 속성과 차원에 따른 범주의 정교화, 관련짓기(relating)이다. 개념화, 축소, 정교화는 코딩(coding)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메모의 작성, 도표화가 포함된다. 세 번째는 학술지나 책, 논문으로 발표되는 글과 구두 보고서이다.

그림 1. 근거이론의 절차

연구문제의 명료화	• 연구문제의 연구방법으로 근거이론이 적합한지 결정
문헌조사	• 초기 이론적 표본추출의 기준 (문헌, 배경, 범주 탐색)
이론적 표본 추출	• 문헌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이론적 표본추출
자료수집	• 관찰, 문서, 시청각 자료, 특히 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
자료분석1: 기본적 개념화	• 원천 개념의 추출과 범주화
자료분석2: 이론적 개념화	• 심리학적 정보화를 통하여 이론적 연계
이론적 기술	•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의 결과물로서 발견한 이론을 기술

연구의 과정은 문제를 선택하고 연구 질문을 서술하기를 시작으로 객관성과 민감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연결시키도록 할 수 있다.

첫 번째 절차로 주제에 대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하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범주를 포화하는 과정을 갖는다.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면접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분석을 실시한다. 근거이론 연구의 자료 수집은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다시 연구실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다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정보의 범주가

포화되었는가와 이론이 복합적으로 충분히 정교화 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 수집에 의한 정보들을 가지고 비교하여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자료 분석의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ative) 방법이라고 한다.

Corbin(2007)은 분석이란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찾기 위해 무언가를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분석의 속성에 있어서 우선 분석은 예술이고 과학이며 해석적인 활동이다. 자료로부터 하나 이상의 스토리가 창조되며(focus가 다름) 속성과 차원 면에서의 개념들이 발달해나가면서 그 개념들은 분석의 기반을 형성한다. 개념들은 추상화의 레벨에 따라 다양하고, 분석은 다른 목표들을 가질 수 있다.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은 분석에서 중요한 측면이며 분석 자체가 역동적인 과정이다. 분석은 자료의 첫 조각들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되고 연구자는 분석적인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미시분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포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이론을 기준으로 형성된다기보다는 자료수집과 분석으로부터 상향식, 즉 귀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연구자의 경험에 의해 자료가 분석되지만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편견이나 편향을 갖지 않고자 노력하며 이루어진다. 때때로 연구 질문들은 연구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더 나은 질문 유형들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 도중에 변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연구 이전에 계획되었던 자료 수집 전략은 새로운 질문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다(Creswell, 2007).

Strauss 사후 Corbin(2015)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은 보다 개방적인 접근방식이 되었다. Strauss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자료 분석²⁷⁾의

27) 개방코딩의 단계는 유사한 개념을 묶어 범주화하며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밝히는 것이다. 개방코딩은 원자료에서 밝혀진 개념 중에서 유사한 의미나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묶어 하위 범주로 구성하고 구성된 하위 범주를 묶어 범주로 구성하는 단계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해체된 자료 및 범주들을 관련 있는 형태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개방코딩에서 나

과정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절차들을 설정하였다면, 오히려 최근 Corbin의 방법은 Glaser²⁸⁾의 방법론에 가깝다고 하겠다. Glaser는 개방코딩과정에서 연구자가 우선 찾아내야 하는 것은 ‘패턴’으로 보았고 개방코딩을 하는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패턴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Strauss는 분석의 뒷부분에 가서야 우연히 패턴이 발견된다고 보았으며, Strauss의 방법은 한 단락이나 한 문단을 해체해 거기에 개념적 이름을 붙이게 된다. Glaser는 둘의 차이가 전자(자신의 방법)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의 패턴을 개념화하는 것’과 후자(Strauss의 방법)의 ‘어떤 행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Glaser, 2014). 이 둘의 차이는 개인의 견지로는 Glaser의 방법은 도구로서의 연구자 역량과 민감성을 더욱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다 유연하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으며, Strauss의 방법은 초보 연구자에게는 분명한 지침을 갖고 시작하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시간과 노력의 투여가 많이 되어야 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오히려 자료에 민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료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어떤 방식이든 자료에 질문하고 비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Glaser는 지속적 비교방법의 사용이 연구자가 선입적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료에서 범주와 속성의 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강조를 거듭하였다. 또한 이론적 민감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어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상황을 전환하여 생각하며, 은유와 직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론적 비교를 하는 등의 자료 안에 담겨있는 개념을 찾기 위한 사고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타난 많은 범주를 현상, 상황, 전략, 결과와 같은 패러다임 특성에 따라 연관시키는 과정이다 (김영천, 2013; 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윤곽을 형성하는 단계가 선택코딩이라 할 수 있다.

28) Glaser의 코딩은 일단 범주와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그 핵심범주와 범주들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들을 통합하면서 개념적 가설을 생성하는 것이다(Glaser, 2014).

2. 연구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연구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에 의하여 재비행으로 보호관찰기관에 보호 중인 여자 청소년으로 하였다. 여자 청소년들이 보호되어 있는 기관은 6호 기관으로서 법원의 명령으로 6개월간의 보호 처분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법원의 위탁을 받아 여자 청소년들을 보호 중인 기관 접근통제자의 협조를 통하여 참여 청소년을 모집하였고,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총 25명의 참여자가 동의하였으며, 이 중 5명은 재면접을 하기 전에 기간 만료로 퇴소를 하게 되어, 20명의 청소년들의 자료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보호처분 내용

구분	보호처분내용	기간	대상연령
1호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2호처분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처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호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7호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8호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은 모두 20명으로 개정된 소년법의 보호관찰 6호 처분(표4 참조)을 받은 재비행 여자 청소년이다. 연구 참여자 중에 6개월의 기간을 만료하기 전 자발적으로 혹은 가족에 의해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보호 중인 청소년이 3명 포함되어 있다.

비행의 종류를 보면 특수폭행, 사기, 절도, 공문서위조, 무면허운전, 살인미수, 상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약물흡입 등이었으며 단일 사건이 여러 번 이어진 참여자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비행이 중복되어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면접과정에서 밝혀진 비행 외에도 다수의 암수범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20명의 연구 참여자 중 가족의 해체와 언어적, 비언어적 학대가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즉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성장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혹은 가정이 해체되었으며 폭력과 가정의 해체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재학 상태는 일부 만 학교에서의 배려로 출석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대부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7.8세였으며, 재학 중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였다. 평균 학령은 8.15년으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재학 기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표 5.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

구분	나이	학령	범죄명	가족관계	가출
1	17	11	집단폭행, 주거침입, 보호관찰위반	부모이혼, 조부모와 부동생 2	○
2	18	10	성매매알선, 폭행살인미수	부모이혼, 자취	○
3	15	7	폭행, 성매매알선	모 가출	○
4	15	7	약물흡입, 성매매, 폭력	부모이혼 부와 동거, 오빠	○
5	15	8	강도상해, 절도, 조건사기	조부모, 부, 동생	○
6	17	7	특수절도, 기물파손, 약물흡입	부모별거	○
7	19	11	점유이탈물횡령, 폭행	부모이혼	○
8	18	10	차탈이, 사기	부모이혼	○
9	19	6	공동공갈, 보호관찰위반	조손가정	○
10	18	9	절도, 특수절도	부모이혼	○
11	16	7	특수절도, 폭행	재혼가정	○
12	15	8	절도, 보호관찰위반	부모이혼	○
13	16	7	무면허, 폭력, 조건사기	재혼가정	○
14	16	9	폭력, 특수절도	부모이혼	○
15	16	9	폭력, 절도, 성매매	부모이혼	○
16	19	6	사기, 절도	부모이혼	○
17	18	10	사기, 절도	복합가정	○
18	19	11	폭행, 절도	모, 동생2	○
19	17	10	공문서위조, 절도	부모, 동생2	○
20	19	10	절도, 공문서위조, 폭력피해	부모, 오빠	○

3) 연구자의 준비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중요한 도구이며, 연구자의 도구성은 연구준비정도와 관련이 있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의 준비정도는 연구주체에 대한 지식과 자질, 그리고 역량 등이 질적연구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자가 질적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는 실재에 대한 의

견을 채택한다. 인식론적 가정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가능한 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질적 연구자들은 참여자가 살거나 일하는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이것은 참여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다. 연구자가 참여자를 알기 위해 더 오래 ‘현장’에서 머물수록, 직접적인 정보로부터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 더 많이 알 수 있다(Creswell, 2007).

본 연구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보호관찰기관인 남양주 소재 00의 집에 매주 목요일 방문하여 입소 청소년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생활교사 슈퍼비전, 심리검사 등을 담당해왔다. 또한 2008년부터 서울가정법원소년보호사건 심리진단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로 위촉받아 현재까지 소년보호사건의 범죄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범죄심리전문가로서 경찰서에 배치되어 소년사건의 비행예측소견을 내리는 범죄심리사의 슈퍼바이저로 3년째 활동하고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양적연구를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질적연구 방법의 수강과 연구회 참석, 그리고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비행을 반복하는 여자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하기 위하여 재비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이 있는 보호관찰기관을 자료수집의 장소로 선택하였다. 재비행 여자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탁받아 처분을 수행하는 접근통제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접근통제자란 연구참여자와 연구현장에 접근을 허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써 접근통제자의 승인이 없이는 연구가 진행될 수 없다. 보호관찰기관의 접근통제자는

기관장 및 팀장이 이에 해당하며, 2015년 5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마친 후 협조공문을 기관에 보내어 협조를 승인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접근통제자의 협조 하에 반복적인 비행으로 기관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등의 연구윤리를 설명하였다. 이후 접근 통제자가 연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동의하는 참여자를 우선으로 하였다. 개인 면접에서 다시 연구의 취지와 연구윤리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기관의 기관장실에서 개인 당 첫 면접이 50분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오가면서 추후 면접을 1회씩 더 실시하여 각 연구 참여자마다 2~3회의 면접을 수행하였다.

5) 면접지 구성

연구자가 2008년부터 실시한 재비행 청소년들의 상담일지를 점검하고 선행연구와 연구방법에 대한 고려를 마친 후, 연구문제 개발에 근거하여 목적에 부합한 면접지를 구성하였다. Charmaz(2006)는 면접지의 내용이 연구 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풍부한 자료가 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재비행 여자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게 된 과정과 비행의 전·후 상황, 그리고 정서 등 모든 대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질문을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비행의 전 과정을 기술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사건, 즉 기관에 오게 된 사건부터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기관에 오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질문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질문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처음 비행이 시작된 시기와 그 당시의 배경을 탐색해 나갔다.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다음 각각의 비행 유형에 따라 비행의 내적과정을

상세하게 질문하였다. 다음은 면접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조화한 질문지이다.

질문내용

◎ 소개

1.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나이, 이름, 학령, 가족관계).

◎ 비행과정

2. 이 기관에 오게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주겠어요?

3.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주겠어요?

◎ 비행배경

4. 비행 또래들과 어울리거나 비행에 노출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5. 이 당시 주된 정서(감정상태)는 어떠했는지 말해주겠습니까?

6. 비행또래들과 어울리거나 비행을 하기 전 정서상태는 어떤 것 이었습니까?

7. 비행을 하기 전 환경은 어떠했나요?

8. 비행 또래와 어울리기 전 혹은 비행 전의 자신의 성격은 어떤 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비행 전의 자기상과 비행 후의 자기상)

◎ 비행 후 삶의 형태

9. 비행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참는 것이 성공한 경우는?(그 순간에 어떤 생각, 이미지가 있었으며, 정서와 신체 상태, 행동 그리고 후의 생각과 정서, 신체상태, 이미지)

10. 비행을 한 그 순간에 어떤 생각과 충동 이미지가 있었는가?(전 후의 생각, 이미지, 행동, 신체상태)

11. 반복적인 비행을 하게 된 과정에서 또래들과 어울릴 때의 정서와 떨어져있을 때의 정서에 대해 이야기해주겠어요?

12. 반복적인 비행 과정에서 변화를 결심했던 중요한 사건(사람)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3. 자신이 변화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 연구자료 분석

Strauss와 Corbin이 1998년 까지 근거이론 방식의 단계로 이야기한 기본 절차는 개방코딩과 축코딩, 선택코딩, 과정분석 및 상황/결과 매트릭스의 제시이다(Strauss & Corbin, 1998). 최근까지 이루어진 근거이론 연구는 대부분 이런 절차를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김해운, 2010; 문성미, 2003; 손순용, 2008; 주영신, 2007).

그러나 Corbin이 2015년에 발표한 근거이론방법(Corbin & Strauss, 2015)에서는 선택코딩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으며 개방코딩과 축코딩까지의 절차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있다. 사실 개방코딩을 충분히 잘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근거이론이 밝히고자 하는 것을 기술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았다. 즉 구조화된 접근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론이 현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집하고, 의도적으로 사태나 상황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을 개발해나가는 것이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가면서 이론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고무한다”(Corbin & Strauss, 2015. p240)고 언급하고 있다. Corbin(2015)은 그 어떤 분석에 사용되는 절차도 자료가 의미하는 것, 혹은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최고의 도구인 연구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직관으로 작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p. 219).

Corbin(2015)이 근거이론 방법으로 말한 과정에서의 개념화는 크게 기본적인 개념화와 이론적 개념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Corbin(2015)이 개방코딩이라고 명명한 과정은 미시분석을 거쳐 기본적인 개념을 명명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여자들과의 면접에서 나온 자료를 개별적으로 명칭을 붙이면서 쪼개다보면 너무나 많은 형태의 개념들이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낱말의 추상적 개념들을 범주화하여 개념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화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개념화는 계속적으로 자료로 돌아가 포화²⁹⁾ 될 때까지

지 지속적으로 비교를 하는 순환³⁰⁾과정을 거친다. 기본적 개념화 단계에서 주의해할 것은 가능한 연구자의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개념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이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개념을 추출한다는 의미를 반영하고자 기본적 개념화 과정을 원천적 개념의 추출과 범주화라는 용어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이 기본적 개념화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근거이론 연구 방법 이론가들이 개방코딩이라는 용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는지 비교하였다.

기본적 개념화 다음의 과정은 이론적 개념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 개념화, 즉 개방코딩에서 만들어진 개념을 다시 심리학적 용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갖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저히 나타나는 전형성에 의해 개념화를 시키게 된다. 이론적 개념화란 전형성을 가지고 개념들을 범주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본적 개념을 심리학적 용어로 바꾸는 것인데, 기본적 개념화가 자료 해석의 순환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론적 개념화는 기본적 개념으로 돌아가는 개념해석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기본적 개념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포화되도록 순환을 하게 되며, 이렇게 심리학적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복합개념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선택코딩 단계까지 갔다고 볼 수 있다. Corbin이 근거이론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자료해석을 위한 순환과 개념해석을 위한 순환이며, 이론적 개념화가 진행된다면 복합개념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개방코딩에서 만들어진 개념들을 이론적 개념화를 하기 위해 해석학적 순환을 하게 되면서 심리학적 개념들이 충분히 포화되고 이러한 개

29) 원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포화라 할 수 있다. Corbin(2015)은 포화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개념들이 출현하지 않는-when no new concepts are emerging”것으로 설명이 되었으나,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되지 않는 사건, 그 이상이다. 즉 속성의 면에서 개념의 발달을 표시하고 차원적 변수를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p 134).

30) 포화되었는지 보기 위해 자료로 돌아가는 것.

념들이 많아지면 복합개념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순환들을 하면서 -포화가 되었는지 빠뜨린 게 없는지 보기위해-자료로 돌아가고 원래 자료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타당도'의 확보이며, 동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자료에 대해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념에 대한 공감을 확인하는 것이 '신뢰도'의 확보 과정이다.

대부분 사회학자들인 질적 연구자들(Corbin등)이 사용하는 개방코딩이나 축코딩이라는 명칭은 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결국 개념화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으로써-근거이론 방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곧,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과정 자체를 “이론화”의 의미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로 명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리학에서 오랜 기간 구축해온 개념 정의에 대한 기준이나 이론을 적용하였다면 굳이 절차가 “이론화의 방향”보다 강조되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거에 근거이론 연구에서 이론적 의미 보다는 절차가 강조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기계적”으로 그 과정과 절차를 따르게 하는 폐해를 극복하고자 Corbin이 2015년에 좀 더 이론화의 방향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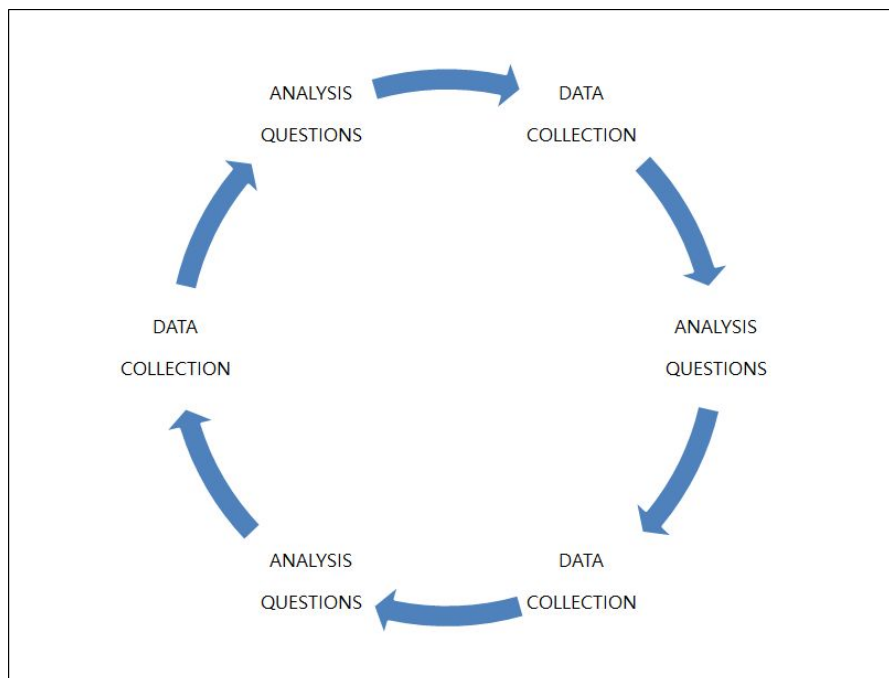
3. 근거이론 방법의 주요개념

1)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이란?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이라는 말은 이론화를 위한 소재(예;개념)가 현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표집하여 이론화의 방향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소, 사람, 상황에 소재가 내재되어 있어, 거기로부터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개념을 표집한다는

의미이다. 또 Corbin은 “자료로 하여금 연구를 가이드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특히 초심연구자들에게 있어 너무 개방적이고 연구자가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구조화된 접근을 선호하는데, 그 접근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이론화를 위한 개념의 원천이 되는 것을 뽑는 것] 할 때 보다 쉽게 연구자가 마음대로 편하게 답을 구할 때, 분석을 하면서 질문에 답을 구할 때, 이론적 개발이 잘 될 수 있다”(Corbin & Strauss, 2015. p.134)고 기술하고 있다.

그림 2.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Corbin & Strauss, 2015. p.136)



즉, 이론적 표집이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이론에 충실한 이야기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샘플링을 하고 거기에 연관된 개념을 뽑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결국 이론화를 위한 표집을 위해 미시

분석 단계에서 사건이나 사람, 장소와 관련된 원천적인 개념들을 추출할 수 밖에 없지만, 결국 이론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들로 뭉쳐지면서 이론적 개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표집의 기준은 “이론 개발에의 기여(served developing theory)”-즉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다가간다는 것이다.

2) 개방코딩 과정 : 기본적 개념화 과정

연구 참여자의 구술한 내용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개념으로 추출하였는가는 이후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려는 독자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리라 본다. 실체나 사실(fact)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의사소통하는 도구로서의 언어는 전달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개념과 범주를 사용하게 된다. 철학자들에게 개념이란 실체(reality)의 근본적 본질을 이해하고 실체에 대한 지식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며 심리학자에게는 인간 사고에서 관찰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각하는 것과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현대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사고과정의 대부분은 개념³¹⁾과 범주의 사용으로 이루어지고 언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단어들은 개념을 나타내는 표지로 작용한다. 이를 위하여 심리학적 입장에서 그간 심리학자들이 구축하고 발전시켜온 개념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적용하기 쉽게 다루어 나가고, 이후의 연구 수행에 미세하나마 지침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31) Rosch(1978)는 심리학의 관점에서 개념은 유목에 대한 심적 표상이며,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인지적 절약(cognitive economy)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만일 개념이 없다면 각 개체를 그 고유의 이름으로 불러야 하므로, 여기에 요구되는 심적 사전(mental lexicon)은 대단히 거대해지고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runer(1956)는 개념의 중요한 또 다른 기능이 사람들에게 지각적 정보와 비지각적 정보를 연결하게 해주어 그에 대한 대응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3) 코딩의 목적 : 개념화

(1) 기본적 개념화 과정

① 기본적 개념화 : 개방코딩의 의미 비교

우선 각각의 대표적 질적 연구자들이 ‘코딩’을 설명한 것을 살펴보자. Glaser³²⁾의 경우, 자료로부터 근거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자료를 분류하는 첫 단계가 자료를 쪼개거나 해체하는 것으로, ‘자료를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열어젖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중심문제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선입적 태도를 자제하면서 자료에 마음을 ‘열고[최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이론을 배제한다는 의미]’ 자료가 말하도록 하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맨 처음 Glaser와 함께 근거이론의 방법을 제안한 Strauss의 경우, 그의 근거이론 방법론 2판에서 한 단락이나 한 문단을 해체해 거기에 개념적 이름을 붙이는 과정으로 ‘개념화’가 이론 구축의 첫 단계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그 자체로 그 현상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현상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하였다.

Charmaz(2006)의 경우는 근거이론의 코딩이 분석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으로, 이론적 통합은 이들 뼈대를 작업 중인 골격에 맞추어 조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였으며, 개방코딩이라는 말 대신에 초기 코딩, 초점 코딩, 이론적 코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녀는 중립적인 연구자는 존재하지

32) Glaser는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하여 사건과 사건을 비교하고, 사건과 개념을 비교하면서 ‘이 사건이 가리키는 범주나 범주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 자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와 같은 중립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범주와 속성이 출현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줄단위 코딩보다 사건단위의 코딩을 지지하였는데, 그는 코딩이란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를 개념화하는 것이고, 개방코딩이란 핵심범주와 그 속성들로 코딩범위를 제한하는 지속적 비교방법의 최초 단계라고 말하고 있다.

않는다고 보았고, 특정한 언어의 사용은 관점과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자료를 분석해 가면서 연구가 처음 계획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자료를 조사하면서 배워나가는데,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의 분석 형태가 결정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해야 하며, 수 많은 질문을 던지며 자료가 데려가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결정적 역할은 언어로서, 인간의 경험적 세계는 거기에 취하는 언어와 행위를 통해 알게 된다고 하였다. 특정한 언어의 사용은 관점과 가치를 반영하며, 연구자는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의 언어에 깔려있는 숨겨진 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코드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신의 코드가 연구하는 세계의 행위와 사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형태라고 믿을 때조차도 코드는 연구자가 구성한 것이고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며, 단지 참여자의 암묵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자료를 파헤쳐 나가야 하고 어떠한 이론적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Charmaz, 2006). 따라서 이러한 언급들-코딩이나 개방이라는 용어-은 연구자가 개방적이나 혹은 개방적일 수 없음을 인정하느냐의 차이일 뿐,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자의 태도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② 기본적 개념화 : 원천 개념의 추출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원천 개념의 추출과 원천 개념의 범주화이다. 예를 들어 새나 연, 그리고 비행기처럼 공통의 특성이나 의미를 공유하는 “가공하지 않은 자료”와 다른 “가공하지 않은 자료” 문치에 개념적 이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p. 220).

표6. 원천개념 추출의 예

범죄에의 노출 호기심으로 동반함	“몇 살이었지? 열다섯 살 때인가? 제 생일에 친구랑 만났어요. 집에 갔었는데 친구 아는 오빠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같이 나왔어요. 심심하고 하니까..그리고 막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그래서 내가, 너가 날 불러서 이렇게 모르는 오빠한테 왔는데 니가 갑자기 어디를 가면 나 이 상황에서 어딜 가야 되냐, 했더니 자기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지금 돈을 벌려고 나온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돈? 이랬더니, 자기가 지금 300만원을 벌면 내 생일선물도 사주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큰 액수, 액수가 크니까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 뭐하는데? 이랬더니, 모텔에 가서 남자랑 술만 먹고 나올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냐고, 별 걱정이 안 됐거든요? 괜 원래 남자랑 술 잘 먹고 다니는 애라서. 별 걱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차에 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조건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에 있었는데 그 오빠들 갑자기 올라가더니 경찰이랑, 한참 있다 경찰들이랑 내려왔는데 저까지 해서 잡아간 거예요. 너도 그 전에 한 타임 했었냐, 그래서 아니다 이라고 얘기하고, 넌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그래서 사실대로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했더니 공동공갈미수로 이렇게 된 거예요...
꼬임에 넘어감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나중에 됨	
의심이 됨	
쉽게 믿어버림(순진성) 적은 정보로 판단 사건 후에 인식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됨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들어있는 자료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념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념의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기술한 경험을 원천적인 개념 추출 단계에서 의미 있는 단위로 만들어 나간다. 어떤 경우에는 한 문장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들만의 용어로 표현된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다. 지속적 비교를 하면서 자료로 다시 돌아가고 공통되는 개념들을 추출한다. 유사한 개념들을 가까운 위치에 놓은 과정을 하며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포화이다. 여기서 원천개념의 추출은 자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개념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과 사건을 지각하고 기억하며 이야기하고 사고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다. 즉, 우리의 경험을 개념³³⁾으로 부호화하는 것은 모든 인지과정의 기초가 된다(신현정, 2011).

33) 개념의 첫 번째 기능은 인지 경제성의 기능이다(Rosch, 1978). 개념은 세상을 유목으로 분할시킴으로써 우리가 지각하고 학습하며 기억하고 의사소통하며 추론하는 등의 인지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념의 두 번째 기능은 과거 경험을 현재의 관심사와 접목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③ 기본적인 개념화 : 원천적 개념의 범주화

Corbin(2015)이 개방코딩의 단계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개념은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보다 상위 수준의 개념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하위 수준의 개념은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하며, 낮은 수준의 개념은 범주를 설명한다. 낮은 수준의 개념은 기초를 제공한다. 낮은 수준의 개념은 낮은 수준의 개념 집단을 구성하는 보편적 요소로 범주를 이끌고 가리킨다. 이론을 세우는 것은 이러한 개념으로 기초를 세우는 구조물과 같다(Corbin & Strauss, 2015. p219).

또한 기본적인 개념화 단계는 유사한 개념을 묶어 범주화하며 각 범주³⁴⁾의 속성과 차원을 밝히는 것이다. 개방코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화 과정은 원자료에서 밝혀진 개념 중에서 유사한 의미나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묶어 하위 범주로 구성하고 구성된 하위 범주를 묶어 범주로 구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속성이란 범주의 특성, 정의, 의미를 지칭하며, 차원이란 범주의 속성이 변화되는 범위를 말한다. 근거이론의 분석절차는 질문하기와 비교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작업은 불분명해 보였을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료 안에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가능한 속성과 차원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돕는다. 또한 전개되는 이론을 더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여, 초기 틀을 확고히 하거나 변경시키고 변화와 일반적 패턴을 둘 다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Strauss & Corbin, 1998). 여기에서 우리는 상위범주와 하위범주간의 내재성에 대한 고전적 범주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의 세 번째 기능은 귀납추론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즉, 직접 경험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각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신현정, 2011).

34) 지식을 조직하는 한 가지 방법은 범주와 범주로 구성된 위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범주는 환경의 복잡성 및 계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켜주며, 또한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하며, 정돈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사건들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Reed, 2006).

심리학적 측면에서 개념의 본질, 즉 개념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기능은 첫째로 범주화의 기능이다. 범주화란 특정한 사례가 특정한 개념의 구성원인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부분집합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개념이 범주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념이 본질적으로 형태재인(pattern recognition)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개념은 새로운 대상들을 유목화하고 그러한 대상에 대해 추론하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신현정, 2000).

우선 개념에 대한 고전적 견해³⁵⁾에 의하면 필요충분조건으로 특성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고전적 개념은 Rosch(1975) 등의 연구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기 전까지는 인지경제성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사용되었다. 즉 고전적 범주화는 정의용 특성(defining features)의 집합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하여, 주어진 대상이 어떤 범주에 속하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어떠한 개념과 범주도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즉, 하위범주의 특성은 상위범주가 가지는 특성들을 충실하게 반영하므로 상위수준 범주의 특성은 모든 하위수준 범주에서 관찰되어야 한다(이순묵, 2009). 이러한 기술은 Corbin이 개방코딩의 과정으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며, 다시 말해 개방코딩 과정은 개념에 대한 고전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본적 개념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 쪽에서 조금 학생들을 많이 배려하는 편이에요. 문제아들이

35) 개념이 낱개로는 필요조건이며, 전체로는 충분조건이 되는 정의속성들의 집합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가정은 개념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함축하는데 범주의 경계가 명확하며 어떤 대상이든지 필요충분속성들을 갖추고 있으면 범주의 사례가 된다. 또한 한 범주의 사례들은 그 범주 내에서 모두 등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속성들은 사람들이 모든 언어적 관계와 단어결합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Katz, 1972).

많이 가는 학교기도 하고 좀 사고 많이 치는 애들이 성적인 안돼서 들어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학교 자체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많고 나쁘지 않아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할 뿐이지.”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선에서 끝내요. 학교를 다니면 징계에서 끝내는데 학교를 안 다니면 법적으로 넘어가요”

라는 기술은 ‘학교의 긍정적 기능’이라는 기본적 개념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학교의 기능’과 관련하여 학교의 대처와 학생들에 대한 관심에 따라 학교 중단과 유지가 달라지며, 법적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권위체계에 대한 경험’이라는 핵심특성에 의해 다시 이론적 개념화를 할 수 있게 된다.

(2) 이론적 개념화 과정

① 이론적 개념화 과정의 목적

그 다음 단계는 연구의 맥락을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이론적 개념화 과정이다. 이론적 개념화란 전형성을 가지고 개념들을 범주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범주를 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키며,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심리학적 용어로 전환하면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들어간다. 조건/결과 매트릭스는 작용/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의 범위와 상황을 정의하는 가능한 조건들의 범위는 분석학적 전략을 돕기 위한 것이다. 맥락은 복합 개념이다. 복합개념은 예상된 결과와 조건의 배경 안에 위치하고 작용/상호작용을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개념들을 연결하고 설명하는 이론의 역량을 강화한다. 과정이란 작용-상호작용에서의 적응적 변화

가 조건의 변화에 의해 취해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론이 만들어지며 한 개인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② 이론적 개념화 : 축코딩의 의미 비교

여기에서 이 단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축코딩이 유용하다고 보는 Strauss(1998)의 입장과 제약을 주는 것이라는 Glaser(1978)의 입장이 있다. Glaser는 이론적 코드가 초점 코딩을 통해 개발된 범주를 통하여 분절된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에 축코딩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이론적 코딩군을 제시하고 확장하여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Glaser가 제시한 코딩군은 사회학적 개념이나 분석적 용어가 되기도 하며 실증주의 개념을 반영한 것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코딩군이 객관성을 보장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이론이나 배경에 이끌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Strauss의 축코딩에 대한 정의-‘축코딩은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Axial)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코딩이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축코딩은 범주 사이에 연결을 만듦으로써 개방코딩을 한 후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되돌리는 일련의 절차다. 축코딩은 조건, 맥락,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를 포함하는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³⁶⁾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에 대해 Strauss가 이론적 코딩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였으며, 심지어 Strauss의 개념적 정교화는 수행하기는 쉬울 수 있지만 근거이론이 아니라고까지 말하였다. 한편 Charmaz는 축코딩이 Strauss와 Corbin의 전략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범주 간의 연결을 가시적으로 만

36) 분석자가 구조를 과정에 통합시키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분석적 도구로써 드러나는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식 중의 한 가지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드는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축코딩은 연구자가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정해진 구조로써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틀이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단순하고 유연한 지침을 선호하거나 모호성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축코딩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축코딩을 잘 사용한다면, 출현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분석력을 명료화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잘 못 사용된다면 자료 위에 기술적으로 덧씌우기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전의 축코딩³⁷⁾의 단계로 설명된 절차는, 연구자가 개방코딩을 통해 해체된 자료 및 범주들을 관련 있는 형태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기본적 개념화 단계에서 나타난 많은 범주를 현상, 상황, 전략, 결과와 같은 패러다임 특성에 따라 연관시키는 과정이다(김영천, 2013).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윤곽을 형성하는 단계가 선택코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축코딩이라는 용어뿐 아니라 선택코딩³⁸⁾의 단계가 Corbin(2015)에서 사라진다.

③ 이론적 개념화 : 심리학적 연계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쓰는 개념은 모호개념으로써 전형성³⁹⁾과 핵심특성

37)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축코딩은 1. 하나의 범주의 속성과 그 차원을 찾아낸다. 이것은 개방 코딩 기간 중에 시작된다. 2. 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조건, 작용/상호작용, 그리고 결과를 밝혀낸다. 3.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나타내는 진술을 통해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킨다. 4. 자료 안에서 주요 범주가 서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서를 찾아낸다.

38) 선택코딩 핵심범주를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기술하고 이야기 속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범주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2인에게 이야기 윤곽을 보여주고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 후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들을 조직화하여 이론적 개요를 형성한다.

39) 전형성은 원형특성, 즉 사례들 간의 친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에 의하여 응집력을 갖는다. Wittgenstein(1953)은 고전적 개념의 대안으로 범주내의 모든 대상들이 그것을 공유하는 식의 범주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오히려 범주 내에서 가족으로서의 유사성 구조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이순복, 2009 재인용).

에 의해 정의된다. 기존의 고전적 견해는 필요충분조건만 갖추면 범주 내에서 모두 등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가정을 전제하는데, 이는 전형성 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친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라는 개념은 Wittgenstein(1953)이 처음 사용하고 이후 Rosch와 Mervis(1975)가 수행한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는 개념에 속한 모든 범례를 기억으로부터 생성하도록 요구받으면, 사람들은 전형적인 범례들을 비전형적인 것보다 더 먼저 인출하며, 한 항목이 어떤 개념의 범례인지 아닌지를 가능한 빨리 결정하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들의 반응은 덜 전형적인 것보다는 전형적인 범례에 대하여 더 빠르다는 것이다. 전형성(typicality)에 대한 발견은 고전적 견해에 맞지 않는 개념들을 구분하려는 시도에 의해 모호 개념(fuzzy concepts)으로 분류되었으며, 모호 개념의 특성들은 모든 범례가 아닌 몇몇 범례들에서만 발견되고, 지각적으로도 현저하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특성들의 집합을 원형(prototype)이라고 하며, 한 개념의 내용은 그 개념의 원형이며, 한 대상이 어떤 개념의 원형과 충분히 유사하면 그 대상은 그 개념의 범례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Sternberg & Smith, 1988). 원형에 대한 관점은 일상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형성 효과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우리가 그것이 야채에 속한다는 사실을 배우기 전까지는 과일로 생각하기 쉽다. ‘토마토’가 일반적으로 과일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동그랗다, 빨갛다 등) 우리가 ‘토마토’를 과일로 범주화하기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범주의 특성이 많은 범례일수록 전형적인 범례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듯 고전적 견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류들이 있으며, 언어체계에서 대상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들 중 다수가 모호 개념에 속한다. 모호 개념은 고전적 견해에 맞지 않는 개념들으로써 사람들은 원형적 자극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형은 심리적 과정이 쉽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Winkielman et al., 2006). 이러한 전형성 효과를 설명하는 지각적으로 현저한 특성들의 집합을 원형(prototype)이라고 하고, 한 대상이 개념의 원형과 충분히 유사하면 그 대상은 그 개념의 범례가 된다(Cohen, 1987; Smith, 2014).

Corbin(2015)은 ‘새’, ‘연’, ‘비행기’에 공통적으로 ‘날다’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다시 속성과 차원이 있다고 하였다. ‘날다’는 ‘지속기간’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며, 지속기간은 단기간부터 장기간까지 대상이 날 수 있는 것에 의존한다(p.220). 그녀가 개념화하는데 유념해야 할 것으로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다(p.221).

- 자료를 다루기 좋은 조각으로 쪼개기
- 가능한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브레인 스토밍하기
- 의미를 대표하는 개념의 윤곽 그리기
- 개념 간의 수준을 차별화하기
- 비교분석을 적용하기, 질문하기와 다른 분석적 기술들을 사용하기
- 개념들을 발전시키기
- 분석과정의 일부로써 메모를 생산하기
- 이론적 표집을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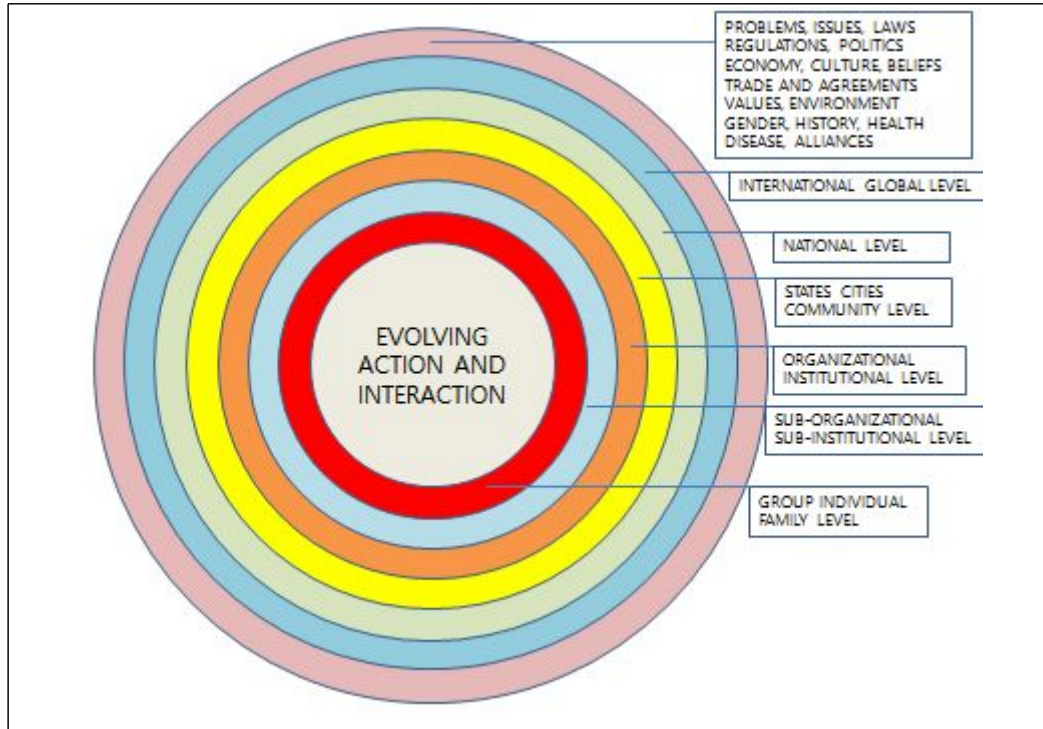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자료-을 개념화하는 과정으로써 ‘원형’에 의해 범주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다시 자료로 돌아가는 지속적 비교를 하면서, 지각적으로 선명한 주제들로 범주화를 하는 것이 ‘원형’에 의해 기본적 개념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에 의해 범주화를 하는 것으로는 그 범주의 성격이나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기 어

렵다. 지각적으로 현저하게 보이는 ‘원형’외의 기준이 필요하다.

자연분류의 개념은 원형만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비교적 숨겨진 경향이 있는 핵심(core)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핵심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으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은 개념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진단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호 개념은 원형적 특성 또는 핵심 특성을 중심으로 조직화된다고 볼 수 있다(이순목, 2009). 즉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범주화하는 것은 원형적 특성 또는 핵심 특성을 사용하여 해당 범주에 잘 맞는 행동일수록 그 범주로 빠르게 범주화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접근은 원형적 특성으로 빠르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진단적으로 그 범주에 속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자연대상을 예로 할 때, 그 대상의 유전적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대상의 경우에는 유전적 정보를 들 수 있지만 인간의 경험은 유전적 정보를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개념을 위계화하는 방법으로 진단적 속성을 추론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위계를 통해 범주의 핵심특성을 알 수 있게 된다(Sternberg & Smith, 1988).

Corbin(2015)은 개념을 정교화하기(concepts elaboration)위해 그들의 속성과 차원으로 개념들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맥락을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에서 과정을 가져오며 범주를 통합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맥락은 복잡한 개념으로, 조건의 배경과 예상되는 결과 간의 작용-상호작용을 위치시키고 설명한다(p.268). 과정은 조건에서 변화하는 반응을 취하는 작용-상호작용을 따라 적응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작용-상호작용은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정기적일 수도 있으며, 부정기적일 수도 있다. 기발할 수도 있고, 자동적일 수도 있으며, 혹은 사려 깊을 수도 있다(p.283).

그림 3. 조건/결과 매트릭스(Corbin & Strauss, 2015. p. 163)



도식(paradigm)은 분석자들이 범주를 둘러싼 개념화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적 도구이다. 도식은 조건들, 작용-상호작용들, 결과 또는 결과물로 구성되어있다(p.156). 이러한 설명은 다시, 원형 더하기 핵심이라는 개념에 대한 발견과 연결될 수 있다.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은 개념의 구성원들에 대한 진단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숨겨진 경향이 있다. 핵심개념은 빠르게 유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기는 어려우나 궁극적으로 하나의 특수한 예가 속할 유목을 결정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Smith, 1988). 따라서 기본적 개념화에서 생성된 개념들을 심리학적 개념, 즉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환하는 것은 이러한 원형과 핵심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명명하는 것으로, 이론적 개념화라고 지칭하

는 것이 보다 선명한 이해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4. 연구방법의 요약 및 평가

1) 전체 방법의 요약

따라서 미시분석이 1단계로서 기본적 개념과 vivo code들이 섞여있는 기초적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분석된 단위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개방코딩 단계라고 할 있는데, 쉽게 말해 개방코딩은 연구자의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료를 가장 보편적인 개념, 즉 기본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기본적 개념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이러한 기본적 개념을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으려면 심리학적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Corbin(2015)이 축코딩이라고 명칭하였던 과정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심리학적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론적 개념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단일 개념을 복합개념으로 바꾸는 것 까지 성공한다면 심리학적 개념을 구축하는 것이 된다.

2) 연구방법론에 대한 평가

연구자들과 독자들이 그 연구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밀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평가의 틀로 Corbin(2015)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1. 목표한 표집은 무엇인가? 어떻게 원래의 표본이 선정되었는가?
2. 표집 절차는 어떻게 하였는가? 어떤 종류의 자료가 수집되었는가? 자료의 다양한 출처와 다양한 비교 집단이 있는가?

3. 수집된 자료를 번갈아가며 분석하였는가?
4. 윤리적 고려가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 모두 이루어졌는가?
5. 개념이 이론적 표집을 기반으로 분석이 되었는가? 또는 그 개념들이 문학이나 이전에 출판된 자료나 문헌에서 만들어졌는가?
6. 이론적 표집이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술되었는가?
7.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자료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었는가?
8. 증거 혹은 메모의 예가 있는가?
9. 어떤 지점에서 자료의 수집을 끝냈는가? 포화에 대한 논의를 마친 지점에서 수집을 끝냈는가?
10. 이론적 표집, 개념화, 범주화 그리고 관계의 진술에 대한 예시에 따라 어떻게 코딩 절차를 하였는지가 있는가? 주요범주로 나타난 사건, 사고, 혹은 작용은 무엇인가?
11. 핵심범주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는지 기술되었는가?
12. 결과를 기반 한 조사에서 설계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가?
13. 연구자들은 조사하는 동안 어떤 문제에 직면했었는가? 거기에는 반대되는 사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사례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14. 방법론적 결정은 명백하게 잘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독자들이 그들의 모여진 자료와 분석에 대한 적절함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가?
15. 다른 전문가들과 참여자들로부터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는가? 그리고 변화가 피드백을 기반 한 이론 안에서 만들어졌는가?
16. 그 연구자는 연구 저널 혹은 기록을 남겼는가?

다음은 연구자들과 독자들이 질적인 평가와 근거이론연구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1. 핵심범주는 무엇이고 주요 범주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러한 관계를 묘사한 도표가 있는가?

2. 핵심범주는 충분히 일반적인가? 이 장면을 넘어서 유사한 상황이나 다른 표집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가?

3. 각각의 범주는 적절성과 차원의 관점에서 개발되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 그 범주들은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가?

4. 삶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가져온 각각의 범주 아래를 서술하는 자료가 있는가? 그 결과 이해를 제공하고 다양한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가?

5. 맥락은 그 이론 안에서 증명되고 통합되어지고 있는가? 조건과 결과는 분리된 구획 안에서 단지 배경정보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안의 작용/상호작용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는 실제적 분석에 따라 움직이는가? 맥락을 기술하는 것은 그들이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상황에 맞게 이론이 발전되고, 그 이론 하에서 이론의 잠재적 사용자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6. 과정은 조건 안에 있는 변화에 관련성이 있는 작용/상호작용 안에 있고, 변화의 형태에 있는 이론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7. 포화는 어떻게 설명되어졌는가? 언제 어떻게 그 포화 범주는 결정되었는가?

8. 결과는 연구에 부분을 차지하는 참여자들과 연구를 마치는 전문가 모두의 경험에 맞게 혹은 공명하게 하였는가?

9.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무언가 놓친 느낌을 받게 되는 차이나 놓친 연결이 이론 안에 있는가?

10. 극단적이거나 반대되는 사례들이 있는가?
11. 변수가 이론 안에 생성되었는가?
12. 결과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식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가 새로운 어떤 것이나 새로운 방식에 이전의 사고를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13. 결과는 상황에 대한 통찰을 주고, 현실을 변화시키고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며, 전문성의 기반에 지식을 더하여주는가?
14. 이론적 결과는 어느 정도까지 의미 있게 여겨지는가?
15. 결과는 논의할 부분이 되기 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전문적 집단에 관련하여 사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16. 연구의 제한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는가?
17. 실제적, 정책적, 지도 및 연구의 적용을 제시하였는가?

이러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결과 이후 연구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윤리성과 엄격성을 고려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써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신빙성이란 연구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써 삼각검증(triangulation), 부정적 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 반대 가설 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공정함과 엄격함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윤리적 타당성은 모든 연구주체가 도덕적 가정, 정치적이고 윤리적 함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균형적 처리를 기초로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면접자료를 분석하여 비행발현과정과 재비행요인에 대한 개념화를 실시하였다. 비행발현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 개념화와 이론적 개념화 단계를 실시하였으며, 재비행 요인 및 비행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기본적 개념화 단계까지만 실시하였다.

1. 비행발현 과정

1) 기본적 개념화

(1) 원천개념의 추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문장이나 사용한 단어에 이름을 붙이며 원천 개념의 추출을 행하였는데, 모두 일곱 차례 정도 숙독을 하며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였다(그림 1). 맨 처음의 자료를 분석을 하며 엑셀파일에 이름을 붙여 저장한 다음, 그 다음의 자료로 돌아가 유사한 개념은 같은 칸에 내용을 저장하고 새롭게 출현한 개념은 그 밑의 칸에 이름을 붙여 계속 저장해 나간다. 모든 자료를 이러한 방식으로 저장한 다음 같은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끼리 모이도록 위치를 이동하여 저장한다.

예를 들어 ‘아...배경은 이제 엄마, 아빠가 되게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막 크게 제가 비행을 저지르는데 그런 이유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좀 외로웠다고 해야되나? 집안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친구들이 그

런 애들 밖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라는 기술은 '부모의 이혼', '외로움의 경험', '동질적인 친구들과 어울림', '행복의 박탈감'이라는 명칭을 붙여가며 분석된다. 또한 폭력을 예로 들 때, '아빠한테 많이 맞고 살았어요. 목검이랑 그런 걸로, 야구빠따로...', '교복도 한 세 번 찢었거든요..엄마가...', '몸값도 못한 년, 막 물 값도 못한 년, 물 티슈 값도 못한 년, 막 이러면서 나가 뒤져라 이러면서 나가서 차에 깔려 뒤져라 이러면서...' 라는 참여자의 진술에 줄을 치면서 개별 명칭을 붙인다. 원천적 개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줄친 것들이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기본적 개념화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 개념화는 꼭 심리학적 용어일 필요는 없으며 원천적 개념 추출에서 줄쳐진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폭력의 예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나타난 개념을 자료해석의 순환, 즉 자료로 돌아가 충분히 포화상태로 뽑아내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범주화를 하면 기본적 개념화의 단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원천개념의 추출과 범주화 과정(일부 발췌)

기본적 개념화 단계에서는 '가정의 해체', '불리한 사회문화적 조건', '불량한 주변 환경', '외상적 사건 경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부적절한 훈육태도', '역기능적 가족관계', '학교에서 또래의 배척을 경험', '학교가 보호체계가 됨(긍정적, 부정적)', '낙인효과', '법체계 경험', '가족에 대한 긍정적 평가', '순진성', '남성성', '온정성', '이타적 성향', '독립적', '적응적 학교생활', '호기심', '부적절한 대처', '환경적 조건에 의해 수치심을 경험', '낮은 자기가치감의 형성', '성격의 변화', '부정적 정서', '정서적 혼란', '사고의 단순성', '관계에 대한 단순성', '가치판단이 약함', '정서적

1. 인구 통계학적 구분						
성별				여1	여2	여3
연령				17	18	15
학급				11	9	6
주요업	가방코딩	구분	미시분석	a	b	c
		사건 상세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받아서 온 게 큰 것 같아요.	보호관찰 위반인데	보호관찰 위반이에요.
반복범죄	반복범죄유형	결과	반복적으로 좀 비량이 있었다는 건데 오게 된 시간?	작년 6월, 12월, 올해 4월 심사함.	성매매 알선이고 하나는 그거 특정, 살인미수 그런 쪽인데 특정 살인미수	특정사건이랑 성매매 알선
반복범죄	범죄상세	결과	사건종류	집단폭행, 주가침입, 공동주거침입, 보호관찰위반, 진술미흡해서 미뤄지다가		
반복범죄	입수범죄	결과	입수범죄	저희가 그때 특수 절도가 있었는데 그건 안 걸렸어요		
긍정적권위체계의 경험	학교가 보호체계가 됨	역락	학교의 배려로 학교를 유지하게 됨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 쪽에서 조금 학생들을 많이 배려하는 편이에요. 문제아들이 많이 가는 학교기도 하고 좀 사고 많이 치는 애들이 성적인 안락서 들어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학교 자체는 기술을 배우는 거고 학교 나쁘지 않아요. 애들이 공부할 안 할 뿐이지.		
긍정적권위체계의 경험	학교가 보호체계가 됨	역락	재학이 법적 조치를 안 받게 함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선에서 끝났요. 학교를 다니면 정계에서 끝났는데 학교를 안 다니면 법적으로 넘어가요
긍정적권위체계의 경험	학교가 보호체계가 됨	역락	학교중단과정			불행고우들이랑 놀다가 학교를 안 나오고 하는데, 학교를 안 나오고 하니가 애들끼리 이혼비 학교 안 나와서,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거예요. 애 학교 안 나오는데 애 무슨 무슨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도니까 그거에 너무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냥, 애들을 때리고 그러가지고 신고를 당했어요.

10. 2가지도 입력 후 '삭제'도 서명이 가능합니다.						
		환경적 조건에 의해 수치심을 경험	학교 부정적/개인특성	수치심의 경험	학교가기 창피해서 못가고	내가 친구를 누구를 사귀어야겠어요. 너무 애들이 잘 노는 애들이랑 함께고 이쪽은 너무 또 까이니까 같이 까막 그림 이제 정해야 할 때 막막. 아 사실들 알고 이쪽에 몰려버린 거죠. ;
가치감 저하		환경적 조건에 의해 수치심을 경험	가정환경/개인특성	동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창피하죠 이런 거 얘기해주는 애도 없고 저만 그런 애지도 모르겠고 동정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 사실 저는 얼마 아버지가 이혼했다 친구 나는 그렇게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나는 안 막히 이해도 안 가고 되게 불행하고 그런데! 잘난 척 하기도 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칼부는 게 있었거든요. 애들이 거의 몰라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조건적인 기준을 설정	낮은 자기가치감의 형성	학교 부정적/개인특성	존재에 대한 부정		나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살기가 싫고 할아버지하고도 자주 싸우고 아빠는 내 말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악플 먹은 적이 있었어요.	
		환경적 조건에 의해 수치심을 경험	가정환경/개인특성	자신의 가치에 대해 조건적인 기준을 설정/수치심	창피하죠 이런 거 얘기해주는 애도 없고 저만 그런 애지도 모르겠고 동정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 친구 나는 그렇게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나는 안 그런데! 잘난 척 하기도 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애들이 거의 몰라요.	개념이 무게도 있고, 개념들이 좀 높은 게 그렇게 갈랐던 애들이 있음 애들이 있는데 그 우리에서 나온다는 같은 취급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는.
부정적 정서의 누적	부정적 정서	개인특성	외로움		이제 얼마, 아빠가 되게 아플 때 이혼하셨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막 크게 제가 비행을 저지르는데 그런 이유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좀 외로웠다고 해야되나? 집안 사정이 좀 안 좋단 보니까 같이 공강대가 형성되는 친구들	

·신체적 둔화’, ‘비행또래 형성’, ‘낮은 자기가치감에 대한 보상행동’, ‘폭력을 합리화하기’, ‘부정적 정서의 억압’, ‘부정적 정서의 행동화’, ‘회피적 대처’, ‘애정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상호의존적이 됨’, ‘권력의 유지’, ‘치유의 시간이 됨’, ‘힘에 희생당함’, ‘힘을 행사함’, ‘비행또래 중 하위’, ‘비행친구와의 유대 유지’, ‘긍정적 정서경험’, ‘회피적 대처로 사건이 확대됨’, ‘육구충족’, ‘온정성

이 유지됨’,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음’, ‘자긍심이 남아있음’으로 범주화가 되어 총 50개의 범주가 생성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들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비행 종류에 따른 발생 전후의 인지, 정서, 행동, 신체적 반응 들은 추가로 제시하였다).

(2) 원천개념의 범주화

① 가정의 해체

: 이혼가정, 조손가정, 복합가정

연구 참여자들은 20명 중 17명이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였으며, 한부모 가정 이거나 조손가정, 혹은 복합가정의 형태였다. 또한 모가 연구 참여자의 유아기에 가출을 하였거나, 한쪽 부모가 부정, 혹은 외도, 경제적 손실을 안기고 떠났다고 회상되었다.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이혼(A)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B)

아빠 혼자 키우니까, 세 명 이잖아요. 첫째랑 둘째는 막 옷 사달라고 조르지, 동생은 막, 기죽어 있지, 맨날 누나들 때문에(C)

올 엄마가 올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다 스무살 이상인데 (D)

엄마가 제천에서 저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주고, 말기고 인천을 가셨는데 저도 여섯 살 되서 따라 갔어요/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인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어요(E)

엄마는 저 태어나고, 저희 엄마가 저 열아홉살 때 낳았거든요. 그래갖고, 하고 막, 몸조리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그리고 저 막 초등학교 때 몇 번 본 적 있는데. 그냥 그때부터 할머니가 저 데리고 키운거예요/고모랑 아빠랑 할머니랑 있었는데, 그때. 지금은 제가 새엄마랑 살고 있나, 같이(G)

새엄마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아빠랑 고모랑 있었거든요. 새아버지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엄마랑 .오빠는,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근데 아빠 쪽, 새아빠 쪽에 자식 두명 있고 저희엄마 쪽에 저랑 오빠랑 자식 또 두명 있고. 새 아빠랑 엄마랑 낳아가지고 동생 있어요(H)

할머니랑 할머니의 친오빠요. 아빠한테는 삼촌. 그런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같이, 아빠는 따로 살아요(I)

엄마랑 살다가 엄마 허락 받고 남자친구랑 살고 있었어요(J)

우리엄마가새엄마예요.친엄마는내가일곱살때나가셨어요(K)

아빠랑 둘이(L)

친엄마, 이혼했어요. 저 두살 때(M)

당시에 할머니 엄마 동생 저(N)

한 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두 살때 친아빠랑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여덟살 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엄마가 두 살때 이혼해가지고 지금은 새아빠예요(O)

친아버지는 저 한 살때 이혼하셨고 새아버지는 저 어릴 때 그냥 바로 재혼하셔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때 이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P)

제가 첫째고요. 제가 아빠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만났잖아요. 처음에 저희 엄마를 만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엄마를 만났잖아요. 하나를 낳았는데 이혼을 했어요. 지금 이제 중2짜리 동생이 있어요. 이제 중2짜리 동생이, 개가 제 친동생이긴 하지만 엄마가 다른 동생(Q)

엄마랑 여동생 두 명이랑 살아요(R)

② 불리한 사회문화적 조건

:경제수준이 낮음, 비행이 있는 가족이 있음, 박탈감을 경험, 꿈을 잃음,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 욕구불만을 경험

꿈을 잃음

저한테는 이제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제 곁에 아무도 없으니까 태권도라는 꿈도 싸악 사라지고 원래. 가망 없다는 생각으로. 태권도도 포기했어요, 근데.(N)

근데 스무 살 되고 나니까 하고 싶었던 게 다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애들이랑 막 술 먹고.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했던 말이에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술 먹고 다녔단 말이에요.(Q)

그래서 아빠가 들어갔다 왔어요, 억울하게. 그래서 저는 또 엄마랑 셋이 살았어요, 또 동생이랑. 그때 아빠가 막 와가지고 이제 막 잘 살려고 동생 하나 더 낳고 살고 있는데 아빠가 간 거예요.(R)

욕구불만(을 경험)

미치죠. 너무 화가 나죠. 화를 어따 풀어야 할 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운동 내가 복싱을 진짜 배우고 싶거든요. 근데 올엄마아빠 안 시켜줘요. 진짜 그런 것도 너무...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못 배우면서 자라야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집에 있기 싫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걸로 스트레스 풀고 나는 항상 약물, 술 담배 그런 거에 되게 의지를 했던 말이에요. 화 나면 무조건.(D)

말만 못하는 건데 그게 있어서 엄마가 많이 동생을 챙기다보니까 저는 그게 싫었죠, 솔직히 제 딴에서는. 신경을 제가 안 썼어요, 동생 챙기는 걸. 근데 솔직히 저도 엄마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딸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엄마랑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빠 랑만 이렇게 하고 아빠가 나 속옷도 사주고 그러니까./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출팸 애들이랑 넷상에서 만난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게 된 거예요.(N)

솔직히 운동할 때도 제대로 놀거나 그런 거 못 하니까 애들이랑 어울려 보고 그런 걸 못하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이랑도 못 어울려 보고.(Q)

③ 불량한 주변환경

:개인적 공간이 없음, 열악한 주변 환경

저희 집이 일하는 사람이 아빠, 삼촌, 할아버지 밖에 없는데 할아버진 농사일 하셔서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철마다 하는거고 큰 삼촌은 막노동 하고 아빠는 그 때 어디 사업해서 회사에서 일 같은 무슨 직업?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끝나서 집에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갔거든요(A)

동생은 보육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개가 외박을 나오잖아요. 설날이나 생일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외박을 나와요. 아빠가 외박하고 싶다, 개가 외박하고 싶다 하면 해줘요 거기서. 그래서 와가지고 아빠랑 우리랑 같이 있는데 그 때는 안 때리고, 동생 없고 가면 우리끼리 맞죠. 잘못 한 거.(C)

거기다가 이렇게 집안에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집이 너무 좁아서. 그리고 방도 없었어요, 제 방.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방을, 거실을 쓰고 유일하게 방이 있는 게 작은 방이었는데 작은 방은 할아버지가 쓰고, 해가지고 집에 있기도 싫고(I)

저 심터 살았죠. 저 중학교2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는데(Q)

④ 외상적 사건 경험

: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 심각한 가정폭력, 가정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 가족이 보호해주지 않음, 가족 구성원의 상실, 친구의 죽음, 성적학대, 가족의 부정을 알게 됨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됨

엄마, 아빠는 얼굴만 보면 싸워요. 서로 얼굴만 보고 있으면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몸싸움으로 시작해서 애기 때부터 엄마, 아빠 맨날 싸워가지고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고 거기서 막 주는 거 먹고(D)

인천 가서 둘이 맞벌이하고 싸우고(E)

싸우는 게 계속, 그걸 자라면서 계속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점점 제가 크면서, 싸우는 게 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저한테 까지 오는 거예요(F)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제가 맨날 목격 했어요, 그걸. 그걸 보고 제 성격이랑 행동들이 점점 변화되는 것 같아요(J)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가 계속 아빠한테 맞았었던 거 계속 기억나고 아빠가.. 엄마가 말해 주시는데 옛날에 저랑 오빠랑 가졌을 때 바람을 엄마 친구 분이랑 피셨는데 그거 잡으러 갔었는데 엄마를 그냥 발로 찼대요, 임신한 상태에서... 오빠를 낳고 저가 못 태어날 뻔 했어요. 저까지 태어나면 엄마 위험하다고 해서 아빠가 이 딸을 죽이자고 이런 말까지 했는데 엄마가 날 아주셔서 이렇게 됐고 .밥술 갖다가 엄마 머리 때리셔서 엄마 머리 피도...딱 방으로 들어갈 때 유리조각 박혀서 병원도 갔었고 엄마 밀어 가지고 모서리에 머리 박히셔서 병원 갔었고(T)

심각한 가정폭력

아빠 정말 허리띠로 목을 조르고, 엄마가 아빠를, 아빠는 엄마를 죽이겠다고 목 조르고 때리고 막 그러고 엄마가 덩치가 좋단 말이에요. 둘이 싸우면 막상막하인거죠. 아빠는 덩치가 조그만데 힘이 세다 말이에요. 우리 아빠도 과거에 막...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감방도 갔다 오고(D)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됐을 때 언니가 아빠한테 맞았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엉덩이를 너무 세게 때렸나 봐요, 막 기절을, 엄청 엉엉 울던 애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더라고, 방에 있었는데. 그래서 말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엄청 울던 애가 갑자기 확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왔는데, 애가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이려고 누워 있더라고. 아빠는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애 재우잖아, 이랬나? 그래가지고 그때 놀라가지고 엄마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빠를 싫어하는 것도 그때부터인 것 같고(F)

아빠가 엄마 목을 조르는, 조르는 장면을 목격했어요(J)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술을 마시고 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빠한테, 아빠한테 말실수를 했다던
가 그러면 좀 아빠가 화기, 돌아가지고 때리시고 그러세요./새엄마-초3까지는 괜찮았어요. 초4때
부터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때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때리니까. 리모컨
으로도 계속 때렸어요(K)

심하게 혼났던 적은 많은데 유독 크게 혼난 적이. 아빠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한번은 머리가
찢어졌었고 한번은 얼굴 반쪽형태를 다 잃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굴을 매를 들려고 한
게 아니라 종아리, 팔 그런데 들라하다가 제가 피하다가 얼굴을 맞았었어요. 얼굴을 맞아가지고
눈을 뜨지 못했고 피가 다 터져가지고 빨간색, 코 형태도 다 잃었었어요. 코 이게 있잖아요. 콧
대가 없었었어요(L)

친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칼 들고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
고 그 고모가 이제 보지 말라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해서 강아지랑 방에 들어가 있고(O)

엄마가 맨날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이래갖고 저 힘든 거예요, 어린 마음에(P)

할머니 할아버지 때리는 것도 많이 봤고요, 창문 깨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를
때려서 그러는 것도 그렇고, 진짜 칼로 할머니 죽이라고 할머니가 확, 이게 사람이면 이렇게 하
고 베개가 여기 있었던 말이에요. 갑자기 이거 확 찢어져서 할머니 찌르는 줄 알고 저 놀래서
(Q)

한번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근데 엄마가 막 더 때려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막 멍들고 피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우리 집에 엄청 큰 액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씹싱카 있잖아요, 그거를 던져 가지고 다 깨지고 아빠가 지갑에 있던 돈 막 뿌린 다음
에 이거 다 니 가지고, 가지, 가지고 가라고 막 그랬는데 막 그럴 때 저랑 제 동생이 아빠한테
진짜 그만하라고 무릎 꿇으면서 빌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아빠를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S)

아빠가 술, 아빠가 옛날에 술 드시면 물불 안 가려서 저한테 시비를 많이 붙였어요. 막 제가 막
욕하고 제가 시비 붙으면 그거를 딱 잡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리시고(T)

가정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

5분에 한 번씩 싸워가지고. 우리 밥 먹을 때도 갑자기, 소풍가는 날 갑자기 언니가, 뭣 때문에 싸웠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하도 옛날이라서. 된장찌개를 먹다가 된장찌개, 그 뜨거운 거를 들고 던진 거예요, 저한테. 얼굴 화상 입은 거예요. 화상도 그냥 막 빨개진 거? 빨개진 거. 엄마가 놀래 가지고 어머어머 이러면서 화장실 갔는데 이거 뜨거운 것도 모르고 내가, 엄청 울었잖아요. 근데 언니가 밥을 또 던진 거예요. 뭣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란후라이 찢어가지고 언니한테 던지고, 그래서 둘다 소풍을 못 갔었어요(C)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울 때 항상 무서워요. (어 무서워?) 네. 보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항상 무서워요. 누구 한 명이 죽을까 봐 무섭고(D)

가끔은 엄마가, 아니 아빠가 아무 말 안 해도 엄마가 계속 아빠한테 탁탁 싸요, 말로. 아유 저 새끼, 아유 미친 놈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저 새끼가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그래서 아빠는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서 막 그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엄마가 밖에서 진짜로 막 남자들을 만날 때도 있고 아빠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F)

가족이 보호해주지 않음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말을 똑바로 못 하는 것도 그렇고 보통 제정신이면 약을 그렇게 쳐먹었겠냐고 그러더라고요.(A)

솔직히 외할머니는 손녀, 손자 딸 보다는 자기, 진짜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훨씬 더 귀하잖아요. 저희도 보기 싫었나 봐요. 이게, 우리 때문에 이제 엄마가 못 가고 계속, 우리 때문에 계속 있으니까,(C)

나는 경찰서를 밥 먹듯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게 없단 말이에요.(D)

술을 먹으면 그니까 술을 먹을 때마다 저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말했는데, 그게 두 번째였었는데 ...다시는 내가 안 그런다고 그러다가. 근데 또 그 뒤로 또 그랬었는데 엄마가 또 참고. 애들이 어리잖아요, 동생들이. 그래서 이혼 안하고 계속 참고 살다가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O)

아빠한테 가고 싶었는데 아빠는 또 그렇게 폭력이 심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도망도 다니고. 처음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집을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인 거예요.(Q)

그때가 처음이, 처음 아빠가 엄마를 때렸거든요, 그때. 그때 그래서/진짜 놀라고 충격적이었고 좀, 잊혀지지 않아요.(S)

가족 구성원의 상실

이혼을...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줄 모르셨나 봐요. 근데 저는 엄청난 충격...엄마랑 연락을 못하게 하시는데,,,아버지한테 너무 배신감도 느끼고 엄마한테 배신감도 느끼고 너무 충격..(B)

그런데 오빠 시설 6학년 때 갔고요. 그 다음에 아빠는, 아빠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돌아가실 때 저한테 편지 하나 주고 돌아가셨어요. 주머니에다가 저 주려고 20만원, 지갑에다, 지갑, 20만원이랑 편지 한 통 주고, 네. 저 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가려고 했는데 네, 피가 탁해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H)

그냥 회사 갔다 온다고, 저랑 동생한테는 회사 갔다 온다고 하고서는 갑자기 엄마가 데리러오더니 아빠가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뭘 개소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카톡을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애들하고 엄마하고 잘 부탁한다고 미안하다고. 그 다음부터 전화번호 바꾸고 연락이 안 됐어요(N)

내가 너 엄마라고 이제 엄마랑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저희 친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 뉘, 누구냐고 이 사람. 할머니가 우리 엄마 죽었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희 엄마라고 따라 가라고 그래서 차타고 오니까 시흥시였어요(O)

아빠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엄마가 집착이 좀 더 심해졌어요(R)

근데 중학교 때 친구가, 한 명이 가족여행 가다가 죽었어요...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희가 항상, 개 없어지고 나서 진짜 비행 엄청 심해졌어요...네. 애들이 막 이상해지고 친구 한 명이 진짜, 개 막 이상해져가지고 정신과도 갔다 오고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H)

성적학대

아빠가 좀 차별도 많이 하고 자기 친아들이랑 아무래도 전 새, 새 딸이잖아요.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니까 엄마가 간호사, 맨날 나이트 하느라 맨날 밤에 나가고 아침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간호사 일을 했어서. 그럴 때마다 차별하고 막. 아빠한테 되게 성추행도 많이 당했었던 말이에요.(O)

⑤ 정서적 학대

: 방임, 유기경험, 정서적 학대,

유기경험

동생이 두 명, 두 살 어린 동생, 여덟 살 어린 동생, 막넛동생이 돌도 지나기 전 엄마가 집을 나가, 아빠 할아버지 삼촌이랑 살았음. 큰 삼촌은 막노동(A)

우리 때문에 참았겠조, 자식들 있으니까. 자식들 때문에, 자꾸 자식들 계속, 있으니까, 우리들 보면서 참으신 것 같은데 엄마도. 참다 참다 못해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끊겼다가 연락이 됐다 끊겼다가 됐다를 반복 했었는데 요번년도 1월달에 또 끊겼어요(C)

엄마가 제천에서 저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주고, 말기고 인천을 가셨는데 저도 다, 여섯 살 되서 따라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인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어요(E)

엄마는 저 태어나고, 저희 엄마가 저 열아홉 살 때 낳거든요. 그래갖고, 하고 막, 몸조리도 안하고 그냥 갔대요. 그러고 저 막 초등학교 때 몇 번 본 적 있는데. 그냥 그때부터 할머니가 저 데리고 키운 거예요(G)

엄마는 저 돌 때 도망갔대요(I)

잘 살았는데 엄마가 나갔는데 전 재산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난해졌어요(K)

아빠 랑만 살다가 그때 어디지?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잠시(M)

아빠가 저 중학교 2학년, 1학, 2학, 1학년 때 집을 나가셨어요(N)

어렸을 때 엄마가 저를 잠깐 두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사채를 써서 우리를 시골에 두고서 갔는데 아빠가 도망을 갔는데 아빠 오라고, 근데 저는 그 시골에서 제가 다섯 살 때 동생 두 살 때 동생 기저귀 갈아입히면서 키운 거예요(R)

정서적 학대

친할머니네 갔다가 고모네 갔다가 많이 했죠. 엄마랑 싸워서(C)

한번은 좀 늦게 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열쇠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왜 문 안 열어 주냐고. 집에 사람이 있는데 나 열어주기 싫어서 안 열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아휴 무슨 내가 다 큰 어른도 아니고 집에 혼자 냅두고 맨날. 그냥. 그래서 나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저녁? 아니면 아침에? 아침에도 거의 아빠 빨리 나가서 보이지도 않아요(F)

할머니가 맨날 꿀 팔러 다니고 그랬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늦게 들어와서 농, 장농 같은데 버려진 장농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맨날, 추워가지고 들어가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나요. (O)

⑥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수준이 심각함

신체적 학대

볼 시간이 없음.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아빠한테 뺨을 한대 맞았는데 쌍코피가 난 적 있음. . 근데 저도 제가 잘못된 걸 알잖아요.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그럼 어차피 혼날걸 아니까 안 마주치고 조용히 지나갈라고, 맞기 싫어서, 처음엔 말로 했는데 제가 안 들으니까요. 맞는 순간에는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온 몸이 멍이 들어서 걸어 다니기 힘들어-며칠 동안 학교 안가고 방에서 울기만 해-내가 왜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지-안대 쓰고 학교 가서 집에 안 들어가-(A)

아빠한테 많이 맞고 살았어요. 목검이랑 그런 걸로, 야구빠따로.(C)

제가 한 이만 했을 때? 이만 했을 때. 파리채 있죠? 파리채 손잡일 엉덩이랑 등을 세게 때렸거든요. 맨 처음에 엉덩이를 때렸다가 제가 너무 아파서 진짜, 완전 뒤에서 살인마가 쫓아오는지 뛰어나갔는데 등짝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놀라서. 근데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등에 뭘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이랬더니, 엉덩이에 피 쏠린 것 봐, 피 막 물렸다고 하는 거예요(F)

맨 처음에 제가 친구네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네 엄마가 와가지고 너가 훔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난리가 나고 저를 막. 처음이었어요, 할머니한테 태어나서 그렇게 맞은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엄청 심하게 맞았던 말이에요. 그리고 내복 입은 상태에서 머리꼬덩이 지지지직 끌리면서 길에, 친구네 집까지 가가지고 신발장에서 무릎 꿇고,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I)

초 3까지는 괜찮았어요. 초 4 때부터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때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때리니까.(K)

심하게 혼났던 적은 많은데 유독 크게 혼난 적이. 아빠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머리가 찢어졌었고 한 번은 얼굴 반쪽 형태를 다 잃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굴을 매를 들려고 한 게 아니라 종아리, 팔 그런데 들라 하다가 제가 피하다가 얼굴을 맞았었어요. 얼굴을 맞아가지고 눈을 뜨지 못했고 피가 다 터져가지고 빨간색, 코 형태도 다 잃었었어요. 코 이게 있잖아요. 콧대가 없었었어요(L)

여기 행거, 여기 망치, 여기 그 올리는 거. 그리고 저 여기 맨 처음에 이빨이 이러지 않았는데 아빠한테 하도 맞다보니까. 그, TV에다가 머리 이렇게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세게 때리는데 귀에서, 저 봐요 여기 귀도 고막 터졌었고, 고막 터져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저희 들썩오빠가 그만 좀 가출하라고, 너 때문에 내가 맞잖아 어서고저써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오빠가 때렸단 말이에요. 다 나올 즈음에 다 여기 찢어지고 여기 눈알에 이렇게 망치 모르고 던졌어요(M)

저는 근데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그냥 뭐만 잘못하면 엄마한테 맞았어요. 그냥 그런 것도 보고 자란 것도 있어서 그냥 제가 애들, 그 애 때리면서 개한테 뭐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쪽팔려요. 내가 왜 그랬나.(N)

막 그때 되게 엄마가 때리는 게 심했어요. 막 때리고 머리 잡아 땡기고 머리 때리고. 어쩌면 그래서 머리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아, 너는 그런 집구석에서 또 가고 싶냐고 하면서. 너희 아빠는 빗더미가 산더미라고.(O)

가장 심하게 맞았던 때가 그때 전학을 갔을 때 집을 계속 나가니까 그 뭐라고 해야되지 못 거는데 쇠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도 맞아보고 파리채도 맞아봤고 옷걸이 부러질 때까지 맞아본 적도 있고. 다양했어요.(P)

선풍기로도 맞아봤고요,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거, 가위 던져서 막 그러기도 하고 칼로, 커터칼 있잖아요. 그냥 방에 있는 물건을 그냥 싹 다 던졌어요, 저한테 그냥. 그러다 싸대기도 맞고 발로 밟히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R)

가족들도 많이 때려서 몸을 볼 때마다 상처랑 흉터가 다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문? 그런 걸 아예 닫았어요.(T)

신체적 학대수준이 심각함

근데 친엄마가 친오빠랑 저를 옛날 때부터 오빠 세달 까지, 그 오빠한테 뭐 들었는데 옛날에 막 칼로 위협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고. 저도 옛날에 여기가 땀, 정수리 바로 위에 탈모가 있던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머리카락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여기 탈모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담배를 펴요. 담배하고 술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요. 술 집에서 일도 하고(M)

막 공부를 하다가 속이 터지면 연필로 내 다리를 막 찌고 그랬었어요. 엄마가 성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욱하고 화내고 예민하고 그랬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 때리고. 옛날에는 쇠파이프 같은 것 있죠. 그런 걸로 막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런 걸로 막 맞았었어요.(O)

엄마가 맨날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이래갖고 저 힘든 거예요, 어린 마음에.(P)

집에서 폭행이 심해서. 폭행이 심해서 이제, 고모가 못 보니까. 처음에 이제 너무 심각해서, 막 피 흘리면서 고모 집에 갔었던 말이에요.(Q)

가출 했을 때 잡아서 머리 깎기고 맞고 그런 것 밖에 없었어요.(T)

⑦ 언어적 학대

폰 뺏고 아빠가, 거기서. 그래서 언니가 막 도망가고 그랬대요. 근데 아빠는, 소리만,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만 하지, 폰 부수고 그러세요. 근데 그 다음날, 그 하루만 지나면 폰 다시 살리고, 사주고 그래요. 그래놓고 아빠 혼자 막 죄책감 들어서,(C)

다른 부모님들은 싸우다가 자식들이 죽겠다 그러면 그만두잖아요. 우리는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나가 죽으라고. ㅎㅎㅎ. 나가 죽어 이려고 안 말린다고. 제발 죽어 이러니까 할 말이,(D)

안 오면 진짜 너 10호감이라고 소년원 가고 싶냐고 또 어른 되서 교도소 가고 싶냐고 니네 엄마처럼 될 거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같게요, 하면서 아빠한테(M)

그리고 막 몸값도 못한 년, 막 물 값도 못한 년. 애네들을 몰티슈라 했어요, 몰티슈 값도 못한 년 막 이러면서 나가 뒤져라 이러면서 나가서 차에 깔려 뒤져라 이러면서. 막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O)

엄마가 좀 싸요. 한 번 같이 죽자고 커튼에 불 지르려고 한 적도 있어요. 가스밸브 열고.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나 그래서 앉아서 웃었죠.(R)

⑧ 부적절한 훈육태도

: 과도한 통제, 이해받지 못함, 부담감, 무관심,

방치됨

부모님이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뭘하든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A)

그 이전엔 엄마가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엄마랑 아빠가 지금 싸우시고 엄마가 나가고 나서,

자유, 아빠가 일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관 안 쓰겠지 하고 그런 마음에 가출 했었어요.(C)

지금이나 그때나 다름없는 건 거의 저랑 언니랑 집에 혼자 있어요. 아니면 어쩔 땐 제가 집에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F)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가족들도 다 할머니한테 다 신경 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막 나는 설 곳이 없다, 이런 걸 느끼면서(G)

그냥 엄마한테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맨날 엄마가 동생들만 예뻐하고 막 저한테는 그러니까 막, 머리도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한테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O)

⑨ 역기능적 가족관계

: 달래줄 사람이 없음

근데 가정상태에서 우울할 때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솔직히 말로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누가 달래줬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는. 다른 사람들이야, 자존심이 있어서 혼자 있고 싶어, 이러기는 하는데, 솔직히 달래줘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어른들도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아빠는 일하고 언니는 학교 가고 동생도 학교 가고. 전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잘 안 갔으니까. 그래서 혼자 막 있다가 그냥 같이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때 달래줄 사람도 없고 같이 있을 사람도 없고.(C)

친한 친구들한테는 말했죠. 나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럼 애들은 다 무시하고, 무시하라고, 원래 엄마들 다 그런다고 나도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개네들이 안 꺾어봐서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꺾어봐야 되는데(N)

그러면서 저한테는 지랄해요. 나는 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엄마들은 솔직히 자기 자식 편들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사고치고 그럴 때마다 편들어준 적이 없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무조건, 내가 누구랑 싸워도 그 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런 게 너무 싫어요.(R)

⑩ 학교에서 또래의 배척을 경험

: 왕따 경험, 배척당함

학교에서 애들이 너무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하고 이년은 안 될 년이라고 계속 그러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계속 이렇게 좀 공부 못한다고 혼내시고, 시험 볼 때 안 맞는다고 큰 몽둥이로 맞아서 피 터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학교에서는 00이가 사고를 쳐서 그만뒀다고 한 거예요(T)

⑪ 학교가 보호체계가 됨(긍정적, 부정적)

: 학교의 배려로 학교를 유지하게 됨, 재학이 법적 조치를 안 받게 함, 학교중단과정, 학교유지를 원함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 쪽에서 조금 학생들을 많이 배려하는 편이에요. 문제아들이 많이 가는 학교기도 하고 좀 사고 많이 치는 애들이 성적인 안돼서 들어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학교 자체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많고 나쁘지 않아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할 뿐이지(A)

엄마가 안 오시고 저희 학교 천주교하고 상담선생님하고 어떤 선생님, 남자선생님이 오셨대요(N)

맨날 학교 오라고 학교 오라고 그래서 간 것도 있었고...아, 선생님이 학교 오라고도 하고 나도 내 친구들 보러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한번 갔다가 1교시 끝나고 갔다가...학교가고 싶을 때는 그 노란 머리로 학교 가죠. 별로 반겨주지는 않는데...담임선생님은 좋아라 하시죠/지금 재학 중인데, 출석처리가 다 되는(O)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선에서 끝내요. 학교를 다니면 징계에서 끝내는데 학교를 안 다니면 법적으로 넘어가요(C)

폭행을 했는데요. 그 폭행이 학교에서만 열리고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없는데, 이거 특수절도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한 건으로(K)

학교 지금 재학 중인데..(N)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00여자공업고등학교(S)

불량교우들이랑 놀다가 학교를 안 나오고 하는데, 학교를 안 나오고 하니깐 애들끼리 00이 학교 안 나와서,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거예요. 애 학교 안 나오는데 애 무슨 무슨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거에 너무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냥 애들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당했어요(C)

학교를 계속 안 나오고 그 나오는 숫자, 안 나오는 결석 숫자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대안학교 갔다 왔는데 제가 몰래 빠져나왔어요. 이탈해가지고 제가 잘렸어요. 유예 당했어요(K)

전학을 가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를 부모님들이 다 싫어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어린 마음에 남자친구를 보고 싶으니까 막 집나가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하도 집을 많이 나가니까 너 학교 다니지 말라고(P)

이번 년도에 퇴학당했어요(R)

⑫ 낙인 효과

: 편견어린 시선을 경험

선생님들 시선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 시선 때문에, 엄마아빠가 날 깔봐서? 이런 거? 이런 이유예요./ 그래 니가 그렇지 뭐 니 주먹 쓰는 것 밖에 할 것 없지 하나도 할 수 있는 것 없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깔보신단 말이에요(B)

왜냐면 너가 그전부터 애들을 얼마나 괴롭혀 왔으면 애 네가 너한테 대들지도 않고 그랬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찰이 추궁하고. 경찰조사 받고 있는데 그때 어떤 애들 또 때려,그때 또 사고를 쳤어요, 조사받는 과정에. 그래서 형사한테 머리채 잡히고 물병으로 싸대기 맞았었어요(C)

⑬ 법체계 경험

: 공권력에 대한 실망, 가족에 대한 긍정적 기억, 부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임, 부의 상황에 대한 이해

피해자 말도 들으면 안 되고, 피해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가해자랑 아는 사이인데. 제대로 잘 못 얘기해요. 솔직히 나가서 보복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 나 같아도 안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경찰들은 법이 이러니까 그 상태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청소년법도 제3자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 말도 안 듣고 그냥 피해자 말만 듣고, 아, 그래? 그럼 별로 잘 못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서를 쓰고 내니까.(C)

정작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면은 대충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부터 경찰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 보면 그냥 막 내가 찢려서, 내가 죄책감에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싫어서, 만약 경찰이 저 반대편에 서있으면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딴 데로 가버려요. 그 정도로 경찰이 너무 싫었어요(F)

신고를 했더니 들어서 제가 같이 훔치자고 했다고, 애도 훔치자고 했다 해가지고 공범으로 가가지고 조사 받고 특수절도 공범으로 그것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N)

경찰아저씨가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그래서 안 미쳤는데? 내가 이러면서 뭐라 했죠, 경찰아저씨한테. 근데 제 친구가 그걸 들었나 봐요. 듣고 나와 가지고 아, 회원아 그냥 집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O)

그래가지고 그 경찰들도, 그 여자를 풀어준 경찰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Q)

⑭ 가족에 대한 긍정적 평가

: 가족에 대한 긍정적 기억, 부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임, 부의 상황에 대한 이해

가족에 대한 긍정적 기억

아빠도 잘 몰랐던 얘기고 이제 아빠가 그 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A)

근데 나중에서야, 올해 초에 엄마한테 들은 건데, 2년, 이혼하시기 2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오셨다고. 전혀 몰랐어요. 상처받을까봐. 2년 동안 참고 제가 원래 중학교 올라갈 때 하려고 하셨대요, 이혼을. 2년만 더 참자, 2년만 더 참자, 했는데(B)

막 아빠가 엄마한테 맞았어요. 아빠는 이제 아빠는 좀 다 참아주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에요. 남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다 참아줬어요. 계속 맞아주고, 엄마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랬었(C)

따로 사는데 아빠는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진짜 남부럽지 않게 항상 치킨 사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아빠네 집에서 놀면 막 아빠는 술 담배 하는 것 뭐라 안하고 되게 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냥 아빠랑 같이 PC방 가고 그랬던 것 밖에 없는데. (H)

집에 잡혀 들어갈 때. 할머니가 좋게, 너 진짜 이제, 할머니도 막 제가 원하는 거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나도 이제 정말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은, 정말 다짐은 백 번 넘게 한 것 같아요.(I)

집도 안 가고 계속 친구랑 같이 있다가 친구 집에서 막 자고 학교 가고 막 그러다가. 아빠가, 뭐지? 서로,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아빠도, 그때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화해했어요.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하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진짜 잘 지내요.(K)

6학년 때 확 접어든 것 같아요, 사춘기가. 깊게 접어들었다고 해야하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저보고 사춘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되게 짜증도 많이 나고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답답하고. 근데 아빠는 그게 있어요. 저한테만, 제가 휴대폰을요, 잃어버리면 아빠가 바꿔주고 메이크업 이런 것도 다 사주고 제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줬어요, 아빠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빠를 믿고 좀 이렇게 따르는 게 있어요. 엄마는 개 안 된다고 하는데 애 버릇 나빠진다고 이런 거 사주지 말라고, 있는데 뭐 하러 사주냐고 그러는데. 아니 뭐 어떡냐고 재가 그러면 아빠는 덩달아 화를 내요, 똑같이 화를 내고 뒤에서는 좀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N)

근데 또 그 뒤로 또 그랬었는데 엄마가 또 참고. 애들이 어리잖아요, 동생들이. 그래서 이혼 안 하고 계속 참고 살다가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O)

근데 지금은 아빠도 이제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제가 소중한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 없었

어요. 세상에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 없었어요./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Q)

만약에 퇴소 날에 혼자 퇴소를 하게 된다면 돈을 찾아서 바로 친척오빠한테 갈 것 같아요. 가족 보다 친척오빠를 더 아껴요, 제가.(T)

부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임

아빠가 많이 봐주시다가 한 번에 몰아서 뭐라고 하시고, 아빠가 싫진 않았거든요(A)

내가 지금 엄마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고 얼마나 상처가 될 걸 알기 때문에 동생은 못하게 했어요.(B)

아빠는 그래도 곳곳이 계속 돈을 벌면서 보육원에 맡기면서도 맨날 면회 오고 그러는데. 우리 들 보겠다고 그러고 오고 그러시는데, 몰래 용돈도 넣어주고 그러시는데.(C)

그래서 아빠가 항상 오빠 돌보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맨날 맛있는 것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빠는 오빠가 제일, 아빠는 오빠 싫어했어요. 항상 눈치보고 밥 안 먹고 아빠 오는 것 무서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되니까 아빠는 싫은 거예요.(H)

그래도 안 좋은 거 배워도 그냥 잘, 아빠 있을 때는 잘해주셨으니까 아빠 있는 게 좋죠.(J)

화목, 그냥 누가 봐도 부럽, 좀 가정환경은 별로 안 좋은데 좀 노는 거 같이? 막 노는 거나 같이 있는 거 보면 화목하대요. 그래서 내 친구가 맨날 부러워해요. 친구도 이전부터. 오빠도 그렇게 엄마도 나 이제 안 때려요. 그 이후로부터 안 때려요. 그래서 엄마가 더 잘 해주는 거예요. 장난으로 때리는 거 빼고.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 근데 엄마 이렇게 화내면서 정색 빨고 때리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K)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니까 아빠는 평소엔 되게 착한데 화날 땐 진짜 무서워요. 화날 땐 진짜 따끔하게 혼내고 잘 하는 건 진짜 칭찬 많이 해주고.(L)

싫어도 솔직히 아빠잖아요/내가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죽이기 전 까지는 내가 절대 아빠를 못

보낸다.(R)

부의 상황에 대한 이해

아빠 혼자 키우니까, 세 명이잖아요. 첫 째랑 둘째는 막 옷 사달라고 조르지, 동생은 막, 기죽어 있지, 맨날 누나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빠가 힘드니까. 거기 시설도 좋고 용돈도 많이 주고 거기서는. 옷도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자유로우니까. 바로 그냥 그걸 알아보고, 한 그거 1년 동안 알아보고 보내신 것 같아요.(C)

그 지갑에 편지 있잖아요. 형사가 저한테 줬어요. 야, 너 이거 읽어보라고. 읽어봤는데 아빠는 오빠 싫어하지 않았다고. 미워하지도 않았다고. 그냥 너가 오빠 이렇게 잘 돌봐주는 모습 좋았는데, 막 뭐라 해야 되지? 저보고 오빠 잘 부탁한다고 아빠는 오빠 미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했어요. 저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저는, 아 저희가 보기에선 아빠가 미워 보이는데 아빠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H)

옛날에도 지나가는데 5만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스 정류장 쪽에 5만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들고, 들고 갔죠. 그랬더니 안 찾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 가서 아빠 보고, 그때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없어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기도를 했어요, 돈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돈을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바쳤어요.(K)

⑮ 적응적 학교생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창, 되게 범생이였거든요. 되게 공부만 하던 애였는데(B)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2학기 때까지는 되게 잘 갔거든요? 6학년 1학기 때부터 안 갔어요. 귀찮아서...성적 유지도 잘되고, 운동도 했었어요... 하키선수. 하키선수 부주장이었어요...공부 평균 90 몇 점이었어요. 맨날.(C)

일단 어리광이 많았어요. 어리광이 많고 털털했어요. 근데 애교도 많았구. 그냥 엄청 순진했어요. 그냥 뭐라 하면은...저 한 4학년? 정도. 그러다 5학년 때 성적 점점 떨어져서 6학년 때는 원

지도 모르겠고.. 공부 좀 잘했었어요...어려웠다 말이에요. 점점 어려워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에 가면 이제 공부할 환경이 아니고. 도서관을 가기에는 내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볼 사람이 없고. 친구랑 하기엔 친구는 학원가고. 이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D)
공부 잘했어요. 막 시험도 잘보고 그랬는데(F)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막 못 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학교생활은 잘 했어요.(G)

애들 막 괴롭힐 틈도 없고 그냥. 개네들이, 재네 저거 하나보지 이러면서. 건드리진 않았어요(H)

왜냐면 한국 온지 얼마 안 되서 이렇게 별로, 한국의 문화를 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진짜 완전 순진하게 놀았어요, 집에서. 강아지 데리고 할머니 기다리고 학교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진짜 집에 바로 들어오고 그렇게 순진하게 살다가(I)

그전에는 학교생활 잘, 학교도 되게 잘 다녔어요.(J)

그 이전까지는 그냥 평범했죠. 그냥 학교 다니고 집 왔다 갔다 하고(K)

공부는 보통이었어요. 보통이었다가 범행 저지르고 그러다가 떨어졌죠(L)

그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공부, 원만하게 공부만 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냥 재 딱 보면 모범생이네,(N)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진짜 조용히 살았어요. 그냥 막, 담배나 그런 거 호기심으로 잠깐 피운 거지 그 뒤로부터는 착하게 살다, 진짜 착했어요. 엄마 말도 잘 듣고.(O)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학교도 빠진 적도 솔직히 별로 없었고. 놀건 놀아도 집은 제 시간에 딱딱 들어가고 그랬었던 말이에요(P)

선생님들 다 좋아하는. 저 사고 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껏, 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친 적 한 번도 없는데. 중학교도 잘 나가고. 무단횡단 했던 거는 그거 뭐지?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Q)

성적 좋았어요(R)

⑩ 연령에 따른 또래 영향력

또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나이

어리면 좀 휩쓸리기 쉽죠.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토라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계속 비행을 저질렀던 거고(B)

그래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랑 다녔었던 것 같아요(C)

또래의 영향력이 적게 작용하는 나이

근데 이제 또 저 같은 나이는, 어, 친구들한테 휘말릴 나이는 아니에요. 제가 아니, 집에 갈 거야 그러면 그냥 뭐 친구들이 뭐 와 배신이다 이러면서 끌어들이진 않아요(B)

⑪ 순진성

: 사람을 좋아하고 상처를 잘 받음(사람을 쉽게 믿음), 타인에 대한 낙관적 태도

사람도 좀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을 잘 믿어 상처를 많이 받는 편, 좀 솔직해요. 나도 진심으로 얘기해줬으니까 재도 나를 믿고 얘기해주겠지, 의리가 좀 심해서 친구 한명이 힘들다고 새벽에 연락 오면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개 얘기 들어주기도 하고,(A)

저 진짜 말로 상처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니까. 체육시간에 제가, 안하고 그냥 땡땡이 쳤는데 애들이 막 뒤에서 욕을 한 거예요. 거기에 상처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은, 이제 손이 먼저 날아가서(C)

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대화(G)

잘 믿는 편인데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뒤틀수 많이 맞았어요(K)

⑱ 남성성⁴⁰⁾

: 활달함, 성취 지향적 성향, 장난스러움, 운동선수생활, 적극적

활달함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엄청 많이 친구들 데리고 집에 옴-오르락 내리락 하고 티비 켜서 밥 먹고 하는데-(A)

되게 잘 어울렸어요. 좀 논다는 애들이랑도, 제가 가 갖고 너무 이렇게 막 아양 떴게 아니라서. 원래 그냥 그 가운데 있는 애들은 다 그래요. 애네랑도 그냥 뭐 길가다가 인사할 정도로 친하고. 애네랑도 뭐 길가다 인사할 정도로 친하고. 딱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니까 막 그런 건 없었어요. 외향적 내향적, 거의 다 외향적이죠. 그 중간정도 있는 애들은. 중간에 끼이는 애들은 거의 다 외향적이예요. 이쪽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쪽이랑도 잘 어울리는 애들. 그런 외향적인 애들.(B)

볼랑교우들하고 어울리기 전에는 그냥 활발하고 되게 소심했거든(C)

4,5,6학년이면 되게 어리잖아요. 그 때 싸우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남자애들이랑 막 치고 박고 싸우는 걸 좋아했던 말이에요.(D)

엄청 사나웠어요, 진짜. 제가 원래, 진짜 바깥에 있을 때는 올 밤새웠는데 여기 와서 밤도 못 새니까(H)

제 성격 말하자면 활발한 거? 활발하고 웃음 많은 거? 그리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파요.(K)

저는 사고치진 않는데 놀기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유독 학교나 그런 데 보면 모여 가지고 노래방 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막 술 담배는 해도 사고치진 않고 물건을 훔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L)

40) 여기서의 '남성성'이라는 용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인 변수로 인성적 특징을 설명한 김준호(1995)의 연구에서 도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성(sex-role identity)'과 성역할에 대한 인지태도의 차원에서 다뤘으며, 차별적인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저 성격 밝았어요, 진짜. 진짜 애들이 보면 재 진짜 남자 같다고 그러면서 재랑, 저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애들이랑 막 운동하고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노래방 가고 막 그러면서 화장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이랑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애들이 저 활발한 성격을 되게 좋아했어요, 남자에들도 그렇고 여자에들도. 그래서 항상 반대표로 나가거나(N)

성취지향적 성향

끝까지 해요. 될 때까지. 좀 집념 그런 게 심했어요. 무조건 성공하고 봐야하는데(D)

좋고 싫은 게 좀 뚜렷하고 네, 그래요. 어중간한 게 없어요.(S)

운동선수생활

제가 운동했거든요. 열받아갖고, 라이터를 쥐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때려버린 거예요.(B)

하키선수. 하키선수 부주장이었어요.(C)

담배 피우고 그냥. 그냥 운동장에 가서 놀다가.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 개네들도 운동 좋아해서 항상 축구하고. 그리고 논 것 같은데. 쓸데없이, 진짜 할 것 없으면 PC방 가고 그랬어요.(H)

원래 태권도 국가대표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태권도 중학교라고 송탄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용인대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범단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꿈이 깨진 거죠, 그냥. 현실적으로.(N)

유도요.(Q)

적극적

물어보는 건데 계속 토를 단대요. 막 말대답 하고 말대꾸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왜 말대꾸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요. 이유를 알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F)

⑲ 온정성

: 배려심

내가 싫었으니까,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싫을 것 같으니까 그걸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C)

옛날에는 괜찮아 내가 주울 게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막 조금만 스쳐도 짜증내요.(F)

아빠가 걱정 하는 게 딱 보이니까. 그래서 좀,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M)

저는 그냥 남의 물건 건드리는 거 자체를 싫어했어요. 내 물건도 아닌데. 항상 뭐 쓰고 싶으면 나 이거 봐도 돼? 하고 물어봐요, 항상. 나 이거 써도 돼? 안 돼, 한 번만 이러면서. 그때 이제 ??3409 친구도 쓰라고 해요, 이제. 그럼 나 쓴다 이려고. 좀 친한 애들이야 쓰지 말래도 써요, 제가 고마워 고마워 이러면서 쓰면 아이씨 그냥 써 이러면. 별로 남의 걸 탐 내거나 혼나더라도 이제 없는 대로 살았다고 해야 하나?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고 살았죠.(Q)

⑳ 이타적 성향

: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함, 의협심

의협심

의리, 네, 오지랖이/딱히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내기도 하고 그래요.(B)

우리 오빠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오빠는 되게 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오빠는 내 언니 오빠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오빠가 누구한테 당하고 오면은 진짜 그거 못 참아요. 우리 오빠가 누구한테 지고 사는 건 못 참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또 개지랄을 하고 그럼 싸우고 막 장난 없단 말이에요.(D)

그래서 잘 해드려요. 누가 막 할머니 할아버지 때리거나 그런 거 보면 나는 무조건 끼어들어요. 그래서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오히려 뭐라고 해요.(K)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함

물어 봤었어요. 엄마가.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엄마한테 결혼하고 싶다는 아저씨가 있다고. 너는 엄마가 결혼하면 어떨 것 같냐고 먼저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아저씨가 엄마를 정말 잘 해주면 나는 그것도 좋다고 그랬었어요.(A)

근데 꼭 애들이 말을 걸잖아요. 말을 걸 때 어 그래? 하는데, 이상하게 상처 받을 걸 먼저 생각하고 말해요(C)

네. 상대방이 편하면 나도 편하니까.(K)

㉑ 독립적

원래 성격은 지금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전 제 성격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딱히 장점이랄 건 없는데 그냥 어울리기 좋아하는? 친구들과하고 어울릴 땐 어울리면서 혼자 놀 땐 혼자서도 잘 적응하는...(A)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애들은 거절을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거절을 쉽게 하고. 만약에 속으로는 내가 이걸 해주기 싫은데 재가 계속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거절 잘하고(F)

시비 걸진 않았는데 그냥. 아아, 이러면서 막 혼자, 막 혼자 욕하고 막.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제 방에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H)

밖에서는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었거든요. 혼자 있으면 그냥 혼자 있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있거나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요(K)

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해요.(M)

㉒ 호기심

: 호기심, 신기함

호기심

그 언니들 할 때마다 옆에 있고, 옆에서 하면 궁금하잖아요, 해보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D)

그냥 그 때는 그게 재밌었어요./범죄 같은 것도 재밌어 보였어요.(E)

제가 본드, 본드 약물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해서 어찌다가 호기심에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 골목으로 가면 뭐가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게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거기를 다 가봐요. 그래서 아니면 담을, 저기 담 넘으면 댄 데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넘어가서 봐요 무조건. 그리고 저는, 저는 예를 들어 여기 산 쪽에, 산이 있고 여기 또 무슨 돌이 담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반도로가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안가고 무조(F)

막 담배 피우기 시작하고 술 먹기 시작하고. 한참 이제 막 좀 신경질적으로 있었는데 한참. 근데 딱 그럴 시기에 이제 막 그런 것에 맛이 들려갔고 노는 게 좋아지고. 오호 재밌네? 이런 거?(G)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알아가지고 친구 한 명이 맨날 전학 가도 막, 애가 온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맨날 오면 또 친구 한 명이 집에 가서 담배라는 걸 가져와서, 야 이거 한 번, 이거 뭘지 알아? 이러면 저희 호기심 있잖아요. 이거 뭘지 알아? 이러면 몰라 이러면서 애들이 막, 친구 한 명이 알려주면 저희는 똑같이 따라하고/열렸으니까 막 이렇게 운전대 옆에 거기도 열어보고 여기 옆에 보면 지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털래요. 그래서 제가, 제가, 오빠가 차 안으로 밀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거기 다 뒤져보래요. 그래서 네? 네. 이러고 열심히 했는데 돈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H)

제 생일에 친구랑 만났어요. 집에 갔었는데 친구 아는 오빠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같이 나왔어요, 심심하고 하니까(I)

술 먹고 그러다보니까 막 호기심, 술 먹으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사고 치게 된 거예요/딱 보면 막, 훔치고 싶다 라는 호기심이 생겨서(J)

막 초등학교 때 솔직히 호기심 많잖아요. 화장, 화장 그런 거는 하는데 술 담배 그런 거는 하지 않았던. 진짜 순수하게 놀았어요, 우리가 한 번 범행을 저질러 볼까? 이랬어요. 이번엔 망을 보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게에 그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돈을 가져와볼까(L)

그때 호기심으로 한 번 오빠랑 막 친구들이랑 찢었는데 그때는 담배의 담자도 진짜 싫었어요. 한 번 피우고 나서, 그래서 6학년 때까지 안 피우다가 중1때부터 다시 피웠어요. 저는 남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하기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 나도 해볼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막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한 번 하게 됐는데 그게 한 번이 막 여러 번이 되고 그래서 계속 하다보니까 돈 생기고 (O)

노는 게 너무 재밌었고 막 좀 호기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좋았어요. 개네랑 놀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계속 즐겁기만 하고. 그랬어요(S)

신기함

그냥 그 때는 그게 재밌었어요./범죄 같은 것도 재밌어보였어요 (E)

5학년 되고 애들이 바뀌니까 애들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F)

막 여기랑 여기는 돈이 있는 곳이구나, 하다가 친구가 반대쪽 문도 열래요. 그래서 문 열어줬더니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봤는데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계속 다른 차 가서 막 연 다음에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H)

개랑 놀고 나가치고 애들 렌즈 낀 것도 보고 신기했고 저걸 어떻게 눈에 넣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애들이 화장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걸리면 안 혼나냐고, 이게 한국에서 당연하대요. 신기한 것도 많고.(I)

밖에서는 술 담배도 자유롭게 노는 것도 자유롭게 그랬던,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P)

막 다른 학교 애들 만나고 담배 피우고 술도 막 어떤 애가 집에서 갖고 온 술 같은 거 먹어보기도 하고. 막 새로운 것들을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어요.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그

런 것도 재밌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생일 되면 밀가루 같은 거 뿌리고 놀고 그런 것 때문에(S)

㉓ 부적절한 대처

: 유해한 물질로 스트레스를 해소함, 현실을 부정함, 혼자 놀기, 반대로 하기

힘든 마음으로 유해한 행동을 함/박탈감에 유해한 행동을 함/힘든 것을 잊기 위해 놀이에 집중함

불행하다기 보다 행복하지 않다는...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래도 본드 같은 건 안 했던 것 같아요.(A)

놀지 않았을 때는 뭔가 막, 자꾸 막 힘든 일을 생각하고, 생각나고 그래서 휴대폰을 만지면 욕 먹으니까 아빠한테 휴대폰 집어넣으라고, 방에 혼자 이려고 있으니까 자꾸 힘든 일이 생각나서 자꾸 노는 것 같아요.(C)

내가 잘못된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누굴 때리거나 그렇지 않고 본드를 하고 뭘 하고 나한테만 해로운 거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다 계속 이 생각했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느낀건데 그게 보편은 되게 큰 잘못이더라고요.(D)

㉔ 환경적 조건에 의해 수치심을 경험

: 수치심의 경험, 동정 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신의 가치에 대해 조건적인 기준을 설정, 자존심이 쉽게 상함

수치심의 경험

학교가기 챔피언해서 못가고(A)

내가 친구를 누구를 사귀어야겠어요. 근데 이쪽은 너무 애들이 잘 노는 애들이랑 쉽게 붙을 수가 없고 이쪽은 너무 또 까이니까 같이 까이기는 싫고 딱 그걸 이제 정해야 될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사실을 알고 이쪽에 붙어버린 거죠, 그냥.(B)

맨 처음에 제가 친구네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네 엄마가 와가지고 너가 훔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난리가 나고 저를 막. 처음이었어요, 할머니한테 태어나서 그렇게 맞은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엄청 심하게 맞았던 말이에요. 그리고 내복 입은 상태에서 머리고덩이 지지지직 끌리면서 길에, 친구네 집까지 가가지고 신발장에서 무릎 꿇고,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I)

애들이 맨날 너는 엄마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어요./제 동생들 앞에서 막 맞고.(O)

자신의 가치에 대해 조건적인 기준을 설정/수치심

챙피하죠. 이런 거 얘기해주는 애도 없고 저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동정심 받으려고 그러는 거 같구 나는 그렇게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나는 안 그런데! 잘난 척 하기도 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애들이 거의 몰라요.(A)

개네가 무게도 있고, 개네들이 좀 논다는 애들인데 제가 그렇게 깔봤던 애들이 있잖아요. 깔봤던 애들이 있는데 그 무리에서 나온다는 거는 개네랑 같은 취급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거예요.(B)

㉔ 낮은 자기가치감의 형성

: 자신을 드러낼 기회의 부족, 존재에 대한 부정

자신을 드러낼 기회의 부족

엄마 아버지 무서워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정말 평범한. 너무너무 평범한. 그런 애.(B)

자기소개한 적이 별로 없어서.(I)

존재에 대한 부정

나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살기가 싫고 할아버지하고도 자주 싸우고 아빠는 내 맘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약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A)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글러먹었다고 보낸 거죠.(C)

옛날에는 그니까, 아 나 때문에 그러나 그것 밖에 없었어요.(F)

가출하고 딱 나왔는데 엄청 후회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제가 가출하고 나서 엄청 많이 울었던 말이에요. 내가 왜 살지? 그런 생각도 들고(H)

너는 너네 엄마랑 다른 남자랑 해 가지고 너네 아빠한테 이렇게 뒤집어 쓴 거다 애를, 이렇게 애기한 적도 많고. 막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이 잘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더. 아니 내가 이 집에서 나가버리면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런, 또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I)

저 힘든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오빠가 물 깊숙한데 들어갔는데 오빠가 수영을 잘해요. 근데 안 깊네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오빠랑 아빠랑 다 친척분이랑 갔었는데 아무도 저를 안 살려주는 거예요. 아 저는 막 막 하고 있는데 오빠는 보고도 모른 척하시고 엄마 아빠도 모른 척하니깐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T)

㉞ 성격의 변화

: 성격의 변화를 경험

원래 진짜 소심했어요. 사람들이랑 놀잖아요. 막 뛰어 노는건 되게 잘해요. 근데 막, 발표하는 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꼭 애들이 말을 걸잖아요. 말을 걸 때 어그래? 하는데, 이상하게 상처받을걸 먼저 생각하고 말해요, 저는. 그랬었는데, 뭐 그러니까, 불량교우되고나니까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는게 버릇됐어요(C)

내 성격 자체가 성격 파탄자가 된 기분이에요.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조울증도 있는 것 같고 좀 많이 우울하다 해야 하나? 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었던 내가 부정적으로 변했어요(D)

㉟ 부정적 정서 발생

: 외로움, 우울함, 행복의 박탈감, 배신감/분노, 적개심, 공허감, 무시에 대한 분노, 과도한 체벌에 억울함, 불안, 삶이 힘겨움, 분함을 토로함, 원망, 공포증/보호의 필요

배신감/분노

나는 정말 개를 믿었는데 개가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생각하니깐 너무 화나는 거예요(A)

아버지가 항상, 아, 너희 아빠는, 저희 아빠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H)

엄마한테도. 그 일곱 살 때 집 나가셨잖아요. 날 버렸잖아요. 날 버리고 갔잖아요. 뒷통수 맞았죠. 그때도 생각하면 엄마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화가 나요.(K)

진짜 황당했겠죠.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아빠가 장난치는 거겠지, 이러면서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라고 막 보라고. 근데 그때부터 아빠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버리고 나가고 나서부터.(N)

나는 아직 정신 차리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엄마가 기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나를 기다려주는 게. 그래서 그것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너무 싫었어요.(R)

저 힘든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오빠가 물 깊숙한데 들어갔는데 오빠가 수영을 잘해요. 근데 안 깊네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오빠랑 아빠랑 다 친척분이랑 갔었는데 아무도 저를 안 살려주는 거예요. 아 저는 막 막 하고 있는데 오빠는 보고도 모른 척 하시고 엄마 아빠도 모른 척 하니까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T)

적개심

누워 있는 애 산소호흡기 빼려다가 참았어요. 그리고 개가 좀 괜찮아지고 나서 때렸어요. (C)

가끔 엄마가 저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제가 잘못을 하면. 막 칼을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칼을 들고 싶을 때가 있고. 그걸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자리를 피해요(R)

무시에 대한 분노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들어주면 싫어해요, 제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시켜. 그럼 내가 화가 나잖아요.(C)

저희 부모님이 무릎 꿇고 있으면,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해야지만 무릎 꿇고 있는 것도 다시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 무릎 꿇고 있는데 지들끼리 다 웃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책상이랑 다 엮고 부모님이 말려도 그때 눈보라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막 욕하면서 내 이딴 학교 안다닐 거라고 이딴 학교 그냥 망하라고 그런 식으로 욕하고 나왔어요.(T)

㉔ 정서적 혼란

: 감정조절 어려움, 정서장애 경험, 양가감정

감정조절 어려움

친구라고 믿었는데 재가 내 욕을 하고 다닌 게 너무 화가 났어요.(A)

어렸을 때는 조심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가 딱이나 감정 조절 못 할 나이에 화를 조절 못 하니 까 선생님한테 책상 던져가지고 혼났다고요.(C)

감정조절이 안 돼요 아예.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웃다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내, 애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뭐 말 한 마디 장난으로 던진 건데 막 나 혼자서 화내고. 갑자기 웃으면서 이러다가 뭐라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러면서 막 또 싸우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D)

저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잘 들거든요. 조울증도 조금 있어요, 조금(M)

제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구로를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어요(M)

제가, 폭식, 이렇게 갑자기 하면 조울증,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이라고 말해야 되나? 거의 조울증 상태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Q)

㉕ 사고의 단순성

: 사고가 단순함, 경계를 잘 안함

사고가 단순함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부터 들죠.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도망부터 가야겠구나. 아직 덜 진정 된 상태니까. 만약에 완전 차분하게 진정 됐다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마땅한 벌을 받아야겠구나 생각이 들텐데 아직 덜 진정 된 상태에서 아, 내가 이걸 저질렀어, 어떻게 하지? 그 바로 앞에 것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우니까 도망가게 돼요.(B)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을 걱정하다가 내가 더 화나니까. 이 사람은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유도 없고,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C)

계속 나쁜 짓을 해도 경찰서는 가는데 가둬놓질 않고 그러니까. 해도 벌, 청소년이니까...그러니까 잡아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했는데,(E)

그냥 노는 게 좋아서. 그냥 생각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왜, 내가 가출을 해야 돼, 근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막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아 나 짜증나 집 나갈래, 이런 거.(G)

저는 그냥, 그닥 그냥, 없는데. 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저는, 없어요, 없어요(H)

아 좀, 저는 약간 좀 뒷일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게 있어서.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돼요.(S)

경계를 잘 안함

하재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큰 액수, 액수가 크니까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 뭐하는데? 이랬더니, 모텔에 가서 남자랑 술만 먹고 나올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냐고, 별 걱정이 안됐거든요? 갠 원래 남자랑 술 잘 먹고 다니는 애라서. 별 걱정이 없었는데, (I)

근데 아저씨가 자기 옷가게 아저씨라고, 사장이라고 불쌍한 사람들 옷을 나눠준대요. 그 언니랑 영어 막 얘기하고 있길래 저는 안심하고 그냥 잤는데 갑자기 일어나보래요. 계속 일어나, 일어나 이래요. (K)

열아홉 살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 사귀었었는데 아는 오빠 통해서 연락 계속 하다가 만나게 됐는데 걔가 삼척 애예요. 근데 진짜 죽고 못 살던 남자에였었는데 그 전 남친이 일차에도 때렸고 이차에도 때렸어요.(T)

㉔ 관계에 대한 단순성

: 사람을 쉽게 믿고 경계를 안 함

제가 사람을 잘 믿어요.(A)

성매매를 당한 여자애가 이 핸드폰이 000 꺼라고. 제가 이것 때문에, 걔가 그 오빠한테 감금당하고 막 폭행당하고 이렇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돌려줬던 거예요, 그 성매매를. 그래서 그 매개체 역할을 제가 했다고. 근데 또 제가, 그 오빠가 나중에, 4일 전에 알게 된 그제 저한테 핸드폰을 주면서, 핸드폰 지금까지 빌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핸드폰 빌려줘서 고맙다고 돈을 줬어요. 10만원을. 10만원을 쥐 갖고 저는 신나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죠.(B)

일단 어리광이 많았어요. 어리광이 많고 털털했어요. 근데 애교도 많았구. 그냥 엄청 순진했어요.(D)

친구들이 꼬시는 거에 잘 넘어가죠(E)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그래서 내가, 너가 날 불러서 이렇게 모르는 오빠한테 왔는데 니가 갑자기 어디를 가면 나 이 상황에서 어딜 가야 되냐, 했더니 자기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지금 돈을 벌려고 나온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돈? 이랬더니, 자기가 지금 300만원을 벌면 내 생일선물도 사주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큰 액수, 액수가 크니까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 뭐하는데? 이랬더니, 모텔에 가서 남자랑 술만 먹고 나올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냐고, 별 걱정이 안됐거든요(I)

선배들 놀렸어요. 제가 만약에 강릉에 있으면 나 서울에 있다 부산에 있다 그런 식으로 놀렸거든요. 그런데 딱 만났는데 그때 맞고 선배들이 바리깡으로 머리 뺨뺨 밀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렇게 기른 거예요(T)

㉑ 가치판단이 약함

: 안 좋은 일을 쉽게 배움

그렇게 순진하게 살다가 애들이랑 좀 친해지고 나서 이제 별거, 욕도 알게 되고 별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I)

이번엔 망을 보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게에 그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돈을 가져와볼까? 이런 생각하다가. 솔직히 문은 해봤어요. 솔직히 힘이 남자에들에 비해 약해가지고 안 열렸어요. 창문. 창문을 따고 들어가고 방충망 그런 거 다 찢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한, 이만한 창문도 다 기어서 들어가고(L)

제가 이탈 같은 걸 되게 잘 해요. 잔머리도 잘 돌아가고. 근데 거기서, 지문인식인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테이프로 붙이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테이프로 지문, 선생님 꺼 이렇게 한 번 했다가 붙이면 지문인식 되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이거 번호키 망가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쌤이 달리기가 좀 느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리니까 바로 튀었어요(M)

㉒ 정서적·신체적 둔화

: 감정이 둔해짐, 신체적 감각이 둔해짐

내가 켈 무서운 거는... 진짜 이제는 못 느끼거든요(D)

아빠랑 오빠한테 하도 맞다 보니까 아프진 않아요.(M)

㉓ 비행또래 형성

: 조기일탈,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 비행친구, 소개로 친구관계가 넓어짐, 어떤 친구인지 모르고 사قم, 센 척을 하면 알아서 다가옴, 복수심

초등학교 때는 전혀 안 그랬던 애들이 중학교 되니까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친했던 애들이.(A)

내가 5학년 었을걸요? 아니 6학년 때 었다. 그 때 한창 그럴 때잖아요. 개념이 뭔지 위아래가 없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언니가 저한테 일로 와보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거 땀에 엄청 싸웠어요. 싸우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거든요. 싸우다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죠. 친해져가지고 침 몇 번 만나다 거의 일 년은 안 만났는데 내가 그 언니 다니던 중학교에 입학했던 말이에요. 그것 땀에 더 그런 거죠.(D)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이랑 일부러 더 많이 어울리고 막 좀 논다는 애들이랑 더 많이. 처음엔 잘해주면서 접근해서 이제 그 때부터 같이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네가 이제 점점 친구로 생각하고 이제 같이 동등한 친구가 됐을 때, 더 많은 애들을 알게 되면 이제 거기서 못 헤어 나오는 거예요.(B)

개네들이 알고 있던 다른 애들을 소개 받으면서 더 친해지고 더 넓어진거죠.(A)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랑 살면서 전학을 왔는데 좀 노는 애들 무리에서 놀다가 온 애라서 서구에서 남구로 이사를 갔는데, 남구에 있는 애들도 서구에 있는 애들을 알잖아요. 너 서구에서 왔어? 누구 알아? 누구 알아? 이러면 좀 논다는 애들 좀 말해주면, 아 애가 좀 노는 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개네 이름 좀 팔면서 땡땡거리면서 나 애 안다고 애랑 놀았다고 이런 이런 일 있었다고 좀 얘기를 해주면, 개네들이 알아서 붙어요.(B)

원래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오빠들이랑 언니들이랑 다니다가 이제 그 언니 오빠들이 다른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또 놀다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알다가, 그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랑 저랑 사귀었었는데. 제가 6학년이 돼서 사귀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중 1때 그 사람의 친구랑 사귀었거든요, 중 1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동네 이사를 가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놀다보니까 학교도 안 가고 불량교우랑 점점 어울려가고 남자친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C)

좀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물들잖아요. 그것 땀에 그러다가 계속 만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 언니들 할 때마다 옆에 있고, 옆에서 하면 궁금하잖아요, 해보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D)

선배들. 애 선배는 자기 선배야. 못 건드리죠. 선배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선배들이 많이 알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고 언니들이 막 귀여워 하니까.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친 언니도 있잖아요. 저희 친 언니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맨날 막 부를 때 어, OO 동생 이런 식으로 불러요.(C)

아, 애가 좀 노는 애구나 알아서 붙어요. 알아서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더 못 헤어 나와요. 이제 제가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붙는 애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땐 이제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B)

㉔ 낮은 자기가치감에 대한 보상행동

: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함,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음, 자신을 포장함

한 번은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살기가 싫고 할아버지하고도 자주 싸우고 아빠는 내 맘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약을 먹은 적이 있어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그 때는 아마도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30살 40살 밖에 안 먹었으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기 보다는 관심을 받고 싶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A)

일부러 웃겨주려고 몸 개그도 막 많이 하고 웃긴 얘기 더 많이 하고. 일부러 목소리 더 크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관심 받고 싶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B)

저에 대해서 포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좀, 나있는 자체를 보여줬으면 됐는데 막 자꾸 애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나를 겉으로 포장한 거예요. 아닌데 거짓말 자꾸 하게 되고. 그러고 사실은 내가 소심한데 일부러 막 활발한 척 그런 것 좀 많이 했었죠(I)

㉕ 폭력을 합리화하기

: 지나친 체벌을 인지하고 피함, 폭력의 합리화, 폭력을 합리화하고 내재화, 폭

력경험에 대한 최소화,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폭력에 대한 당위성 부여

첨엔 말로 했는데 제가 안 들으니까요. 아빠한테 맞은 이유는 거의 다 제가 잘못해서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맞는 순간에는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다 맞고 나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요(A)

내가 있다 보면은 누가 맞는 걸 많이 봐요. 맞는 모습을 많이 보면은 내가 원래 사람을 못 때린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너무 화가 나면은 그걸 봤으니까 이제 딱 이생각하죠. 애넌 맞아도 신고를 안 하는구나. 때리다가 어느 날은 그 언니들을 항상 사람을 너무 잘 때려가지고 나도 맞았던단 말이에요. 맞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나도 맞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때려도 되겠구나 이런 인식?(D)

㉞ 부정적 정서의 억압

: 감정을 누름

초등학교 때까지 눌러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몰랐고(A)
싸우면은 나만 피해본다는 걸아니까 이제 안 싸우는데 그 때부터는 참을성이 되게 많았어요. 누가 뭐래도 참고 다 참았던 말이에요. 나는 꼭꼭 참고 다 터뜨린단 말이에요. 참을 때까지 참아본단 말이에요(D)

그러니까 막 잘 참는, 제 성격이 원래 잘 참다가 한번에 이렇게 탁 터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기억이 안나요(G)

㉟ 부정적 정서의 행동화

: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 박탈감으로 지위비행을 함,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함, 가출, 감정과 반대로 하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에 화가 나서 때림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

같이 때리고 속이 시원(A)

부모님한테는 더 막 센 척 하고 집에 가면. 풀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막 그렇게 아양 떨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가서 부모님한테 푸는 거예요. 아빠가 뭘 아냐고, 아빠는 나랑 진짜 말이 안 통한다고. 아빠랑 말도 하기 싫다고, 말 걸지 말라고 막 그러고. 문 창 닫고 들어가고, 그랬어요.(B)

내가 뭘 짓을 했어요. 근데 애가 날 때려요. 그럼 애를 그냥 머리만 잡고 애가 날 못 때리게 밀 쳐내요. 내가 때리진 않아요. 내가 화가 안 난 이상. 근데 화가 났으면 애는 이제 반 죽고.(C)

겨울에는 추워서 싸우고, 여름에는 덥다고 짜증나서 싸우고, 그냥 이유 없이 싸운 것 같아요.(E)

난 애 없으면 못살아, 막 이려고 난 애 없으면 맨날 우울할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누가 있든 잘 놀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쁜 건 없어요. 그냥 개가 그러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만약에 이 말을 들었는데 내가 진짜 엄청 기분이 나쁘면 저는 바로 한꺼번에 지랄해요. 그니까 막, 아 그래 미안해 이렇게 참았다가 모아놓고 나중에 발광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발광해요(F)

계속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억압하면 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게 있어서 보호관찰, 그 재판을 받기 전에는 암전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보호관찰이라는 걸 받고 언제 한 번 출석해야 되고, 나한테 안 되는 게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뭐 출입하, 학생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야간전화까지 있으면 밤 열 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데, 그게 싫었어요, 그냥. 뭐 어때? 안 받으면 뭐 어때? 내가 왜 받아야 돼? 이런 마음?(G)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애들이 막 정서불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만히 있어도 다리 하나는 떨어야 될 것 같고 음악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컴퓨터 막상 이렇게 나중에, 내가 뭘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컴퓨터를 보면서 멍도 때려보고. 뭔가는 꼭 한 가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I)

그냥 벽 쳐가지고, 너무 짜증나니까. 전엔 칼로, 칼로 여기 한 번 했었던 말이에요. 칼로 딱 한번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벽을 쳤어요.

근데 여기 피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아파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래 짜증나니까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하면서 발로 계속 차고 그렇게 하다가 발에 멍들었어요.(M)

박탈감으로 지위비행을 함

불행하다기 보다 행복하지 않다는...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래도 본드같은 건 안 했던 것 같아요.(A)

점점 어려워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에 가면 이제 공부할 환경이 아니고. 도서관을 가기에 는 내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볼 사람이 없고. 친구랑 하기엔 친구는 학원가고. 이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D)

그냥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J)

이것저것 다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싶은데 안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서. 갖고 싶은데 자꾸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가출한 거(L)

아빠 그러고 나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그러면서 너무 자주 부딪쳤어요. 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다 보니까 엄마랑 자주 부딪치는데 (R)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함

할아버지하고도 자주 싸우고 아빠는 내 맘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약을 먹은 적이 있어요(A)

무슨 짓을 해도 누굴 때리거나 그렇지 않고 본드를 하고 뿔 하고 나한테만 해로운 거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다 계속 이 생각했죠(D)

전엔 칼로, 칼로 여기 한 번 했었던 말이에요. 칼로 딱 한 번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벽을 쳤어요. 근데 여기 피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아파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래 짜증나니까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하면서 발로 계속 차고 그렇게 하다가 발에 멍들었어요.(M)

그때 한 순간은 그거였어요. 술로, 내 자신을 망치는 거. 막 내 자신을 망쳤어요, 그때.(Q)

남자애들은 뒷말은 없는데 노는 게 약간 좀 과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막 방향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R)

거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남는 거예요. 제가 진짜 힘들어서 자살 소동 같은 거 많이 벌였었거든요.(T)

가출(부당한 폭력적 훈육에 회의감/가출로 대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안대 쓰고 나가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너무 화나서.(A)

그날. 할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난 정말 이 집에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출을, 짐을 다 싸서 그, 친구네 집에 갔어요.(I)

㉞ 회피적 대처

: 부정적 정서의 회피, 스트레스 상황의 회피, 친구관계 의존, 스트레스 사건의 회피, 즐거움의 추구

부정적 정서의 회피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요. 아 오늘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 오늘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애는 되게 병신이야, 저희들끼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 병신 완전 웃긴다 이런 얘기 하면서...그럴 때는 거의 집에서 할아버지랑 있고 하면 거의 다툼이 나니까 아 진짜 짜증난다 집 들어오기 싫다 빨리 나가고 싶다 친구들이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A)

아 지금 내가 너무 무섭다, 내가 빨리 개네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들고. 개네랑 같이 다녀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드는데, 지금 와서 그 때 감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워한 거죠, 제가. 그 때는 정말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개네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B)

들떴죠, 맨날. 맨날 들떠가지고. 노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계속 즐겁고 계속 웃기만 하니까 친구들과하고 놀면. 사고를 쳐도 우리는 장난으로, 웃고 떠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은 없었어요./그 때, 놀지 않았을 때는 뭔가 막, 자꾸 막 힘든 일을 생각하고, 생각나고 그래서 휴대폰을 만지면 욱먹으니까 아빠한테 휴대폰 집어넣으라고, 방에 혼자 이려고 있으니까 자꾸 힘든 일이 생각나서 자꾸 노는 것 같아요.(C)

개가 막 울면서 나는 너가 걱정돼서 그런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러다가 그게 싫어서 학교에 계속 안 나가다가 버릇이 된 거죠.(D)

저 혼자 있는 거 싫어해요./우울해져요.(E)

그냥 만나는 자체가 좋았어요. 집에 있는, 집에 있을 때는 완전 침울하고 우울한데 나가면 완전 단판, 완전 반대세계(F)

원래 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할머니가 아프셔갖고 쓰러지시면서, 저는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신 이후로부터 사고를 쳤어요. 할머니가 없고 나서부터.(G)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희가 항상, 개 없어지고 나서 진짜 비행 엄청 심해졌어요/그냥 답답하고 짜증나고 뭔가 불안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또 잔소리 먹고 욱먹겠지?이런(H)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때는 좋죠. 당시는(I)

저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잘 들거든요. 조울증도 조금 있어요, 조금.(M)

제가 학교도 많이 안 나갔어요, 그 때 당시에 엄마랑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가출 팸 애들이랑 어울려 다녔어요(N)

그나마 친구들이랑 있으면 집에 있던 일들 생각 안 나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 화나게 했더니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냥 웃게 만들잖아요. 웃는 일밖에 안 생기잖아요.(O)

배신감. 그 친구의 배신감을 심각하게 맞고 사회에 나가 또 배신감을 알았죠.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담배로 많이 풀렸죠. 화나면 맨날 담배 피우니까. 감정을 다스리려고.(Q)

집에 있으면 막 갑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네들이랑 있으면 놀잖아요. 그러면 좀 답답한 게 없어지고 아무 잡생각이 안 들잖아요.(R)

같이 있을 땐 진짜 재밌고요. 막 집에서 짜증나고 머리 아프고 그랬던 게 없어져요(S)

애들이랑 만나서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게 이제 싫어졌어요.(T)

친구관계의존

또 중학교 2학년 때는 친구에 죽고 친구에 살 때잖아요.(A)

그냥 개네들이 좋았어요. 그냥 시간이 빨리 가고 자유로웠다고 해야 되나? 할머니의 그런, 뭐라 하는 그런 공간 속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자유로운 공간 속에 있으니까 좋았어요.(I)

제가 저 혼자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뭔가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K)

작년에는 친구들이 돈 번 걸로 끼껴서 같이 다니고 친구들이 거의 막 사주고 그랬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올해부터 하게 됐어요.(O)

제가 딱 스무 살 되자마자 선배들한테 맞고 나이 어린 애들이나 전 남자친구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두 번을 신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T)

스트레스 사건의 회피

아빠가 싫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잘못된 걸 알잖아요.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그럼 어차피 혼날 걸 아니까 안 마주치고 조용히 지나갈라고.(A)

오지랖 넓게 거기 끼어 들어서 그 무서운 오빠랑 상대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모르는 척 했거

튼요. (B)

대화 할 사람도 없고 잔소리만 계속 하고 훈육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잔소리도 많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이 너무 좁아서. 그리고 방도 없었어요, 제 방.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방을, 거실을 쓰고 유일하게 방이 있는 게 작은 방이었는데 작은 방은 할아버지가 쓰고, 해가지고 집에 있기도 싫고.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만지고 있으면 할머니가 무슨 년 핸드폰만 맨날 하나고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집에서 자꾸 안 있으려고 했어요.(I)

열네 살에 그 집에 있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냥 학교 가기도 싫고. 학교를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짐을 다 챙기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심터를 찾게 됐어요(M)

원래 스트레스 받, 원래 집에서 잔소리 했던 게 그러니까 더 잔소리 많이 하고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저는 더 밖으로 돌고.(S)

즐거움의 추구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요. 아 오늘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 오늘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A)

들떴죠, 맨날. 맨날 들떠가지고. 노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계속 즐겁고 계속 웃기만 하니까 친구들하고 놀면. 사고를 쳐도 우리는 장난으로, 웃고 떠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은 없었어요,(C)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I)

저도 한 번 즈음 이렇게 놀아보고 싶었어요(J)

그런 건 없고 재밌다는 느낌? 재밌고 좀 시끄럽다는 느낌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건 있는데 좀 적당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어요.(K)

그냥 놀고 싶고(L)

되게 그냥, 즐거웠어요(M)

그나마 친구들이랑 있으면 집에 있던 일들 생각 안 나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 화나게 했더니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냥 웃게 만들잖아요. 웃는 일밖에 안 생기잖아요.(O)

밖에서는 이 남자를 만나면서 선배들도 같이 만나고 자연스럽게 선배들도 알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밖에서는 술 담배도 자유롭고 노는 것도 자유롭고 그랬던,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P)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아빠 가고 나서 좀 확 반항을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고 싶지도 않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살기도 싫은데 그나마 친구들과하고 있으면 좀 재밌고 그러니까.(R)

가족한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었던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재밌잖아요.(S)

애들이랑 만나서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게 이제 싫어졌어요.(T)

㉔ 애정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상호의존적이 됨

: 상호의존적 관계, 동감의 욕구, 친구에 대한 애정/의존적, 융합, 의존적 관계, 독립적이지 못함, 무조건적인 의리, 정이 많음/거절 못함, 공감대로 위로/상처 보듬기, 위로감 됨, 지지적 관계 욕구, 친구에 대한 긍정적 시각

상호의존적 관계

제가 사람을 잘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아 그랬어?하면서 믿어 주는. 그래서 상처 받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도 많이 화가 나고. 의리가 좀 심해서 친구 한명이 힘들다고 새벽에 연락 오면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개 얘기 들어주기도 하고 또 제가 힘들다고 하면 와서 얘기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어. 은근 다 챙겨주고 그런 애들, 다들 배려심 있다고 해야 되나? 애들이 다 착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미워할 수가 없어.(A)

혼자 있으면, 누가 쳐다보면 시비 걸릴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고, 나 혼자서는 막 못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거든요. 애들 믿고, 애들이랑 있을 때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막 혼자 있을 때는, 아 막 재가 저번에 시비 걸렸던 앤데 재가 지금 나 알아보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그래서 더더욱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더더욱 오래 같이 있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자취를 하게 되는 거고.(B)

아무도 잡아주질 않잖아요. 여기 있는 언니들도 나가면 아무도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비행을 저지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옆에서 잡아주지 못한 게 잘못이죠. 그렇게 되는 거 보기 싫으면 자기네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D)

처음에는 집에서, 불러도 나가기 싫었고 자꾸 더운데 부르고 그래서 싫었는데. 아예 집을 안 가니까 같이 있는 게 편하고, 개네랑 자고 먹고 하는 게 더 편하고 그랬어요.(E)

중학교 3학년 때가 제일 처음 했던 가출이거든요? 근데 그 계기는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G)

쉼터에서 그전에 만났었어요. 근데 네이트온으로 연락하다가 이제 좀 같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서로, 같이 있을 사람이 없어서 같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I)

어디다가 풀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밤에 불러도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나오는 친구들. 아니면 지네가 먼저 부르거나.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만나고.(R)

친구들도 되게, 제가 친구들을 진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짜 막 친구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친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다보면.(S)

친구에 대한 애정/의존적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면 속상하기도 하고 다음 날 만나면 괜히 배신감 들어서 좀 막 대하기도 하고 근데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애들이예요.(A)

저 정을 되게 많이 줘요 사람들에게 원래. 정이, 정을 주잖아요. 근데 애가 정 떨어지는 짓을 해요, 근데도 정이 안 떨어져요 사람한테. 한 번 정을 주면.(C)

나는 한번 정을 주면 못 떼는 스타일이거든요.(D)

돈도 많고 시원하고 바로 음식 시켜서 먹고 방, 옆으로 옮기면 바로 거기 치워져 있고 그러니까. 남친도 맨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E)

그래도 남자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좋았죠.(J)

그니까 아빠랑 자꾸 말다툼이 이루어지고 막 친구들이랑 더 있고 싶어지고 그래갖고.(L)

저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해요.(M)

애가 왠지 저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든든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래 애를 만나다보니까 애도 저를 때리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제 앞에서 바람도 두 번이나우 피우고.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자 얘기를 했는데 헤어지자는 얘기를 할 때마다 때리고.(P)

혼자 있는 걸 못 참으니까 심심해서 전화를 해요.(Q)

융합

나는 싫어 너네끼리 해 라고 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그냥 같이 하고 싶죠 같이 있으면. 말 하는 거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아 나는 싫어 너네끼리 해 하고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근데 하다 보면 같이 있고 싶어요.(A)

정을 너무 많이 줘서. 슬프긴 했었는데, 뭐, 많이 울기도 했는데 애가 아무리 그랬어도, 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 떨어졌다고 말로만 하고 집에 가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 같이 놀았어요.(C)

그때 이후로 이상해졌어요. 같이 하면 저는. 제가 그 느낌을, 그 느낌도 좋아하지만 그 애가 어떤 느낌을 받는가에 따라서 제가 재밌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F)

일단 내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공감성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다보니까 개네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하게 돼요, 그 행동을. 나쁜 건 분명 머릿속으로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애네랑 같이 있

고 싶어서.(I)

의존적 관계

집에 있을 때만 혼자 있고 거의 밖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거든요.(A)

어리면 좀 힘쓸리기 쉽죠.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토라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계속 비행을 저질렀던 거고.(B)

개네가 친구고, 남자친구랑 친구랑 친구의 남자친구랑 이렇게 다니다가, 개네가 다 가출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다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E)

혼자서는 재미가 없어.(F)

일단 의지가 너무 약해요. 근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끈기도 없고 의지도 약해요. 그래서 좀 그래요. 그냥, 난 정말 안해야지, 난 정말 딱 해야지, 이랬는데 옆에서 조금만, 누가 조금만 막 그렇게 해도 홀랑 넘어가 버리고 그런 편이었어요. 난 싫은데, 거절도 잘 못해요.(G)

근데 막, 제가 거절을 못 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어요.(H)

할머니도 사람인데 왜 가족은 싫고 밖에 있는 사람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배신하는 행동을 해도 난 그 사람들이 좋았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까지 퍼줘도 나는 좋았어요. 니랑 같이 있어주니까.(I)

떨어지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울 것 같고 막 보고 싶고.(J)

공감대로 위로/상처 보듬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친구들하고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어제 아빠한테 맞았는데 진짜 좇같다, 나도 맞았는데 내가 진짜 저 새끼 죽일 거다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내 집에서 나오면 나 돈을 못 받겠지? 이런 공감대도 형성 된다고 해야 하나. 애들이 다 맞고 사니까.(A)

그랬냐고,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달랬는데. 그런 친구가 전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내가 아무리 집을 나왔어도 기분이 안 좋았더라도 얘기를(들어서), 풀어주고 집을 데려다주고 하는 애들이 착한 애들인데. 아 들어가지만 그럼, 괜찮아 여기서 놀다가, 기분 풀 때 들어가면 되지, 아빠가 잘못 했는데 네가 뭐 잘못이 있어, 이런 식으로.(C)

가출하기 전에 제가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을 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못살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렇구나 그럼 너도 가출할래? 같이 가출해갖고,(F)

위로가 됨

맞는 것도 공감대가 되는 거-나 어제 아빠한테 맞았는데 진짜 좇같다-나도 맞았는데 내가 진짜 저 새끼 죽일 거다-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내 집에서 나오면 나 돈을 못 받겠지-유대감-친해지는 계기가 애들이 담배 피러 갈래?-나랑 똑같은 거 피는데 담배 필줄 아네 이런 식으로.(A)

개네도 편부고 편모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다잖아요. 진짜 끼리끼리 만나더라고요, 세상 살아가니까.(C)

뭔가 그런 가족구성형들이 좀 비슷하고 나랑 공감이 되고 서로, 그건 실제로는 위로가 아니지만 나한테 그 당시에는 위로가 됐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I)

그냥 되게 잘 맞았어요. 그, 그냥 집도 개네 집에서 하루씩 자다가 그 다음 저희 집에서 하루씩 자다가. 그런데, 가출생 ?? 30:16 들도 저희랑 집이 뭐가 비슷해요.(M)

그냥 그때 가족이랑 친구 애들이 싫었어요. 다 몰라주니까, 제 마음도 몰라주고. 가출한 애들은 다, 저, 또래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잘 알아주니까 그게 좋았어요.(N)

그냥 진짜 제 생각 많이 해주고 막 힘든 거 있으면 막 같이, 우리랑 같이 물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 친구들. 엄마한테는 속 얘기 해본 적은, 제 속 얘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S)

애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면 막 즐거운데 혼자 있으면 말할 상대도 없고 옛날 선배들이랑 그렇게 맞았던 그런 게 떠올라서 방, 원룸 같은 걸 잡아도 혼자 안 살려고 그래요.(T)

지지적 관계 욕구

그냥 혼자인 게 외롭고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개네한테, 가족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말할 수 없는 얘기를 개네들한테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런 게 우정인 것 같다고.(A)

그래서 남자친구 잘 사귀고 나서 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C)

나를 보호해줬음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좋은 것만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고 나한테 좀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그랬음 좋겠어요.(D)

제 마음을 더 잘 알고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알고 편했어요.(N)

저는 고민 같은, 제가 힘들거나 그런 걸 다 친구한테 말하고 친구들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한테는 좋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S)

서로 말을 할 수 있고 제 마음을 많이 이해해주니까.(T)

㉔ 권력의 획득과 유지

: 두려움에 관계를 유지함, 권력욕구, 특별함에 대한 욕구, 힘의 과시, 계급의식, 허세, 권위의식, 무모한 책임감, 소외의 두려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음, 거짓말에 과민반응하게 됨, 이유 없는 폭력, 뒷담화로 폭력을 행사함

권력욕구

아무래도 좀 어렸으니까 세보이고 싶었던 거죠.(A)

애들이 물량이 많아요- 어깨가 퍼지죠-혼자서는 막 못하는(B)

기세등등했죠. 처음 느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애들이 다 나를 무서워하고 내 말을 잘 들어 주고 하니까 뭔가 좀 개량 있었으니까 좀 기세등등했었죠.(I)

특별함에 대한 욕구

혼자 있을 때는 나죠. 근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아 난 좀 특별해. 담배 피면 아 이 나이에 원래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담배를 피고 있어!(A)

방향하게 된 애들끼리 다 똑같은 걸요?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거의 이걸 다 80프로, 90프로 이상은 인정할 걸요? 멋있어보여서. 애들 괴롭히고 그렇게 막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그런 게 멋있어 보여서. 이걸 정말 100퍼센트 다 공감할 거예요.(B)

힘의 과시

저보다 아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보다 아래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나만은 그렇게 안 보여야 되니까 더 나오기가 힘들어요.(B)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저랑 있다가 뭐 어찌다가 제가 그 언니를 애들한테 잡아오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돈을 주고. 돈이 있으니까 진짜 막 뭐든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한 거죠.(O)

계급의식

알아서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더 못 헤어 나와요. 이제 제가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붙는 애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땐 이제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저 밑고 까부는 애들도 많아지고 이제 막 저 비행기 태우는 애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제가 공부만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돼요.(B)

애 선배는 자기 선배야. 못 건드리죠. 선배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선배들이 많이 알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고 언니들이 막 귀여워 하니까.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C)

그냥 지네...끼리 심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라면 안 할 거 아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할라고 그런 것 땀에 내가 많이 맞았어요.(D)

나에 대해서 욕이란 욕은 다, 인터넷 상으로 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심지어 나보다 어린 애들도 다 나를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막 지가 화나는 일을 갖다가 나한테 화날 게 아닌데 나한테 일부러 그냥 트집 잡아서 별 거 아닌 것 같다가 막, 인사 안 했다고 때리려고 그러고.(I)

제가 딱 스무 살 되자마자 선배들한테 맞고 나이 어린 애들이나 전 남자친구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두 번을 신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T)

허세

없던 자신감? 없던 자신감이 생겨갖고 일부러 시비 거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허리가 펴지고 더 막, 좀 과하다고 해야 되나? 제스처가 막 과해지고 그래요.(B)

진짜 내가 강하게 된 걸로 착각을 하게 되요. 막, 애를, 애랑 단 둘이 얘기를 하면 정말 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애들만 있으면 뭔가 내가 애를 때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뭔가 내 이미지가 상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강한 척을 하게 되고, 사실 힘들었어요.(I)

근데 뭔가 친구 한 명 옆에 있으면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모르게 돼요. 그게 하기 싫어도 개가 하니까 같이 해줘야 돼요.(M)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 하면 못 할 것 같은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같이 해서.(O)

권위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가서 막 담배 냄새가 나니까 알면서도 냄새가 나면서도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무서우니까. 슬쩍 자기들끼리 얘기하라고 너네 뭐라 했어? 이러면 아 아니야 이려고 권위의식?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그걸 좀 즐겼어요.(A)

혼자가 되는 게 무섭잖아요. 혼자가 되는게 무서운데. 놀던 무리에서 제가 빠져나온다는 것은 개네를 그냥 등진다는 거랑 같아요. 개네랑 안 놀면 뭔가 왕따-소외감-아직도 아빠한테 혼날가 봐? 이러면 자존심도 좀 상하고-그래서 좀 더 막-점점 더 빠져들게 되고-막 센척하고-그 무리에서 나온다는 거는 개네(깔랐던 애들)랑 같은 취급을 받아. 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는 내가 괴롭혔던 그 친구들이랑 같은 동급이 된다는 거랑 같아(B)

제가 언니들한테, 제가 이 성격이 언니들한테 좀 개념 없이 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막 갑자기 초면에 반말 쓰고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야 야 거리는 것도 싫어하고.(K)

㉑ 자기치유

그냥 개념들이 좋았어요. 그냥 시간이 빨리 가고 자유로웠다고 해야 되나? 할머니의 그런, 뭐라 하는 그런 공간 속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하니까. 자유로운 공간 속에 있으니까 좋았어요(I)

잠시나마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랬던게 저한테는 그냥 그 아픔들의 회복, 회복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고 다닌거는 잘못을 한건데 친구들 덕분에 그래도, 사고를 치고 다녔어도 그래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O)

㉒ 힘에 희생당함

: 착취를 당함, 이유 없는 폭력을 당함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은 팔기 싫고. 그런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몸을 팔다가, 그냥 힘들고 귀찮으니까 애들 잡아서 돌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걸레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데리고 다니죠. 풀어주면 애가 신고하니까. 돈 벌려고 데리고 왔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때리는 거고.(C)

몰라요.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지네...끼리 심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라면 안 할 거 아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할라고 그런 것 땀에 내가 많이 맞았어요.(D)

선배 집에서 자다가 한3일인가 4일동안 집에서 계속 맞고. 그 다음에 아파트 옥상, 번갈아가면서 세시간 동안 맞아가지고 5주 나왔었어요. 언니랑 또 맞고 오빠들한테도 많이 맞았고 깡패하는 오빠들이 웃어가지고 00이 애는 더 때려야지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고 가셨는데 또 맞았어요. 주먹 갖다가 때렸고 남자친구는 라이타 있잖아요. 라이타 달구면 뜨겁잖아요. 그걸로 목이랑 손목이랑 발이랑 다 화상 입히고 그 다음에 제일 심할 때는 물건같은 걸로 때렸어요(T)

㉔ 힘을 행사함

선배들. 애 선배는 자기 선배야. 못 건드리죠. 선배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선배들이 많이 알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고 언니들이 막 귀여워 하니까.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친 언니도 있잖아요. 저희 친 언니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맨날 막 부를 때 어, OO 동생 이런 식으로 불러요.(C)

아, 애가 좀 노는 애구나 알아서 붙어요. 알아서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더 못 헤어 나와요. 이제 제가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붙는 애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땐 이제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B)

㉕ 비행친구와의 유대유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지 않으면요 일단, 되게 위축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애들이 물량이 많아요. 좀 어깨가 퍼지죠. 근데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누가 쳐다보면 시비 걸릴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고, 나 혼자서는 막 못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거든요. 애들 믿고, 애들이랑 있을 때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막 혼자 있을 때는, 아 막 재가 저번에 시비 걸렸던 앤데 재가 지금 나 알아보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그래서 더더욱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더더욱 오래 같이 있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자취를 하게 되는 거고. 애들끼리 이렇게 막, 가출 같이 한 애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게 되는 그런 형성이, 흔히 어른들이 가출팸이라고도 말씀 하시는데 그런 게 형성 돼요, 정말로.(B)

㉖ 긍정적 정서경험

처음에는 하다보니까 막 걸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막, 가슴이 막 쭈여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좋아 가지고(F)

왜냐면 술 먹고 이런 것도 재밌었고요, 차 타고 이런 것도 재밌었고 카드 남의 깔 썼을땐 좀 망설였어요(S)

㉗ 회피적 대처로 사건이 확대됨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부터 들죠.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도망부터 가야겠구나. 아직 덜 진정 된 상태니까. 만약에 완전 차분하게 진정 됐다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마땅한 벌을 받아야 겠구나 생각이 들텐데 아직 덜 진정 된 상태에서 아, 내가 이걸 저질렀어, 어떻게 하지? 그 바로 앞에 것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우니까 도망가게 돼요.(B)

애들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신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 때리고 도망가고 수갑 막 풀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점점 죄가 커지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도망가서 또 이제 화가 나면 개네가 신고를 했으니까 또 화나서 또 때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이 자꾸 병합 되어서 크게 됐어요.(C)

㉞ 욕구충족

그냥 정말 필요해서.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A)

6학년 때부터 이제 3만원은 부족하고 4만원도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래갖고 벌써 부터 돈에 맛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5학년? 5학년 때부터.(F)

이것저것 다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싶은데 안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서. 갖고 싶은데 자꾸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가출한 거(L)

제가 욕심이 많아요, 쓸데없이. 그래서 일단 내가 돈이라도 벌어야 될 하겠구나.(O)

가게 쪽에서 일을 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자에들은 만 원 빼가고 삼만 원 받으면 개네는 이만 원 갖는 거죠. 남자에들. 하루에 다섯 개를 찍으면 더 많이 벌겠죠, 개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돈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저는 실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줄 수 있었어요.(Q)

그런 건 그냥 애들 옆에 있을 때 배고프다고 하면 슈퍼마켓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냥 과자? 그런 것만 갖고 가고 다른 건 없었어요.(T)

㉘ 온정성

: 배려심이 살아있음, 동정심이 있음

배려심이 살아있음

어른들한테는 배려가 있거든요. 박스 할머니가 지나가면 울어요 제가, 너무 붙쌍해서. 근데 그래서 도와줬단 말이에요.(C)

만약에 어떤 애가 제 물건을 쳐서 떨어졌으면, 아 괜찮아 이랬는데, 아 괜찮아 이랬거든요.(F)

그럼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드신 거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이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아빠한테는 별로 예절, 이런 거는 보여준 적이 없었던 같거든요. 근데 그냥 예의 바르다? 어른 분들한테 들은 말은 예의 바르다. 그리고 사회 애들한테 들은 건 착하다든가 싸가지 없다거나 쿨하다든가 그런 소리? 그게 뭐 장난이에요, 보통.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K)

저는 그냥 할머니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할머니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는 편하게 돌아가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게 낫지. 이렇게, 이렇게...(N)

말이 씨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말을 너무 막 하는 게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 엄마라서. 엄마도 나름대로 그래도 제 친아빠한테 아픔 받았던 걸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친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저한테 그런 걸 풀었던 걸 같아요.(O)

㉙ 긍정적 사고

솔직히 개네가 밍기도 하고 원수지간이긴 한데, 개네한테 고마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네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잖아요. 이런 데도 와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이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나쁜 예도 보여주고, 애네가. 고맙죠.(C)

일단, 힘들기도 했어요. 많이 울기도 울었고. 하여튼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후회도 되는데, 그냥 오히려 저는 제가 잘 했다고 생각해요.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느껴보기 전까지는 막 누가 얘기하면, 누가 너 그거 잘못 된 거야 하면 몰랐거든요. 아 그

럼 잘못 된 거지 이라고 말았는데, 겪어 보니까 알아요. 겪어봐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몰라요.(K)

생각할 시간도 있고.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저. 긍정적으로 뭐든지. 나쁜 사건이 막, 나쁜 막,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일부러 욕한 거겠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한테 욕한 거겠지,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걸 내가 한번 찾아서 고쳐 버리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전. 그래서 아마 제가 바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L)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막, 만약에 지금 제 또래 나이 때에서 지금 이렇게 막, 저는 제가 철들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저만큼 그래도 생각하는 애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만약에 이런 것도 안 오고 만약에 비행도 안 저지르고 막 이런 것도 다 몰랐으면 저도 또래 친구들만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텐데 막 이런 걸 겪고 나서 이런 걸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P)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본 적은 없어요. 아무리 화나도. 때려보진 않고 차라리, 엄청 화나잖아요, 차라리 욕을 해요. 싸운 적은 많죠 애들이랑. 운동끼리랑 치고받고 싸운 적은 많죠. 그런 적은 많아도 실제로 인간을 팍 때리거나 그런 적은 없죠. 이거 하나 기분 나쁘다고 때린 적은 없죠.(Q)

㉟ 자긍심

: 가려서해서 자긍심을 가짐

그래도 본드 같은 건 안 했던 것 같아요.(A)

나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막 정은 많이 줘도 몸은 안대줘요, 절대로. 저는 되게, 원래 제 몸에 손대는 것 되게 싫어해요. 손잡는 것도 싫어해요.(C)

제가 너무 개념 없이 막 이 곳 저 곳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개념은 있거든요? 지킬 때는 지키고 안 지켜도 되는 데서는 안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막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애한테 대놓고 욕을, 그런 건 아니에요.(F)

그리고 범행 막 저지를 때 거의 다 성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난 성적으로 안 간 게 뿌듯했어요.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나는 몸을 막 팔고 돈 벌라고 그러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사람들은 되게 예쁘고 되게 착한데 왜 그러지? 이 생각도 하고. 차라리 알바하면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L)

오빠라는 이제 열아홉 살, 열아홉 살인데 그 오빠가 그 아저씨 폰을 훔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뭐하는 거냐고 사건에 다 걸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박성환 오빠가 막 그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폰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 씨발 좇됐다 되는 대로 되라 이랬는데 제가 그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 너무 죄송, 아무리 그래도 사람 것 훔쳤으면,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훔쳤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N)

그건 진짜 제가 싫어요. 내 몸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팔면서 돈 몇 십을, 만약에 몇 십이예요. 그 몇 십을 준다고 해도 내 몸을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내 몸인데. 내 몸을 소중한 여겨야죠.(Q)

절도나 이런 건 폭행이나 이런 건 나중에 내가 후회를 해가지고 안하면 되잖아요, 안하면 그만이지 않아요. 근데 조건 그런 거는 제 몸이 망가지는 거고 후회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싫어요, 그런 거.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런 건 안 했어요.(R)

자부심을 가짐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 몸만은 지키자. 이런 거. 자신과의 약속? 그런 걸 했었어요, 저는. 성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성적으로 그런 거, 계획 그런 것도 한 적도 없어요. 생각도 아예 안했어요.(L)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성껏 저를 키워주고 그랬으니까 제 몸이니까. 그리고 제 몸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Q)

표 7. 기본적 개념화

기본적 개념화		
	원천 개념의 추출(place, people, situation, event)	원천 개념의 범주화
1	이혼가정, 조손가정, 복합가정	가정의 해체
2	경제수준이 낮음, 비행이 있는 가족이 있음, 박탈감을 경험, 꿈을 잃음,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 욕구불만을 경험	불리한 사회문화적 조건
3	개인적 공간이 없음, 열악한 주변 환경,	불량한 주변환경
4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 심각한 가정폭력, 가정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 가족이 보호해주지 않음, 가족 구성원의 상실, 친구의 죽음, 성적학대, 가족의 부정을 알게 됨	외상적 사건 경험
5	방임, 유기경험,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
6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수준이 심각함	신체적 학대
7	언어적 학대,	언어적 학대
8	과도한 통제, 이해받지 못함, 부담감, 무관심,	부적절한 훈육태도
9	달래줄 사람이 없음	역기능적 가족관계
10	왕따 경험, 배척당함	학교에서 또래의 배척을 경험
11	학교의 배려로 학교를 유지하게 됨, 재학이 법적 조치를 안 받게 함, 학교중단과정, 학교유지를 원함	학교가 보호체계가 됨(긍정적, 부정적)
12	편견어린 시선을 경험	낙인효과
13	공권력에 대한 실망	법체계 경험
14	가족에 대한 긍정적 기억, 부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임, 부의 상황에 대한 이해	가족에 대한 긍정적 평가
15	적응적 학교생활	적응적 학교생활
16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 또래의 영향을 덜 받는 나이	연령에 따른 또래 영향력
17	사람을 좋아하고 상처를 잘 받음(사람을 쉽게 믿음), 타인에 대한 낙관적 태도	순진성
18	활달함, 성취 지향적 성향, 장난스러움, 운동선수생활, 적극적	남성성
19	배려	온정성
20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함, 의협심	이타적 성향
21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함	독립적

22	호기심, 신기함	호기심
23	유해한 물질로 스트레스를 해소함, 현실을 부정함, 혼자 놀기, 반대로 하기	부적절한 대처
24	수치심의 경험, 동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신의 가치에 대해 조건적인 기준을 설정, 자존심이 쉽게 상함	환경적 조건에 의해 수치심을 경험
25	자신을 드러낼 기회의 부족, 존재에 대한 부정	낮은 자기가치감의 형성
26	성격의 변화를 경험	성격의 변화
27	외로움, 우울함, 행복의 박탈감, 배신감/분노, 적개심, 공허감, 무시에 대한 분노, 과도한 체벌에 억울함, 불안, 삶이 힘겨움, 분함을 토로함, 원망, 공포증/보호의 필요,	부정적 정서
28	감정조절 어려움, 정서장애 경험, 양가감정	정서적 혼란
29	사고가 단순함, 경계를 잘 안함,	사고의 단순성
30	사람을 쉽게 믿고 경계를 안함	관계에 대한 단순성
31	안 좋은 일을 쉽게 배움	가치판단이 약함
32	감정이 둔해짐, 신체적 감각이 둔해짐	정서적·신체적 둔화
33	조기일탈,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 비행친구, 소개로 친구관계가 넓어짐, 소개로 친구관계가 넓어짐, 어떤 친구인지 모르고 사귀, 센척을 하면 알아서 다가옴, 복수심	비행또래 형성
34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함,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음, 자신을 포장 함,	낮은 자기가치감에 대한 보상행동
35	지나친 체벌을 인지하고 피함, 폭력의 합리화, 폭력을 합리화하고 내재화, 폭력경험에 대한 최소화,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폭력에 대한 당위성 부여	폭력을 합리화하기
36	감정을 누름	부정적 정서의 억압
37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 박탈감으로 지위비행을 함,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함, 가출, 감정과 반대로 하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에 화가 나서 때림	부정적 정서의 행동화
38	부정적 정서의 회피, 스트레스 상황의 회피, 친구관계 의존, 스트레스 사건의 회피, 즐거움의 추구	회피적 대처

39	상호의존적 관계, 동감의 욕구, 친구에 대한 애정/의존적, 융합, 의존적 관계, 독립적이지 못함, 무조건적인 의리, 정이 많음/거절못함, 공감대로 위로/상처보듬기, 위로가 됨, 지지적 관계 욕구, 친구에 대한 긍정적 시각,	애정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상호의존적이 됨
40	두려움에 관계를 유지함, 권력욕구, 특별함에 대한 욕구, 힘의 과시, 계급의식, 허세, 권위의식, 무모한 책임감, 소외의 두려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음, 거짓말에 과민반응하게 됨	권력의 유지
41	회복의 시간이 됨	자기치유
42	착취를 당함, 이유 없는 폭력을 당함, 이용당함	힘에 희생당함
43	이유 없는 폭력, 뒷담화로 폭력을 행사함	힘을 행사함
44	가출이 범죄를 발생시킴, 안일한 도덕의식, 같이 있으면 행동을 같이 하게 됨	비행친구와의 유대 유지
45	스틸을 느낌	긍정적 정서경험
46	회피적 대처로 사건이 확대됨	회피적 대처로 사건이 확대됨
47	욕구충족	욕구충족
48	배려심이 살아있음, 동정심이 있음	온정성
49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50	가려서해서 자궁심을 가짐, 자부심을 가짐	자궁심

2. 이론적 개념화

이 단계는 개념적 포화⁴¹⁾(conceptual saturation)를 위해 지속적 비교를 하게 된다. 개념으로 돌아가 다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며, 기본적 개념화에서 생성된 50개의 범주를 다시 심리학적 개념으로 전환하였고, 다시 이론적인 연계를 실시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기본적 개념화 단계에서 생성된 개념들을 다시 심리학적 정보가 담긴 용어로 범주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 단계는 심리학적 정보가 담긴 용어를 통하여 이론적 연계를 해나가는

41) 속성과 차원, 그리고 변수를 포함하는 각 범주나 주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얻는 과정이다(p239). 다시 말해 기본적 개념화가 개념을 얻기 위해 자료로 돌아간다면, 이론적 개념화는 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이다.

다음은 심리학적 정보가 담긴 용어로 범주화하는 과정과 이론적 연계과정을 제시한 것이며, 표로 정리한 내용은 뒤에 첨부하였다.

(1) 배경 : 사회문화적 조건, 복합외상

사회문화적 조건: 가정의 해체, 불리한 사회문화적 조건, 불량한 주변 환경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이라는 의미이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속해있는 최초 집단인 가정의 형태와 주변 환경의 특성들이 이들이 공유하게 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거나 복합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며, 경제수준이 하류(기초생활수급대상)이거나 낮고, 부모형제가 비행력이 있기도 하였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었다.

복합외상 : 외상적 사건 경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부적절한 훈육태도, 역기능적 가족관계, 학교에서 또래의 배척을 경험

또한 이들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외상적 사건 경험으로는 가족의 죽음과 친구의 죽음, 그리고 유기경험, 폭력적 사건의 목격 및 폭력적 훈

육 등이었다. 외상적 사건에 대한 DSM-4와 DSM-5에서의 기술은 위협적이거나 실제적인 신체적 폭력, 위협적이거나 실제적인 성폭력, 납치, 인질, 테러공격, 고문 등 자연적이거나 인간이 일으킨 재앙, 그리고 심각한 차량사고를 포함하지만 이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동에게 성적으로 폭력적인 사건과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위협적이거나 심각한 부상, 비정상적인 죽음, 폭력적인 폭행에 의한 타인의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가정폭력, 사고, 전쟁 또는 재앙, 사건에 대한 학습을 통한 간접적인 노출이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적 요인이 대인관계적-특히 사람에 의해 가해졌을 때-이거나 의도적일 때 그 영향력이 특히 심하거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인관계적 외상 중에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이루어진 외상사건은 다른 외상적 사건들과는 다른 증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복합외상이라고 하기도 하며, Type II 외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안현의, 2011).

연구 참여자 중의 H는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그 친구는 장애가 있는 자신의 오빠를 골잘 데리고 놀아주던 친구들 중의 하나였다.

“저는 오빠랑 같이 놀러갔어요. 애들이 막 우리 집 와서 야, 너희 형, 너희 형하고 놀자 이러면, 애들이 저희 오빠가 장애인인 걸 알고 있는데도 네, 개네는 막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막 못하는 것 있잖아요. 그네 같은 거 이렇게 위험하니까 못 타는데 애들이 같이 타면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더 의지 많이 했죠.”

“근데 중학교 때 친구가, 한 명이 가족여행 가다가 죽었어요...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희가 항상, 개 없어지고 나서 진짜 비행 엄청 심해졌어요...네. 애들이 막 이상해지고 친구 한 명이 진짜, 개 막 이상해져가지고 정신과도 갔다 오고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H)”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후 혼자 살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다.

“그 지갑에 편지 있잖아요. 형사가 저한테 줬어요. 아, 너 이거 읽어보라고. 읽어봤는데 아빠는 오빠 싫어하지 않았다고. 미워하지도 않았다고. 그냥 너가 오빠 이렇게 잘 돌봐주는 모습 좋았는데, 막 뭐라 해야 되지? 저보고 오빠 잘 부탁한다고. 아빠는 오빠 미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했어요. 저 그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저는, 아, 저희가 보기에는 아빠가 미워 보이는데 아빠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H)”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적절한 지지나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외상적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말로 이차적인 상처를 주었다.

“집에 있으면 가족은 내 편을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근데 들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 탓이라고. 내가 맞고 들어온 적 있어요. 6학년 때 처음으로 맞아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무섭다고 맞았다고 하면서 어떡하냐고 못살겠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왜 맞고 다니냐구. 맞았는데 어찌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또 맞고 오라고 싸돌아 다니냐고. 그래서 항상 맞으면은 우리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요. 이제.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 혼자서 맨날 끄끙 앓고 앓다가 이제 줌...(D)”

또한 학교에서 괴롭힘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다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는 내가 괴롭혔던 그 친구들이랑 같은 동급이 된다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네가 제가 떨어져 나와서 공부만 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갈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걸 또 봤어요. 저희랑 같이 노는 무리의 애 중에서 어떤 한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 시기에 철

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저희랑 못 놀았어요. 그 때부터 이제 애들이 그게 좀 아니꼬운 거죠. 그래서 엄청 갈렸어요. 솔직히 애들이 갈구니까 저도 옆에서 같이 갈구기는 했는데, 엄청 갈구고 진짜 좀 유치한데, 정말 학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것 처럼. 책 다 찢어놓고 우유팩, 그거 우유 나눠주면 그거 막 씹으면 팽팽해지잖아요. 그거 막 던지고 쥐 가방에 넣어 놓고 그러면서. 죽은 쥐 가방에 넣어놓고 막 일부러 그래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붙일 보고 있으면 그거 막 사진 찍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같은데 올리고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어디서 구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생리가 묻은 생리대를 책상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막 좀 정도가 지나친 그런, 도가 지나치죠.(B)”

‘언어적 학대’의 경우는 이후 비행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 즉 약물이나 성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약물과 성매매 등의 범죄를 하였던 D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I와 O의 경우는 신체적 폭력과 유기경험, 그리고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폭력과 약물을 하였던 F는 유기에 대한 위협감과 방임, 신체적 폭력, 부모의 부정을 목격하였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요 좀. 자기들 싸우면서 우리들 다 죽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어렸을 때 같이 죽자고 그러면 죽을 거면 둘이 나가서 죽으라고 우리한테 지랄이냐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면 왜 낳았냐고 둘이 좋아서 낳은 거 아니냐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진짜 이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른 부모님들은 싸우다가 자식들이 죽겠다 그러면 그만두잖아요. 우리는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나가 죽으라고. 호호호. 나가 죽어 이려고 안 말린다고. 제발 죽어 이리니까 할 말이..(D)”

“막 재 길레라고, 창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재네 엄마 창녀라고. 우리 엄마가 있지도 않은데 우리 엄마가 창녀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나서 개랑

싸웠어요. 몸 싸움을 했는데 이제 막 아줌마들이 와서 뜯어 말리려고 하면서 그만 멈추고 나는 집에 가서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혼나는 한이 있어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한테 막상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는 너 같이 그리고 다니니까 그런 창녀 소리를 들은 거라고 너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딱.. 딱 너무 억울했어요”

“너는 너네 엄마랑 다른 남자랑 해가지고 너네아빠한테 이렇게 뒤집어 쓴거다 애를,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고. 막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이 잘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왔으니까 더. 아니 내가 이 집에서 나가버리면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런,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I)”

“할머니가 맨날 꿀 팔러 다니고 그랬었던 팔이에요. 그래서 맨날 늦게 들어와서 농, 장롱 같은데 버려진 장롱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맨날, 추워가지고 들어가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나요”

“막 공부를 하다가 속이 터지면 연필로 내 다리를 막 찌고 그랬었어요. 엄마가 성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욕하고 화내고 예민하고 그랬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 때리고. 옛날에는 쇠파이프 같은 것 있죠. 그런 걸로 막내가 잘못했을 때 그런 걸로 막 맞았었어요.”

“그리고 막 몸값도 못한 년, 막 물값도 못한 년. 애네들을 몰티슈라했어요, 몰티슈값도 못한 년 막 이러면서 나가 뒤져라 이러면서 나가서 차에 깔려 뒤져라 이러면서. 막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O)”

사회문화적 조건과 복합외상은 이들이 경험한 세계였고 환경이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개체의 다양한 과거의 삶의 경험들이 녹아 있는 바탕과 같은 곳은 배경이다. 개체가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을 그때 그때 전경으로 떠올려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성공적인 경험을 배경으로 들 수 있어야 한다(김정규, 2014). 그러나 이들의 배경에는 고통스럽고 힘겨우며, 슬픈 경험들이 녹아들어 있다.

(2) 맥락 : 권위체계의 경험, 긍정적 권위체계 경험

이들이 경험한 권위적 대상이나 체계는 학교와 경찰, 법체계, 그리고 아버지이다. 이러한 권위체계와의 경험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권위체계와 긍정적인 경험을 한번이라도 한 경우는 약물이나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가출과 연락단절, 수치심의 경험과 폭력적 훈육을 경험하였던 A의 경우는 아버지와의 긍정적 경험, 그리고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보고되었으며, 자긍심이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권위체계와의 긍정적 경험이 자신에 대한 태도와 자기 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H의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하게 되는 결과와도 관련되었다.

“아빠가 많이 봐주시다가 한번에 몰아서 뭐라고 하시고, 아빠가 싫진 않았거든요/아빠도 잘 몰랐던 얘기고 이제 아빠가 그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A)”

“딱 아빠가 엄마한테 맞았어요. 아빠는 이제 아빠는 좀 다 참아주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에요. 남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다 참아줬어요. 계속 맞아주고, 엄마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랬었어요/아빠는 그래도 곳곳이 계속 돈을 벌면서 보육원에 맡기면서도 맨날 면회오고 그러는데. 우리들 보겠다고 그러고 오고 그러시는데, 몰래 용돈도 넣어주고 그러시는데(C)”

“정작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시면 대충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부터 경찰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 보면 그냥 막 내가 찢려서, 내가 죄책감에 피해 다니는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싫어서, 만약 경찰이 저 반대편에서 있으면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딴 데로 가버려요. 그 정도로 경찰이 너무 싫었어요(C)”

“그래서 개네들이랑 연락 다, 다 차단했어요. 차단을 하고 진짜 잘 살고 있었어요. 보호관찰 딱 5개월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들어왔어요. 진짜 어이없는 걸로 들어왔어

요... 소장님한테 찍혀 있었어요(C)”

“따로 사는데 아빠는 저한테 엄청 잘해 주셨거든요. 진짜 남부럽지 않게 항상 치킨 사 주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아빠네 집에서 놀면 막 아빠는 술 담배하는 것 뭐라 안하고 되게 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냥 아빠랑 같이 PC방 가고 그랬던 것 밖에 없는데/그래서 아빠가 항상 오빠 돌보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맨날 맛있는 것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빠는 오빠가 제일, 아빠는 오빠 싫어했어요. 항상 눈치보고 밥 안 먹고 아빠 오는 것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니까 아빠는 싫은 거예요(H)”

“진짜 죄송한데 제가 막, 제가 인천 사는데 상산동에서 차 몇 대를 털었고 누구랑 누구랑 했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형사님이 막 저보고 아이고 착하네, 이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하게 됐어요(H)”

“그래도 안 좋은거 배워도 그냥 잘, 아빠 있을 때는 잘해주셨으니까 아빠 있는게 좋죠(J)”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니까 아빠는 평소엔 되게 착한데 화날 땐 진짜 무서워요. 화날 땐 진짜 따끔하게 혼내고 잘 하는건 진짜 칭찬 많이 해주고(L)”

(4) 중재조건 : 개인특성, 적응성, 특성, 대처자원의 제한

배경과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현상을 만드는 것들은 개인의 특성과 이들에 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그리고 대처자원의 제한을 들 수 있다. 대처자원의 제한은 외상적 경험에서 발생한 부정적 정서를 신체화나 행동화로 연결시키며 적응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부적응적인 통로로 향하게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욕구가 분명하고 주도적이거나 주장적인 경향과 운동선수생활을 했던 경우가 많았으며 (7/20), 호기심이 높았고, 온정성이나 배려심도 갖고 있었다. 온정성 등 친사

회적 성향으로 볼 수 있는 특성은 범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아니나 비행또래 형성이나 유지를 중재하는 조건으로 보인다. 같은 외상적 경험을 하더라도 은둔이나 사회적 위축의 내재화 장애만을 갖기 보다는 내재화 장애와 외현화 장애, 즉 품행의 문제를 동반하는 것이 이러한 친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어른들한테는 배려가 있거든요. 박스 할머니가 지나가면 울어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근데 그래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세상은 박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골려먹는 사람이 있나 봐요. 박스를 훔쳐간대요(C)”

“그럼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드신 거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이려고 모르는 사람한테. 아빠한테는 별로 예절, 이런 거는 보여준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어른분들한테도 계속 그래요. 근데 뭔가 모르게 나도 아팠던 기억들이 있듯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지금 늙어서 가지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픈 경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프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힘도 별로 없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볼 때마다 좀 마음 아프고. 나도 이렇게 될 것 아니까 그만큼 효도를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죽으시기 전에 먼저 내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K)”

“저는 그냥 할머니 편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할머니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는 편하게 돌아가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게 낫지. 이렇게, 이렇게...(눈물)...중략...전 재웠죠, 불쌍하니까. 이 추운 겨울에 어디를 가나, 재웠는데. 아빠가 개들 보고 나가라고, 나가라고(N)”

“그래가지고 엄마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 거 보면 진짜 화가 나요. 불쌍해서(R)”

특히 호기심의 경우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의 보고에서 모든 비행의 개시와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 언니들 할 때마다 옆에 있고, 옆에서 하면 궁금하잖아요, 해보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D)

“그냥 그 때는 그게 재밌었어요./범죄 같은 것도 재밌어 보였어요”(E)

“제가 본드, 본드 약물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해서 어찌다가 호기심에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쪽 골목으로 가면 뭐가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게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거기를 다 가봐요. 그래서 아니면 담을, 저기 담 넘으면 댄 데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넘어가서 봐요 무조건. 그리고 저는, 저는 예를 들어 여기 산 쪽에, 산이 있고 여기 또 무슨 돌이 담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만도로가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안가고 무조건”(F)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알아가지고 친구 한 명이 맨날 전학 가도 막, 얘가 온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맨날 오면 또 친구 한 명이 집에 가서 담배라는 걸 가져와서, 야 이거 한 번, 이거 뭐지 알아? 이러면 저희 호기심 있잖아요. 이거 뭐지 알아? 이러면 몰라 이러면서 애들이 막, 친구 한 명이 알려주면 저희는 똑같이 따라하고/열렸으니까 막 이렇게 운전대 옆에 거기도 열어보고 여기 옆에 보면 지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털래요. 그래서 제가, 제가, 오빠가 차 안으로 밀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거기 다 뒤져보래요. 그래서 네? 네. 이려고 열심히 했는데 돈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계속 다른 차 가서 막 연 다음에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H)

“제 생일에 친구랑 만났어요. 집에 갔었는데 친구 아는 오빠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같이 나왔어요, 심심하고 하니까”(I)

“술 먹고 그러다보니까 막 호기심, 술 먹으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사고 치게 된 거예요/딱 보면 막, 훔치고 싶다 라는 호기심이 생겨서”(J)

“막 초등학교 때 솔직히 호기심 많잖아요. 화장, 화장 그런 거는 하는데 술 담배 그런 거는 하지 않았던. 진짜 순수하게 놀았어요, 우리가 한 번 범행을 저질러 볼까? 이랬어요. 이번엔 땅을 보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게에 그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돈을 가져와볼까”(L)

“그때 호기심으로 한 번 오빠랑 막 친구들이랑 쫓았는데 그때는 담배의 담자도 진짜 싫었어요. 한 번 피우고 나서. 그래서 6학년 때까지 안 피우다가 중1때부터 다시 피웠어요. 저는 남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하기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 나도 해볼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막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한 번 하게 됐는데 그게 한 번이 막 여러 번이 되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돈 생기고” (O)

“노는 게 너무 재밌었고 막 좀 호기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좋았어요. 개네랑 놀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계속 즐겁기만 하고. 그랬어요”(S)

(5) 자기의 손상 : 자기가치감의 손상, 성격의 변화, 부정적 정서 발생, 정서적 혼란, 사고의 단순화, 접촉차단

계슈탈트 치료에는 ‘자기(self)’는 환경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라 유기체/환경의 상호관계에서 작동하는 ‘접촉기능의 체계(system of contact function)’이다. 자기는 매 순간 ‘변화하는 현재(transient present)’와 접촉하며 유기체의 적응을 돕는 주체이다(김정규, 2014; Jacobs & Hycner,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치심과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자기(self)는 환경과 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연구 참여자들이 보이는 자신을 포장하려는 행동이나 성격의 변화, 그리고 둔마된 감각들은 접촉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기(self)의 손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6) 미해결과제의 회귀 : 권력의 추구, 자기 손상감에 대한 대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 권력의 획득/자기 가치감의 손상에 대한 보상

개인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개인에게는 수치심, 죄책감, 소외감, 불안, 분노, 열등감 등 근원적인 핵심감정들이 반복적으로 미해결과제로 남게 되고, 개체는 유기체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하게 되며, 마침내 심리적·신체적 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자기구조(self-structure)’가 아직 공고해지지 않은 아동기에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만성적인 미해결과제가 쌓이게 되며,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김정규, 2014; Perls, Hefferline, Goodman, 1994).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기의 학대적 경험을 하였으며, 많은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미해결과제는 이들이 받은 상처와 관련이 된다. 보호받지 못했던 것과 존재적 수치심을 경험하였던 것, 지지받지 못하고 공감 받지 못하였던 상처들이 계속해서 지금-여기에서 나타난다.

한편 권력의 문제는 나약함과 열등감(inferiority)과 관련된 우월성 추구 노력(striving for superiority)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입장에서 살펴보면, 원형(prototype)의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발달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아동기의 경험에서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경우, 어려움에 압도되어 문제를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데, 무리를 이룸으로 해서 개인으로 느끼는 자신의 무능력과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게 된다. 아들러는 또한 개인만의 독특한 우월성

목표는 그가 처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부적응 행동은 그 개인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Adler, 2015. 신진철 편역).

(7) 반복회귀 게슈탈트 : 비행반복과정-권력의 문제, 비행반복과정-융합의 문제, 비행반복과정-부정적 정서의 대처, 비행반복과정-결핍의 문제

미해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전경으로 떠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배경으로 물러나지 못한 채 중간층에 머물러 있으면,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해결과제가 애정이나 관심과 같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과 관련되면, 그 미해결과제가 그의 삶에서 행동의 주된 동기가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비행반복과정에서 융합의 문제와 부정적 정서, 욕구충족, 힘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미해결과제가 생존과 관련되었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맴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해결과제가 반복되는 것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전경과 배경으로의 순환을 이룰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입은 자기에 대한 치유와 미해결과제의 해결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화를 결심하거나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 ‘자신을 믿어주는 것’, ‘자신을 잡아주는 것’,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등 특히나 자기(self)에게 필요했던 부분이고 치유를 위해서 공급되어야 할 것 들이다(김정규, 2014; Perls, Hefferline, Goodman, 1994).

(8) 유지된 성격특성 : 온정성, 긍정적 사고, 자공심

이들에게는 온정성과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며, 자기 파

괴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던 경우는 자긍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에 기질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이라고 지칭하였던 성격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다. 범죄행위 이론으로 정신병질자/사이코패스를 제창한 Hare(2009)는 사이코패스를 대인관계 차원과 정서적 차원에서 대표적인 징후로 들었으며, 대인관계수준에서 정신병질적 개인은 과대하고, 지배적이며, 피상적이고 조종적이라고 하였다. 정서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깊이가 없으며 공감과 죄책감, 반성의 결여를 들었는데, 이들은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들이 사회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초기 학령기에는 적응적 학교생활과 생활양식을 보였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비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던 시기에도 비행 또래와의 깊은 유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측은한 마음 등을 기술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정신병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았다.

표 8. 생성된 개념과 범주

	기본적 개념화		이론적 개념화	
	원천 개념의 추출(place, people, situation, event)	원천 개념의 범주화	심리학적 정보화	이론적 연계
1	이혼가정, 조손가정, 복합가정	가정의 해체	사회문화적 조건	배경
2	경제수준이 낮음, 비행이 있는 가족이 있음, 박탈감을 경험, 꿈을 잃음,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 욕구불만을 경험	불리한 사회문화적 조건		
3	개인적 공간이 없음, 열악한 주변 환경,	불량한 주변환경		
4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 심각한 가정폭력, 가정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 가족이 보호해주지 않음, 가족 구성원의 상실, 친구의 죽음, 성적학대, 가족의 부정을 알게 됨	외상적 사건 경험	복합외상	
5	방임, 유기경험,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		
6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수준이 심각함	신체적 학대		
7	언어적 학대,	언어적 학대		
8	과도한 통제, 이해받지 못함, 부담감, 무관심,	부적절한 훈육태도		
9	달래줄 사람이 없음	역기능적 가족관계		

10	왕따 경험, 배척당함	학교에서 또래의 배척을 경험		
11	학교의 배려로 학교를 유지하게 됨, 재학이 법적 조치를 안 받게 함, 학교중단과정, 학교유지를 원함	학교가 보호체계가 됨(긍정적, 부정적)	권위체계의 경험	맥락
12	편견어린 시선을 경험	낙인효과		
13	공권력에 대한 실망	법체계 경험		
14	가족에 대한 긍정적 기억, 부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임, 부의 상황에 대한 이해	가족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긍정적 권위체계 경험	
15	적응적 학교생활	적응적 학교생활	적응성	
16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 또래의 영향을 덜 받는 나이	연령에 따른 또래 영향력	연령의 영향	
17	사람을 좋아하고 상처를 잘 받음(사람을 쉽게 믿음), 타인에 대한 낙관적 태도	순진성	개인특성	중재조건
18	활달함, 성취 지향적 성향, 장난스러움, 운동선수생활, 적극적	남성성		
19	배려	온정성		
20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함, 의협심	이타적 성향		

21	혼자있는 것을 좋아함	독립적		
22	호기심, 신기함	호기심	특성	
23	유해한 물질로 스트레스를 해소함, 현실을 부정함, 혼자 놀기, 반대로 하기	부적절한 대처	대처자원의 제한	
24	수치심의 경험, 동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신의 가치에 대해 조건적인 기준을 설정, 자존심이 쉽게 상함	환경적 조건에 의해 수치심을 경험	자기가치감의 손상	자기의 손상
25	자신을 드러낼 기회의 부족, 존재에 대한 부정	낮은 자기가치감의 형성		
26	성격의 변화를 경험	성격의 변화		
27	외로움, 우울함, 행복의 박탈감, 배신감/분노, 적개심, 공허감, 무시에 대한 분노, 과도한 체벌에 억울함, 불안, 삶이 힘겨움, 분함을 토로함, 원망, 공포증/보호의 필요,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발생	
28	감정조절 어려움, 정서장애 경험, 양가감정	정서적 혼란	정서적 혼란	
29	사고가 단순함, 경계를 잘 안함,	사고의 단순성	사고의 단순화	자기의 손상
30	사람을 쉽게 믿고 경계를 안함	관계에 대한 단순성		
31	안 좋은 일을 쉽게 배움	가치판단이 약함		

32	감정이 둔해짐, 신체적 감각이 둔해짐	정서적·신체적 둔화	접촉차단	
33	조기일탈,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 비행친구, 소개로 친구관계가 넓어짐, 소개로 친구관계가 넓어짐, 어떤 친구인지 모르고 사귀, 센척을 하면 알아서 다가옴, 복수심	비행또래 형성	권력의 추구	미해결과제의 회귀
34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함,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음, 자신을 포장 함,	낮은 자기가치감에 대한 보상행동	자기손상감에 대한 대처(행동화)	
35	지나친 체벌을 인지하고 피함, 폭력의 합리화, 폭력을 합리화하고 내재화, 폭력경험에 대한 최소화,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폭력에 대한 당위성 부여	폭력을 합리화하기	자기손상감에 대한 대처(폭력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	
36	감정을 누름	부정적 정서의 억압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	
37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 박탈감으로 지위비행을 함,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함, 가출, 감정과 반대로 하기, 안 좋은 이	부정적 정서의 행동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행동화)	

	야기를 한 것에 화가 나서 때림			
38	부정적 정서의 회피, 스트레스 상황의 회피, 친구관계 의존, 스트레스 사건의 회피, 즐거움의 추구	회피적 대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회피)	
39	상호의존적 관계, 동감의 욕구, 친구에 대한 애정/의존적, 융합, 의존적 관계, 독립적이지 못함, 무조건적인 의리, 정이 많음/거절못함, 공감대로 위로/상처보듬기, 위로가 됨, 지지적 관계 욕구, 친구에 대한 긍정적 시각,	애정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상호의존적이 됨	융합	미해결과제의 회귀
40	두려움에 관계를 유지함, 권력욕구, 특별함에 대한 욕구, 힘의 과시, 계급의식, 허세, 권위의식, 무모한 책임감, 소외의 두려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음, 거짓말에 과민반응하게 됨	권력의 유지	권력의 획득/자기가치감의 손상에 대한 보상	
41	회복의 시간이 됨	자기치유	자기가치감의 회복	
42	착취를 당함, 이유 없는 폭력을 당함, 이용당함	힘에 희생당함	비행반복과정-권력의 문제	반복회귀 게슈탈트
43	이유 없는 폭력, 뒷담화로 폭력을 행사함	힘을 행사함		
44	가출이 범죄를 발생시킴, 안일한 도덕의식, 같이 있으면 행	비행친구와의 유대유지	비행반복과정-융합의	

	등을 같이 하게 됨		문제	
45	스릴을 느낌	긍정적 정서경험	비행반복과정-부정적 정서의 대처	
46	회피적 대처로 사건이 확대됨	회피적 대처로 사건이 확대됨	비행반복과정-회피적 대처의 문제	
47	욕구충족	욕구충족	비행반복과정-결핍의 문제	
48	배려심이 살아있음, 동정심이 있음	온정성	유지된 성격특성	
49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50	가려서해서 자긍심을 가짐, 자부심을 가짐	자긍심		

2. 비행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1) 비행의 내적과정

(1) 폭력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비행(폭력)을 참는데 성공한 경우의 생각 : 부모를 생각하며 범죄를 자제함, 처벌을 생각해서 범죄를 자제함, 부모에 대한 이미지로 범죄를 자제함, 친구에 대한 이미지로 범죄를 자제함, 부모에 대한 감정으로 범죄를 자제함, 자기 달래기

가끔 화낼 땐 무섭지만 평소에는 안심이 되는?/아무래도 아빠랑 사이가 좋을 땐 아빠 생각이 좀 많이 나죠. 안 좋으면 그냥 막 뭐가 좋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 생각하면 조금 자제하게 돼요.(A)

엄마랑 싸웠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벗어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딱 이렇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믿는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수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던/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엄마한테 제가 했던 잘못들이 떠오르고 막 엄마 혼자 울고 있을 그런 것 까지 떠오르면서/ 일단 엄마한테 너무 많이 미안했죠(B)

아무래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을 때는 그게 좀 심했어요. 이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도중에 사고를 치면 나도 어디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자제하게 되는?(A)

애가, 애를 되게 그런 면만 빼고는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 애를 놓치지 않으니까. 그런, 이미지?/그냥 아, 저걸 하면 한심해지겠다, 라는 생각해서/친한 친구인데 때리면 서로 어색해지니까 일단 말로 풀었어요.(C)

이번에 하면 경찰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서 안한 적도 있고/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애는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서 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D)

참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도 말리니까 애, 애, 부모님 생각도 했죠 솔직히. 학교 선생님 생각도 하고 저 엄청 많이 도와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참았는데(N)

엄마 생각이나요. 솔직히 내가 경찰서에 가도 엄마가 안와도 되는 상황이면 생각 안하고 이것 저것 다 했을 것 같아요(R)

부모에 대한 감정으로 범 죄를 자제하자 안정이 됨

많이 차분해졌죠.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B)

비행(폭행)을 참기 위해 한 행동

친구들한테 주먹 잡아 달라, 손잡아 달라, 이려고 이 상태로 얘기했어요. 나갈 것 같으니까 얘기하다가. 아, 나 이것 좀 잡아달라고.(C)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애가 하잖아요. 진짜 이걸 아닌 것 같은 행동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싫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G)

비행(폭행)을 참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

처음에는 좀, 이제 계속 화가 나요, 생각을 하면. 곱씹을수록 아,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계속 화가 나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면 참기를 잘 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A)

딱 처음에 그냥 때리지 말아야지 하고 참았어요. 때리지 않아야지 하고 참고. 그래, 니가 잘못했잖아, 이려고 이해로 풀었는데 못 때린 거에 화가 나있긴 했어요, 솔직히. 아 그냥 때릴 거라는 소리를 했는데 애들이 아, 너 별로 안 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때 뿌듯함이 딱 들었어요. 아 안 때리길 잘했네, 이려고.(C)

열은 받지만, 참았으니까 좀 열 받죠, 아무래도. 근데 그냥 참는거죠(G)

그때 화났을 때는 여기 뜨겁고(K)

비행(폭행)을 참을 때 나타나는 현상 1

화가 나가지고 자꾸 손이 막 움찔거렸어요.(C)

비행(폭행)을 참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 1

처음에는 계속 머리가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계속 잠자기 전에도 그 생각 들고 뭔가 꿈에서도 나올 것 같고 다음 날 일어나면 계속 그 생각나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참아요.(A)

비행(폭행)을 참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 2

배고프다(A)

안 하게 된 직후에는 이제 좀 마음도 가다듬어 졌고. 이제 좀,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가라앉은 상태라서 이런 저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딱 그 비행을 내가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거 부터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끔찍하죠. 그 생각을 하면. 제가 그때 그걸 했을 때 어떤, 나한테 처벌이 이렇게 벌어졌을까랑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까랑. 그걸 생각하며 아찔하죠.(B)

표 9. 비행과정(폭력을 자제한 경우)

	원천적 개념화	
인지	부모를 생각하며 범죄를 자제함, 처벌을 생각해서 범죄를 자제함, 선생님과 부모에 대한 감정으로 범죄를 자제함, 자기 달래기	의미 있는 타인, 결과 인식, self-soothing
이미지	부모에 대한 이미지로 범죄를 자제함, 친구에 대한 이미지로 범죄를 자제함	의미 있는 타인
행동	도움 요청, 언어로 표현	적응적인 대처

비행(폭행)을 하기 직전의 해석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지 잘못 모르고 막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지 잘못을 인정하면 그만이지. 우겨대고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개넌 인정을 안 해요.(C)

비행(폭행)을 하게 되는 순간의 생각

생각이 들지 않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사실 그 순간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A)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막 앞이랑 뒤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지금 상황이 닥친 것만 생각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하니까 그냥해요(B)

그건 뭐 화가 나거나 하지는 않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재가 잘못했다, 상대가 잘못했다/기억도 안나요. 화가 나면 솔직히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욱하면, 제가 원래 화가 나면 생각 따위 안 해요/아예 안 해요. 아니 생각 할 여유가 없어요. 애를 때리는 거에 집중해야 되니까(C)

무조건적인 분노

그냥 머리 속에는 애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으로 무조건 잡고 애를 때린거죠(N)

때릴 때는 내가 열 대를 맞더라도 내가 이 새끼를 한 대 때려야겠다(R)

무조건적인 의리

제 친구한테 뭐라 해가지고 때리는 거니까 그냥 나랑 상관이 없어도 때리게 돼요. 의리랄까(M)

비행(폭행)을 하게 되는 순간의 이미지

반복적 자극으로 인식, 권력의 행사, 심리적 상처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애가 알 수 있도록 나는 얘기를 해주는데 애는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찢러 보는 것 같아요. 계속 그 행동을 하면(G)

성격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개념 없다? 개념을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막 좀, 성격을 고쳐주고 싶었어요/못생겼다. 못생기고 좀 간죽거린다. 간죽거린다는 이미지(K)

애가 미쳤나/애가 날 만만하게 보겠지, 이 생각/내가 참으면 내가 병신 되는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D)

애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거? 내 얘기를 귓등으로 듣나? 그러니까 막 잘 참는, 제 성격이 원래 잘 참다가 한 번에 이렇게 탁 터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기억이 안나요. 그 상황이. 너무, 이게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요. 그럴 때 마다(G)

애가 진짜 언니들을 모르는구나. 언니를 높일 줄 모르는구나(K)

화나면, 아니 까짓년이 원데 날 화나게 하나. 이런 생각 들어요(O)

이미지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눈에 보이는게 없었어요(N)

이미지요? 엄마가 날 때렸던 순간? 그러니까 엄마가 때리는 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살 때리고 머리만 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발로 밟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눕혀놓고, 머리 꼬댕이 잡고 눕혀놓고 발로 밟았어요/그 언니 많이 안 때리려고 했는데 엄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엄마가 날, 날 때렸던 순간이. 그래서 아, 니도 맞아봐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때렸어요(O)

비행(폭행)을 하게 되는 순간의 감정

분노, 살기

화(A)

흥분하게 된 상태죠. 극도로 흥분한 상태(B)

이미 극도의 분노가 닥친 상태/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개념 인정을 안 해요(C)

말을 돌려서 하고 말이 바뀌면 화가 나오(D)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욱(G)

애가 욱을 하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렸죠. 한 대 때렸는데 애가 계속 욱을 하는 거예요(K)

그냥 화나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O)

막 죽이고 싶어요(R)

비행(폭행)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화가 나면 일단 잘 못 참고 하니까 주변의 물건, 손에 든 물건 같은 걸 부수긴 해도 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좋고 그러진 않아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포진 생기고 그래요.(A)

흥분하게 된 상태죠. 극도로 흥분한 상태.(B)

비행(폭행)을 하게 되는 순간의 행동

화가 나면 일단 잘 못 참고 하니까 주변의 물건, 손에 든 물건 같은 걸 부수긴 해(A)

말보다 일단 행동이 먼저 나가는데? 그런, 그렇게 돼요/일단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되니까 뭐라 해야 되지? 말보다 일단 행동이 먼저 나가는데? 그런(B)

저 진짜 그 때 개,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때. 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너무 흥분했으니까 막 여기 안에 막 유리조각 이따만 한거 들고 소주병을 깨뜨리고 들고 갔대요, 막, 제가/욱하면, 제가 원래 화가 나면 생각 따위 안 해요. 그런 게 아예 없어서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애를 때리든 말든, 애가

죽든 말든 그냥 죽어라 때려요. 경찰이 있대도. 경찰이 뜯어 말릴 때까지 엄청 때려요/친구들한테 주먹 잡아 달라, 손잡아 달라, 이려고 이 상태로 얘기했어요. 나갈 것 같으니까 얘기하다가/ 묶어서 때려요(C)

내가 참으면 내가 병신 되는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 하게 되는(D)

근데 손 떨림은 있었는데 별로 화났다는 느낌이 안 났어요(K)

저는 진짜 그냥 화나면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누가 말려도 그냥 뿌리치고 때려요(N)

폭행은 그 순간에 확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뭐라도 안 집어던지면 이 답답한 화가 안 풀릴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집에서 뭐 너무 화가 나서 뭐라도 집어던지거나 욕이라도 안하면 그게 안 풀려요(R)

비행(폭행)을 하게 되는 순간의 신체상태

후련하죠(A)

일단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막 이렇게 막 흥분이 되니까 뭐라 해야(B)

때릴 때 제가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참으면, 그런 건 있는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때리면 이제 손이 안 떨려요. 참으면 손이 막 떨려(C)

몸이 떨리고 막 열나요(G)

화가 나면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져요(N)

비행(폭행)을 하게 된 다음의 생각

결과인식과 합리화

다음엔 이러지 말자. 이런 생각.(A)

이제, 엄마, 일단, 일단 가장 먼저 경찰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시설이라든가 법정에 다시 서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럼 뭐 보호관찰 받으면서 야간전화,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죠.(B)

좀 후련하다. 고쳐질까? 애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또 맞겠지?(K)

비행(폭행)을 하게 된 다음의 감정

후회

화-저지르고 난 다음엔 화는 풀려서 괜찮은데 그래도 후회(A)

아 좇됐다, 진짜 내가 미쳤나? 이러고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참을 걸, 아 내가 이럴 걸 알면서 왜 그랬지? 이러면서 후회를 해요(D)

하고 나서는 이제 후회도 되고 좀 그래요. 그래 갸 맞아도 싸, 이런 마음이 있고, 아 그때 왜 그랬지 한번 더 얘기할 걸이라는 마음도 반반(G)

두려움

일단 막 불안하죠/비행을 저지르고 나서는 일단 지르고 보긴 하는데 질렸을 때 그 다음에 일단 화가 추슬러지잖아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막 몸이 막 오들오들 떨리죠. 그 다음에 어떤 대가가 올지 대충은 예상이 가니까 무섭죠. 많이 무섭죠(B)

불안해져요, 걸리면(D)

기분이 상승됨

더 활발해져요. 때리고 나면/막 으쌰으쌰해요. 기분이(C)

참지 않고 했을 때 한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R)

죄책감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미안해 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도, 나도 엄마아빠한테 많이 맞아 봤잖아요.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K)

여전히 분노가 경험됨

감정은 그냥 뭔가 그냥 더 화나요(N)

막, 때렸는데 후련한 게 아니라, 후련도 했는데 뭔가 더 화나는 거 있죠. 멀쩡하니까. 나는 그때 울고 그랬는데. 울지도 않는 거예요, 맞았는데도.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더 화가 나서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또 때리고 그랬어요(O)

비행(폭행)을 하게 된 다음의 상태

그래도 좀 후련하죠.(A)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부터 들죠.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도망부터 가야겠구나. 아직 덜 진정 된 상태니까. 만약에 완전 차분하게 진정 됐다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마땅한 벌을 받아야 겠구나 생각이 들텐데 아직 덜 진정 된 상태에서 아, 내가 이걸 저질렀어, 어떻게 하지? 그 바로 앞에 것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우니까 도망가게 돼요.(B)

더 활발해져요. 때리고 나면... 막 으쌰으쌰해요. 기분이.(C)

표 10. 비행과정(폭력과정)

	기본적 개념화	
생각	생각이 들지 않음, 무조건적인 의리	사과의 정지, 자기가치감의 문제, 융합
정서	분노, 살기, 초초무조건적인 분노,	적개심
행동	행동이 먼저나감, 막 함, 손 떨림, 참다가 이야기를 함,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음, 물건을 던짐	분노의 행동화, 분노의 통제를 시도함

이미지	반복적 자극으로 인식, 힘의 행사, 심리적 상처	오지각, 권력의 행사, 외상
신체상태	해소, 열이 남, 손 떨림	신체적 반응
이후의 인지	가족과 결과에 대한 생각, 폭력의 합리화	결과인식, 폭력합리화
이후의 정서	후회, 두려움, 기분의 상승, 죄책감, 여전한 분노가 경험됨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정체
이후의 신체상태	분노의 신체화, 진정	분노의 신체화, 해소

(2) 절도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비행(절도)을 참는데 성공한 경우의 생각

하면 일 커지잖아. 이렇게(F)

친구 한명이 그때부터 이렇게 막10호 이런데 들락날락했는데 나도 설마 저런데 가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보면, 나 재처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H)

부모님, 부모님이랑 가족 생각하면서 참았던 적 있어요(J)

내가 지금 이대로 쭉욱 비행을 저지르면 내 자신이 망가지겠다. 앞으로 내 앞날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단 했었던 것 같아요(L)

또 이렇게 저지르면 나만 또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부모님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 보여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N)

내가 이대로 가면 이제 완전, 이제 끝나겠구나. 조사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엄마도 이제 호적에서 나를 팔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아, 이제 내 인생 더 망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멈춰야겠다. 이 생각으로(O)

이건 아니다 싶어서(P)

비행(절도)을 참는데 성공한 경우의 이미지

1년 동안 엄마 못 본다는 게 싫어가지고 그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더하면 10호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끔씩 생각했는데 범행할 때. 네, 그때 진짜 정신 차린 것 같아요/제가 뒤에 갇혀 있어요. 근데 못 빠져 나와. 그리고 거기 아무도 없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10호가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그래서 너무 떨리고 막, 나, 막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H)

부모님. 어, 제가 가족들에게 피해주는 이미지(J)

유독 내가 아는 선배들이랑 내가 아는 친구들은 심사원에 들어가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그런게 있었어요. 나는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 나는 진짜, 제가 원래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았어요. 핸드폰 중독이었어요. 핸드폰 없으면 나는 저기 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L)

내가 행복했었던 순간들? 그냥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밖에 없었죠(O)

그리고 나서 집에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백만원이었던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거 걸리고 나서는 이젠, 이제 차는(S)

만약에 제가 여기서 또 훔치게 되면 이런 소년원이나 000말고 더 큰 교도소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꾸 범죄를 저지르면 저도 이제 범죄자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에(T)

비행(절도)을 참는데 성공한 경우의 감정

참기 보다, 귀찮아서. 안했다고(F)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한동안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려고 있다가,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돈쓰는 건 되게 좋았는데 막하니까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하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H)

슬펐어요(J)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N)

매우 불안했어요. 그냥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지. 집도 없이 이제 어떻게 살지(O)

사고가 나니까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S)

비행(절도)을 참는데 성공한 경우의 신체상태

제가 뒤에 갇혀 있어요. 근데 못 빠져 나와. 그리고 거기 아무도 없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10호가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그래서 너무 떨리고 막, 나, 막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H)

신체상태는 똑같고(L)

비행(절도)을 참는데 성공한 후의 감정

자수하고 전 뭔가 후련하긴 했어요(H)

뿌듯함(J)

내가 이걸 중단했으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좀 뿌듯했었어요(L)

애 네들이 잡혀 가니까 자기 벌 받고 그럼 좀 안심이 됐어요/제가 잘, 제 자신이 어쩔 땐 만족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N)

안 하길 잘했다(P)

내가 절도를 참았어요. 근데 엄마랑 싸웠어, 엄마가 지랄했어요. 그럼 내가 괜히 참았다 싶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사고를 안쳐도 엄마가 이렇게 지랄을 하는데 내가 그걸 해서 다를 게 뭔가 싶고. 만약에 다른 친구가 그걸 해가지고 곧 재판을 본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아 참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정말 돈이 없으면 아 그때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이 생겼으면 아 그런 걸 안 해도 이렇게 돈이 생기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R)

비행을 안 했을 때는 안도(T)

표 11. 비행과정(절도를 자제한 경우)

	기본적 개념화	
인지	결과에 대한 인식,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가족의 염려	결과인식, 의미 있는 타인
정서	귀찮음, 슬픔, 두려움, 죄책감, 불안	분노, 슬픔, 죄책감, 두려움
이미지	차별과 구속, 가족, 행복했던 순간	결과에 대한 인식, 회한
신체상태	변화 없음, 떨림	반응 없음, 긴장
이후의 감정	뿌듯함, 개운함, 자긍심, 안도감, 상황에 따라 다름	자부심, 결과의존적 감정

비행(절도)을 하게 된 경우의 생각

욕구로 인한, 무시를 안 당하기, 자포자기, 생각 없음

그냥 내가 이게 필요해서/아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라는 생각(F)

하면 되지 뭐, 이런 거(H)

그냥 아무 생각 없이(J)

내가 왜 이걸 지금 중단하지 못하고 왜 계속 하고 있지?(L)

친구가 하나까 안 하기에 뭔가 좀 낱 볼 것 같은 느낌(M)

뭐, 저는 감별소 같은데가 있는지도 몰랐고 재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조사만 받으면 끝나겠지(O)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시 또 재판을 보겠지만 가면 가는거지 그냥 체념을 했던 것 같아요(P)

걸릴게 뻔한데 할까 말까 하다가 맘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S)

처음에는 애들 배가 고프니까 애들 생각으로 훔쳤는데(T)

비행(절도)을 하게 된 경우의 감정

신기함, 스릴, 두려움, 유대, 화남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계속 다른 차가서 막 연 다음에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H)

그냥, 하고 싶다. 그냥하고 싶다(J)

스릴이 넘치니까(M)

애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아, 슈퍼 털자 이러면 아 싫어, 이러면 아, 가자, 애들이. 그러니까 무리지어 있는데 나만 혼자 빠질 수가 없잖아요(O)

일단 무섭죠. 남의 것을 건든 거니까. 일단 무섭긴 무서웠어요. 그리고 무섭고 좋았어요. 갖고 싶은걸 살 수 있었으니까. 먹고 싶은걸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데가 이제 생기고. 그건 좋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L)

처음에는 돈이 생기니까 막 좋은 생각도 들고 되게 신났는데(M)

그냥 화나요(T)

비행(절도)을 하게 된 경우의 이미지

나도 이제 학교도 가고 평범한 애들처럼 집에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가고. 이러고 싶은데 왜 난 그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까(L)

좀 무섭기도 하고 안 되는 거 아는데 일단은 저는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잘 데도 없었고 배도 고프니까. 그냥 하자 이런, 그런 것 만했어요(M)

애들 배가 고프니까 애들 생각으로 훔쳤는데 딱 애들이 과자 먹을 때 저는 옆에서 보고 있거든

요(T)

비행(절도)을 하게 된 경우의 신체상태

막 찌릿찌릿해요(F)

아, 내가, 뭐지? 저는 그냥, 뭐지?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려고 있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돈이 나오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H)

떨린다? 온몸이 그냥 막 떨린다(L)

비행(절도)을 하게 된 경우의 행동

오빠들이 시킬 때만하고 안 시킬 때는 옆에서 망보고 그랬어요/되게 남자 같았는데, 건성건성해서(H)

저도 모르게 손이(J)

옆에서 막 도와준게 아니라 그냥, 좀, 만약에 이쪽에서 절도가 일어나면 저는 저쪽에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M)

비행(절도)을 하게 된 후의 감정

후회, 죄책감, 두려움

하고 나서? 어. 안걸리겠지? 이렇게(F)

아 망했다 이려고. 와, 완전 떨리는데. 친구가 잡고 도망가는데 그때부터 심장 벌렁벌렁벌렁. 근데 이거 털다가 경찰서 가면 아, 망하는데 이려고. 부모님은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도망가고 막, 더 도망가고 싶고 이 세상 그냥 뜨고 싶었어요(H)

하고 나서요? 당연히 후회스럽죠. 하고나서는(J)

온몸이 그냥 지쳐 있었어요. 걸기도 싫어지고 뭐 먹기도 싫어지고 이렇게 지쳐 있었어(L)

그러니까 잘 곳도 생기고 갑자기 밥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좋죠. 그런데 돈이 점점 사라질때마다 막 무서웠어요. 그리고 막 지속적으로 행복한게 아니라 막 숨어다녀야 되잖아요,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그런 것도 되게 두렵고 무섭고(M)

뒷일을 생각 안하고 생각 없이 행동했다가 후회한 적이 많아요(O)

남자친구만나면서 내가 왜 그런 비행을 저질렀을까. 그게 많이 후회됐었어요(P)

사고가 나니까 이제 하면 안되겠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S)

내가 왜 훔쳤지?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고(T)

표 12. 비행과정(절도과정)

	기본적 개념	
인지	욕구로 인한, 무시를 안 당하기 위함, 자포자기, 체념, 생각 없음	욕구, 권력유지, 체념, 사고의 단순화
정서	신기함, 스틸, 유대감, 화남	호기심, 융합, 긍정적 정서의 발생
행동	수동적으로 함, 적극적으로 함	실행(능동, 수동)
이미지	자신의 처지, 생존을 위함,	욕구지향
신체상태	전율, 긴장	긴장의 상승
이후의 정서	후회, 죄책감, 두려움	부정적 정서

(3) 비행-약물-과 관련된 과정

처벌에 대한 인식, 호기심, 중독 양상

내 입에서 냄새가 나서 알거나 보호관찰을 갔는데 소변검사를 해서 알게 되거나 뭐 어찌다가 그 물건이 발견돼서 걸리거나/제가 본드, 약물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해서 어쩌다가 호기심에 했거든요(F)

이제 막 없으면 안 될 것 같고/불안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안하면 미칠 것 같다, 오늘 나는 잠 못 자겠다, 이거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꼭 해야 돼요/몸이 막 떨리죠. 화나고/ 막 그냥 덥고 화나고 막. 그래요 그냥. 소리 지르고/이제 다 풀려요. 예민했던 거랑 화 났던거랑 다 풀리고 다시 이렇게……./그때는 한 번도 후회 해 본적이 없어요(D)

(4) 비행-성매매-과 관련된 과정

자기가치감의 부족, 호기심, 수동적 비행(성매매), 융합, 욕구의 충족(금전), 권력의 획득

이번에 하면 경찰서 갈 것 같다/친구들이 별로 격하게 강요하지 않아서 안 할 때도 있었어요./ 편안한 상태? 개운한/지금 돈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고 하면서 안 할 /별 느낌 없었는데. 그냥, 범죄를 안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집을 더 가게 됐던 것 같아요/일단 그걸로 며칠 놀 수 있겠지/빨리하고 빨리 쉬고 싶다/몸이 지쳤어요/들킬까 봐도 무섭고/잘데가 없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맨날 이 짓거리 하고 새벽에 돈 벌고 낮에 자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E)

귀찮고 개네 만나, 만나고도 맨날 길바닥에 있고 별로 하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안 나갔어요/귀찮아서 안 나간 거/개네 딱 사고 쳤다고 들었을 때 안 나가길 잘했다/감정은 그냥 할때는 살짝 좀 두려운 /하기 전에 무슨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그냥 애들이 하나까/왜 했지(I)

참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돈을 이제 악착같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한 거잖아요. 아, 내가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해야겠다./아무 감정 없이 그냥(O)

저는 남자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하기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 나도 해볼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막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번, 한번 하게 됐는데 그게 한번이 막 여러 번이 되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돈 생기고(O)

이 과정에서 비행의 통제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폭력의 발생과 통제 요인

폭력의 실행	사과의 정지, 자기가치감의 문제, 융합, 권력의 행사, 오지각, 외상
--------	--

폭력의 통제	의미있는 타인, 결과인식, self-soothing, 적응적 대처(대화, 도움요청)
--------	--

표 14. 절도의 발생과 통제 요인

절도의 실행	욕구, 권력의 유지, 사고의 단순화, 긍정적 정서 발생, 융합, 호기심
절도의 통제	의미있는 타인, 결과인식, 부정적 정서의 발생(분노, 슬픔, 죄책감, 두려움)

표 15. 성매매의 발생과 통제 요인

성매매의 실행	인식의 부족, 융합, 호기심, 욕구의 충족, 권력의 획득
성매매의 통제	결과인식, 부정적 정서

각각의 비행별 실행조건과 통제조건을 정리한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범죄에 따라 다르긴 하였지만 자기가치감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가 동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서적 경험이 부정적일수록 통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결과인식의 경우에는 각 범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표 16. 비행의 위험 요인

비행	위험요인								
	사고 (정지, 단순화)	자기 가치감	융합	권력	왜곡	외상	욕구	긍정적 정서	호기심
폭력	○	○	○	○	○	○			
절도	○		○	○			○	○	○
약물		○					○		○
성매매		○		○			○		○

표 17. 비행의 보호요인

비행	보호요인				
	의미 있는 타인	결과인식	적응적 대처	self-soothing	부정적 정서

폭력	○	○	○	○	
절도	○	○			○
약물		○			○
성매매		○			○

이러한 결과를 다시 종합해보면, 범죄의 실행조건에 사고의 정지와 단순화가 폭력과 절도에 작용하였으며, 자기 가치감의 문제는 폭력과 약물, 그리고 성매매에 위험요인이 되었다. 사고의 정지와 단순화의 문제는 비행 여자 청소년들이 그들의 접촉경계, 즉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직접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료 프로그램에 개인의 접촉경계를 건강하게 하고 환경과 건강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 가치감의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특히 자기 파괴적인 범죄인 약물이나 성매매를 발생시키므로 치료에 자기 가치감의 향상을 고려하는 것이 피해자 없는 범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한편 융합은 폭력과 절도에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융합적 관계의 치료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자기주장훈련이나 사회기술훈련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이러한 훈련에 ‘거절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권력의 문제는 폭력과 절도, 성매매의 위험요인이 되었으며, 이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열등감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즉 특기 개발이나 능력의 개발을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왜곡과 외상의 경험은 심리적 상처에 기인하는 것인데, 특히 폭력에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여성 범죄자나 여자

청소년 비행의 강력화가 증가하는 것은 곧, 외상적 경험을 경험하는 개인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가정 내에서 폭력과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나 폭력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욕구의 경우는 절도와 약물, 성매매의 위험요인이며, 연구참여자들의 욕구 좌절경험과 관련이 된다. 이 결과는 긴장이론과 복합외상으로 인한 증상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발생에 의한 긴장 발생, 그리고 복합외상으로 인한 행동조절의 문제가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행 예방을 위해 외상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는 것이 자기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긍정적 정서와 호기심은 절도, 성매매, 약물관련 범죄에 모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건강한 긍정적 정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범죄를 통하여 긍정적 정서와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 경험의 결핍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상적 경험에 의한 접촉경계혼란과 관련이 될 수 있으며, 접촉경계를 건강하게 하여 긍정적 정서경험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

다. 한편 범죄의 보호요인으로 의미 있는 타인이 폭행과 절도에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의미 있는 타인은 가족, 친지, 친구, 자신을 존중해준 어떠한 개인이라도 가능하였다. 결과인식의 경우에는 폭력, 절도, 약물, 성매매에 모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처벌을 경험하거나 주변인들의 법적 처분을 목격한 경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범죄를 제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이 사고의 단순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처벌이 강력한 인상을 주고 규범의 습득을 하게 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의 경우는 절도와 약물, 성매매를 제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

었는데, 정서의 분화와 정서적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부정적 정서의 경험과 범죄를 연합시킨다면 범죄를 예방하는데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변화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1) 변화의 동기

: 가족, 중요한 타인, 목표의식, 친구, 인식의 변화, 사고하게 됨, 기관입소, 결과인식, 후회

가족

아빠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1,3,5호 받고 나왔을 때- 아빠가 많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저도 많이 속상했어-우리 아빠는 나보다 몇 십 년을 더 살았는데 나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더 적게 힘들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많이 어리광을 피웠구나 라는 생각-내가 적어도 아빠를 걱정시키지는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A)

부모님이 두 분 다 그렇게 울면서 달려오실 줄은.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라서 수술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부모님이 안 오시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울면서 들어오시면서 막, 이렇게 막. 저를, 저는 당연히 혼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혼나겠지? 혼나겠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와서 안아주시고 괜찮았냐, 아프진 않았냐, 뭐 이런 것부터 물어봐주시니까 많이 그때 이제, 아,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B)

제가 가출하고 했는데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밤새우고 막 그걸 하니까. 한동안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고 있다가,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돈 쓰는 건 되게 좋았는데 막 하니까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하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제. 너무 하다보니까(H)

제가 또 재판을 보고 이런데, 소년원이나 이런데 들어오면 엄마가 많이 힘들고 그러고 저도 후회스럽고 그러니까.(J)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연락이 왔었던 말이에요. 아프다고. 그래서 딱 병원엘 갔는데 엄마가 막 입원해 있고 응급실에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얼굴은 막 반쪽 되 어가지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막 엄마 탓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었는데 그게 내가 비겁하고. 그냥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엄마 탓이다 이렇게 하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랬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P)

엄마한테 진짜 너무 미안했고 진짜 나가면 잘 해야겠다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후회되고(S)

친척오빠를 저희가 몇 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일 년 만에 만나는 거여서 친척오빠랑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친척오빠가 ??2546 사고치지 말고 제발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한테 말 하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남는 거예요(T)

중요한 타인

할머니도 저 때문에 경찰서 가시고 쓰러지시고 그래서 다음부터 경찰서 안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범죄 한 게 없었어요.(E)

그냥 그 선생님이 있으면 잘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느낌만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간단하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다른 길로 안 세계. 그거, 그거 잡아주고.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생각, 생각 바꾸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F)

할머니랑 사이를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랑도 많이 가까워져야 될 것 같고. 그 리고 집을 이사하고 싶어요.(I)

제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하늘나라에 계 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참고.(J)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착한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이제 그 착한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기 싫었어 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폭행도 안 하고 그냥 먼저 때리면 때린다? 아니면 때리면 맞고 합의금 받는다.(K)

아무리 나쁜 쪽으로 빠져도 나쁜 선배가 있고 나쁜 친구들이 있으면 한 편으로 좋은 친구가 있고 충고해주는 선배들이 있어요. 나를 되게 아끼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언니들이 아, 유진아 너 내가 되게 아끼는 동생인데 왜 자꾸 나쁜 길로 빠지냐, 차라리 내가 돈 주겠다, 범행을 저지르지 말고 이걸로 먹을 거 사먹고 이걸로 자라,(L)

목표의식/육구조절

구치소에 있을 때 진짜 다짐했거든요. 지금 나가서 애들하고 다 연락 끊고 진짜 나는 검정고시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가갖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까지 다 짜놓았는데(B)

애 말고 이제 계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내 장래희망도 있고 이제, 검정고시도 합격했겠다. 애견자격증도 따야 되겠다, 나가서 동생이랑 언니도 챙겨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없어서 비행은 개별(C)

일단 목표. 그냥 좀. 작년? 작년 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그냥 딱 정신차려보니까 진짜 이제 성인이예요. 난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애견미용 시작하고 나서 좀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이게 그냥 목표가 생기니까, 제가 원래 끈기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꼭 이거는 해야만 한다, 이런 게 생기니까 그냥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뭐 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G)

나가서 생활 잘하기 위해서 지금 저랑 스스로 약속한 거는 공부. 일단 공부랑 나가서 어떻게 할지의 계획.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 맨날 쓰는 거. 그런 거. 원래 저 일기 쓰고 그런 거 싫어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일기 쓰게 됐어요. 맨날 쓰고 있어요.(L)

여기서 더 느꼈던 게 이제 저희가 슈퍼스타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 그 어떤 남자 분, 선생님, 멘토? 맞아. 멘토쌤. 그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한 거죠. 우리 다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꿈도 갑자기,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꿈은 딱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죠.(Q)

친구로 인해 마음을 돌이킴

그냥 남친이 하지말자 해서. 그냥 다음부터 하면 진짜 안 본다 해서 그때부터 안 했던 것 같아

요.(E)

친구, 한 명, 여자에. 00.(H)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게 밖에선 그걸 몰랐죠.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소중한다는 걸 알았죠(D)

그 때는 저도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지금은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요. 예, 감혀서 사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해서 음식점 가서도 안(쪽) 자리에 안 앉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감혀 있으니 진짜…….(E)

티비 같은 데서 보거나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막 돈도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꾸리는데, 나는 여기 안에서 뭘 꾸려요. 자격증도 따고 그러는데 그 자격증 나가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따서 내가 성인이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만두 가서 돈을 벌면 내가 누구 도움 필요 없이 나 혼자 버는 거잖아요, 일해서. 그게 하고 싶어갖고, 나는.(F)

가족. 그리고 학교/저랑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이번에 한 번 그만뒀으니까, 같은 학교를 복학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그만두는 일 없게 하고 무조건 학교 가서 뭘 하든 졸업은 꼭 하자, 이런.(G)

내가 저거 하면 안돼, 하면 안돼, 이러는데. 친구가 야, 해도 돼, 어차피 돈 나오는데 니도 쓸 거잖아, 이래요. 야, 우리 이제 오늘은 하지 말자 그랬더니 친구가 왜 그러내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 하지 말자, 이것 까지, 나 여기서 빠질게, 그래서 중간에 빠져서 도망 와서 경찰서에 갔어요. 제가 솔직히 다(H)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엄청 힘들게 사는 거지? 왜 나는 가족이랑 못 사는 거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게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나는 그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I)

인식의 변화

나한테만 해로운 거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다 계속 이 생각했죠. 그러다가 여기 와서 느낀건데 그게 보면은 되게 큰 잘못이더라고요.(D)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생각이 있고 하니까, 내가 가족이랑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I)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나가서 담배 피야지, 핸드폰 해야지, 놀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젠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왜 나가서 놀 생각만 할까? 왜 나가서 나에게 대하여, 나의 꿈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왜 놀기 바쁘지? 한심해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고 여기 와서 많이 반성하고 고쳐야겠다, 그래서 계획부터 짠 적이 있어요.(L)

자기주장이 너무 딸려요. 그래서 남이 하자는 대로 이끌려 가는? 그래서 여기서 좀 그런 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하고 그런 거.(O)

엄마가 그냥 단순히 감기나 이런 거였으면 그때까지도 엄마 탓만 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 엄마가 신장 아프고 하혈 하고 그랬었던 말이에요. 그거 이제 보고서 정말 같이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P)

장래를 생각하게 됨

여기 스물한 살 짜리 언니도 있었거든요. 아,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저 사람들처럼 저 나이에 여기에 들어오겠다. 밖에서 한참 일하고 그럴 나이에, 공부할 나이에 이런 데 오겠다, 라는 생각이랑 난 커서 뭐가 될까? 내가 커서 과연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가족한테 빌붙고 막 그럼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런 걱정이 되면서 점차 괜찮아졌는데. 다, 다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는데 계속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D)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G)

제가 이걸 하면 이게, 친구 한 명이 그때부터 이렇게 막 10호 이런 데 들락날락 했는데 나도 설마 저런데 가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보면, 나 재처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나 소년원 갈 것 같아,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여자에 한 명 있는데 개도 동네

에 포함 하는데 사고 안 치는 애예요. 개가 막 야, 너 소년원 같은데 아냐고 그래서, 아니? 몰라? 이러면서 제가 그때도 막 범행 저질렀는데 개 말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 나 10호 가겠다, 1년 동안. 개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너 엄마 못 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H)

딱 6개월 됐을 때는 내가 6개월이라는 기간이 됐으니까 사회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 난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안 된다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화가 났었는데 6개월 연장하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I)

재판 보고 막 이런, 심사원이나 이런 곳 들어오니까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J)

거기 있을 때도 시 읽는데 사랑 얘기 나오고 막 이런 내 자신에 대한 그걸 다시 알아보고 일기 쓰고 이러니까 옛날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막 좀 생각이 많이 바뀐다해야 되나 그게?(Q)

행동의 결과를 알게 됨(기관입소)

여기를 와서. 여기를 오니까 아, 안되겠구나 6개월은 아니다 싫어요(C)

그게 밖에선 그걸 몰랐죠. 근데 여기와서 내가 소중한다는 걸 알았죠(D)

아무래도 밖에 있을 땐 놀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친구들 만나고 놀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혼자서 생각할 시간도 많고 그냥, 상담 이런 것도 하고 배우는 것도 있고 하니까 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G)

이번에. 이번에 여기 와서. 여기 오길 잘한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처음엔 이제 싫었죠.(K)

근데 00 언니라고 있잖아요. 00 언니 얘길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바꿔서.(L)

여기 들어오니까,(M)

지금 여기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O)

저 여기 들어와서.(S)

차별의 두려움(결과인식)

여기를 와서. 여기를 오니까 아, 안 되겠구나 6개월은 아니다 싶어요(C)

여기 또 오기 싫어서(F)

옛날엔 비행해도 안 걸렸었으니까. 걸리고 나니까 ??03:43 난 벌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I)

유독 내가 아는 선배들이랑 내가 아는 친구들은 심사원에 들어가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 나는 진짜, 제가 원래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았어요. 핸드폰 중독이었어요. 핸드폰 없으면 나는 저기 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나는 진짜 안되겠다. 나는 더 이상 사고 치면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L)

여기 안 들어왔으면 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6개월 생활이 나가서는, 나가서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애들이랑, 재들이랑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힘든, 이 6개월을 나가서 떠올리면 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 여기서 지냈던 6개월을 떠올리면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O)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재판을 받아가지고 9호를 간 적이 있어요, 6개월. 근데 왜 이번엔 또 사고치면 6개월 갈 것 같고 막 6개월이 아니라 이제는 2년 갈 것 같고 무서운 거예요. 다시 재판 보기도 무섭고. 그래서 안 해야지 이랬는데 또 하게 돼서.(P)

극단적인 상황에서 후회하게 됨

제가 가출했을 때요 가출한 애들이랑 한 번 제가 성매매 그런 걸 하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집 놔두고 나오니까 진짜 개고생이다. 그때서부터 진짜 부모님 말을 걸. 왜 내가 여기 나와서 이런 짓 하고 있을까. 근데 하지는 않았고 이런 거를 왜, 이런 짓

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후회했을 때도 있었어요.(N)

(2) 변화의 장애요인

: 주변 친구, 생각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독, 낙인효과, 즐거움의 추구(부정적 정서의 회피), 가족관계 문제, 잡아주는 사람이 없음

주변 친구

내 주변엔 그런 애들밖에 없잖아요. 사고치는 게 당연한 거고 부모님 말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집에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나를 가만히 두질 못 하더라-걱정을 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개 네랑 같이 만나면 나는 또 사고를 치게-일단 모여 있으면 사고를 치니까(A)

또 들어왔어요. 그게 어려워요. 지금까지 정든 애들을 다 찢르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진짜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애들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B)

불량교우가 제일 어렵죠, 솔직히. 나 혼자 있어 봐요. 나 혼자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불량교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혼자 방에 가둬 봐요. 지 혼자 막 방을 부수고 그러는지.(C)

다 옆다리 건너건너 아는 사이니까. 끊으면 또 건너편도 끊어지고 건너편을 끊으면 또 건너편도 끊어야 되고. 이제 내 옆에 붙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착한 애가 있어도 내가 개를 데리고 다니면 개를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나쁜 애를 끊으면은 또 다른 애가 있고 또 개를 끊으면 또 다른 애가 있고, 또 내 옆에 있어줬던 애도 끊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 그러다보면 나는 또 더 힘들겠죠(D)

선배들 연락. 그리고 돈이 필요한데 없으면 하게 돼요.(E)

걱정되는 부분이요? 만약에 제가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못 하겠다 하고 이렇게, 좀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사회에 있을 때 했던 것들. 근데 나가면 또 슬금슬금 기어 나올 것 같아요.(G)

저 친구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10년 친구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개네 보면 또 오빠들이 불러오고 이제 그 오빠들이. 그 오빠들이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교도소 갔다 온 오빠들도 있는데. 그 오빠들이 한 번 했으니까 계속 꼬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H)

주위환경? 친구들 때문에(I)

친구들이 그냥 야 나와 이러면 무조건 나가는? 내 의사도 없이 나오려면 나가는. 그러니까 제 의사를 좀, 여기서 또 더 의사를, 제가 좀 거절을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O)

일단 정신을 차리려면 그 친구들을 다 끊어야 되고 엄마가 하,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할 거고. 내가 솔직히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친구 담배 이런 건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할 거고.(R)

친구들도 되게, 제가 친구들을 진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짜 막 친구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친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다보면.(S)

자꾸 밖에만 이렇게 낮이니까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밖에만 있으니까.(T)

생각의 부족

아직 어려서? 생각이 어려서? 노는 게 좋으니까? 그쪽에다가 신경은 못 쓰는 것 같아요.(B)

그냥 조건사기라고 하는 게 그냥 돈 들고 도망가면 바로 20, 30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잡는 게 어렵지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계속, 돈, 그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 10만원만 더 있으면 이거 더 살 수 있는데 10만원만 더 있으면 지갑 살 수 있는데 이런 욕구가 생기니까 아 그냥 계속 해야 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 돈을 채워나갈라고 하니까.(E)

막 마음속으론 내가 진짜 학교 가기 싫을 때마다 지금 이 감정을 생각해서 꼭 가야지, 이런 의지는 있는데 또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학교 가지 말고 뭐 하고 뭐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막 어, 그럴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G)

경제적 어려움

누구로 인해 내가 방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너무 잘해서, 막 호기심이 많으니까 아 나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래요, 내가. 그래서 하러 가다가 이제, 그때부터 끝나요. 한 번 하면 계속 하니까.(F)

돈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없어, 대학교는 어떻게 가지? 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데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좀, 아픈데도 계속 이렇게 배타면서 무억 그런 거 한 단 말이에요, 보따리장사.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있어야 사니까.(I)

저 아빠가 말해주신 게 있어요, 저한테. 너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면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그랬어요.(J)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랑 얘기 하면서 잘 살긴 하는데 좀 돈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K)

지금 엄마가 일을 그만 둔 상태란 말이에요. 아파서 일을 그만뒀는데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엄마 일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이제 내년이면 성인인데 그렇다고 막 집에서 땡가땡가 놀 수도 없고. 그냥 뭔가... 제가, 엄마가 아프니까 일 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일을 해서 엄마한테 생활비라도 조금 드려야 되는.(P)

돈 문제. 돈 문제도 있겠죠. 돈이 좀 있어야 제가 하고 싶은 걸 조금이라도 하고(Q)

중독

중독 약물.(D)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직장을 못다니면 돈도 못 벌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움이 될 것 같아(J)

낙인효과

제 친구들 중에 자퇴한 애들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다 그래요. 선생님들 시선 때문에, 다른 학

부모들 시선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날 깔봐서? 이런 거? 이런 이유예요, 다. 선생님들이 그래, 니가 그렇지 뭐……. 나는 진짜 아닌데 만(B)

나는 되게 위아래 정하고 떨구고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잘 지내는데 애들은 막 몰라요, 나를 좀 인식을 그렇게 했나봐요. 애는 좀 무서운 애 이렇게(D)

놓고 싶어서

난 다 이뤄내고 싶고, 난 다 갖고 싶어 이런 게 많으니까 재범죄를 저지르고, 막 학교 가기 싫어, 집 들어가기 싫어, 나 밤새도록 술 먹고 놀래.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L)

진짜 너무 후회되고 담배도 끊고 싶고 그런데 좀 지나니까 나가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면 6개월 동안 여기서 참고 그랬던 걸 나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참았던 걸 막 더 막,(S)

가족관계의 문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가출했다가 집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마음먹은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게 진짜 막, 아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그렇게 살래 그래 나 그런 애야, 그래요 저 그런 애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B)

제가 커서 생각해보니까 할머니랑 대화가 안 되고 할머니 때문에 짜증나서 집에 있기 싫고 집도 좁고 답답하고 내 방도 없고 내 사생활도 없고 하니까 자꾸 밖에 나와서. 할머니랑 대화 안 하면 외로우니까 애들이랑 자꾸 그렇게 되고.(I)

엄마랑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것 말고 빨리 들어오는 거.(M)

누가 좀 가족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특히 엄마. 엄마랑 좀 상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엄마 마음도 좀 알고 싶고 지금 어떤 지도 궁금하고.(N)

엄마랑도 관계가, 지금도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나가서도 계속 좋을까? 그것도 문제고.(P)

정신을 차리고 살다가 다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차라리 늦게 변화되더라도, 반항하

다가 늦게 변화되더라도 늦게 변화해서 다시는 안 그러는 게 낫잖아요. 근데 내가 좀 변했다가 슬슬 엄마도 살만하다가 내가 또 변하면 엄마가 이번보다 더 크게 실망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그렇고.(R)

전 주변환경. 나가면, 나가면 솔직히 또 엄마가 잔소리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전 더 그럴 것 같아요.(S)

잡아주는 사람이 없음

아주 작은 도움이죠.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잘 잡아주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친구 한 명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니면 독고다리로 살던가.(C)

집에 뭔가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일찍 들어가려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이 싫으니까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늦게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나쁜데다 쓰고 그러다보니까 집에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놔야겠어요.(I)

나를 바로 잡아준 사람이요? 없었어요, 한 명도.(O)

표 18. 변화의 보호요인과 위협요인

변화의 동기	가족, 중요한 타인, 목표의식, 친구, 인식의 변화, 사고하게 됨, 기관입소, 결과인식, 후회
변화의 장애요인	주변 친구, 생각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독, 낙인효과, 놀고 싶어서, 가족관계, 잡아주는 사람이 없음

V. 논 의

1. 비행이 발현하는 배경

본 연구 결과에서 자료로부터 인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배경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복합외상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조건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은 대부분 해체되거나 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있었다. 복합외상의 개념은 최근 미국 사법체계에서 수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Cruise & Ford, 2011; Ford & Blaustein, 2013), 이들 연구에서는 사법체계 혹은 범법 청소년들이 다양한 심리적 외상의 경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복합외상의 경험은 특히 보다 다양한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정서 및 행동조절의 문제와 부정적 자아개념, 무력감, 부적응적 인지대처방식을 형성할 수 있고 자기 손상과 관련된 성격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안현의, 2011; 최종옥, 2016).

이는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심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한 J의 사례에서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제가 맨날 목격했어요, 그걸. 그걸 보고 제 성격이랑 행동들이 점점 변화되는 것 같아요.” 라는 경험을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유아기나 아주 어린 연령부터 폭력에 노출되었는데, 일탈행동이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는 두 명 정도였고 대부분 초기 학령기에는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하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입학 후에 일탈 행동이 두드러졌다. 이는 복합외상의 경험이 성격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반영되며, 이와 상호작용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심리도식 관점에서 보자면 유해한 생애 초기 경험으로 인해 발달한

초기 부적응 심리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이 초기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활성화된다는 가정⁴²⁾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가장 강력하고 손상이 큰 심리도식에 드는 4 가지는 유기/불안정 도식, 불신/학대 도식, 정서적 결핍 도식, 결합/수치심 도식이며, 이 중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심리도식이 촉발되는 상황에서 수치심, 공포감, 분노감과 같은 강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Kellogg & Young, 2006; Young, 2003).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 과정에서 열악한 가정환경이나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반복적인 심리적 상처에 노출되었었다. 이는 비행 여자 청소년들의 외상경험과 가족관련 변수가 비행을 예언하고 영향력 변수가 된다는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유영재, 2009; 최수형, 2007; Krischer, 2008). 또한 이러한 요인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2학년까지는 비교적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였으며 활달하고 사교적이거나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것은 청소년기 비행행동의 발생이 심리도식이 활성화되는 시기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비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중재적 조건

이들의 경제적 지위나 가정의 형태는 이들이 유사한 환경의 또래를 만나거나 다가가게 하는 다른 하나의 배경이 되었으며 개인적 매력과 성향에 따라, 힘이 있는 무리에 속하거나 내부 계급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행 또래의 확산이나 선후배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서로 소개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도로 넓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의 관점에 대해서이다.

42) young(1999)이 제안한 부적응 도식은 생애 초기 유해한 아동기 경험에서 형성되며, 광범위하고 만연된 주제 또는 패턴으로 기억, 감정, 인지, 신체감각으로 구성되고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은 생애 전반에 걸쳐 정교화되며 유의미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역기능적이다(Young, 2003).

Agnew(1985)는 그의 긴장이론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환경이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우며,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적법한 통로가 봉쇄되는 경우, 기저에 분노가 작용하는 비행으로 탈출구를 찾게 된다고 하였다. 이후 그는 비행의 원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와 긍정적 자극의 소멸, 그리고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긴장이론가들은 학교 상황에서의 실패를 긴장의 발생으로 보고, 이로 인해 유사한 문제를 가진 또래들과 무리를 형성하게 되며 학교 중단과 비행이 발생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하였고 학업 성취가 양호했다는 점은 이들의 비행 문제가 학업실패나 목표달성의 실패라기보다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발생에 의한 긴장 발생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행하위문화이론 관점에서 보자면 하층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집단적인 부적응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 또한 재비행을 하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으며, 단지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들이 비행을 중단하거나 개인적인 위험 요인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범죄학이론이 외부자적 입장에서 개인의 환경이나 개인의 특성에 그 원인을 두어 이론의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설명해주고, 개인과 체계 간의 연결점이 되는 개인의 내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들을 둘러싼 체계에서의(가족 체계, 학교 체계, 사법 체계 등) 긍정적인 경험은 이후 범죄의 중단이나 제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딱 아빠가 엄마한테 맞았어요. 아빠는 이제 아빠는 좀 다 참아주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에요. 남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다 참아줬어요. 계속 맞아주고, 엄마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랬었어요/아빠는 그래도 곳곳이 계속 돈을 벌면서 보육원에 맡기면서도 맨날 먼회오고 그러는데. 우리들 보겠다고 그러고 오고 그러

시는데, 몰래 용돈도 넣어주고 그러시는데...(C)”

“할머니도 저 때문에 경찰서 가시고 쓰러지시고 그래서 다음부터 경찰서 안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범죄한 게 없었어요(D)”

“그냥 그 선생님(기관 부원장)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느낌만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그냥 딱 간단하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다른 길로 안 새게. 그거, 그거 잡아주고. 뭔가 줌, 뭐라 해야되지? 생각, 생각 바꾸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F)”

“진짜 죄송한데 제가 막, 제가 인천 사는데 상산동에서 차 몇 대를 털었고 누구랑 누구랑 했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형사님이 막 저보고 아이고 착하네, 이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하게 됐어요(H)”

이러한 보고는 이들을 둘러싼 체계 중 어떠한 체계에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입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참여자들의 배경-복합외상과 사회문화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중재조건으로는 개인의 특성과 기질, 그리고 지지 자원 등이 있다. 개인의 특성 외에 공통되는 특성이 있었는데, 개인적 특성으로는 남성성과 온정성이 차원을 달리하여 가지고 있었고,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호기심이 나타났다. 이들 중 개인의 성향이 강하고 사교적이며 남성성이 높고 호기심이 많은 기질일수록 비행 또래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었으며, 공격성과 권력 획득에 관련되는 범죄에 주로 노출되었다. 남성성의 경우에는 운동선수 생활을 하거나 남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놀이를 즐겨했었고 성취지향적인 성향으로, 이전 연구에서 여자 비행 청소년들에서 남성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 일치한다(김준호, 1995). 이들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융합적 관계를 지속하며 절도나 폭력, 사기 등의 범죄에 관련되었다. 한편 소심하

고 위축되는 성향이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절도나 조건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척을 받았던 경우는 착취적 상황에 노출되기까지 했다. 그들의 호기심과 이타심, 온정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융합을 통하여 그들의 미해결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로 인해 비행에 이용되거나 무리 내에서 다시 배척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양극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호기심 많고, 사교적이며 활달함과 온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의 연구 참여자들은 융합, 공격성, 권력의 유지와 관련된 비행과정에서 자신들의 미해결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특히 호기심의 경우는 지위비행, 절도, 성매매, 약물 등의 비행 개시에 영향을 미쳤으며, 권력의 문제는 비행과 재비행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특성이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며, 친사회적인 성향은 비행또래를 형성하게 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성에 따라 비행또래 내에서 계급의 차이가 발생하며, 개인 특성과 관련된 전략을 선택하고 생애 초기 발생한 미해결과제를 비행행동과 비행또래 내에서 반복추구하게 된다.

3.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개인의 전략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복합외상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조건에 개인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현상은 자기 가치감의 손상과 다양한 부정적 정서들의 경험이라는 핵심 범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의 경험은 이전 연구들에서 외상경험에 의해 발생하는 정서가 주로 무력감이나 공포라는 보고들과는 달리 분노와 위협감, 안전감의 상실 등이 더 두드러졌다. 특히 반감이나 적개심, 분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점은 이들이 가출을 하거나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이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는 방식이 외상적 경험을 한 비(非)비행자와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게 한다. 즉, 적극적, 성취지향적,

활동적 성향들과 친사회적 성향(온정적, 사교적, 이타적 성향)들이 비행 여자 청소년들의 미해결과제의 해결 통로를 외부로 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가치감의 손상과 다양한 부정적 정서의 경험(분노, 위기감 등)은 특정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는 외상의 강도와 종류, 그리고 중복여부, 지속기간과 심각성, 권위체계의 경험 등이 포함된다. 외상의 경험이 복합적이고 특히 학대와 유기의 경험이 중복되는 경우, 자기 가치감의 손상이 유의하고 각종 범죄에 관련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중 특이할만한 것은 언어적 학대에 노출된 연구 참여자들이 성매매나 약물 등의 피해자 없는 범죄와 관련이 되는 양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학대가 심한 경우일수록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었으나 이중에 약물이나 성매매를 하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언어적 폭력이 심각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적 폭력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재비행을 하는 피해자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여자 청소년들에게 언어적 폭력 경험과 이에 대한 중재적 개입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복합외상에 있어서도 좀 더 세분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부모교육에 언어적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보다 강한 강조가 되어야 하겠다.

4. 사회적 상황 안에서의 상호작용

호기심(curiosity)은 세계를 이해하고 통합하여 나가는 과정에 중요한 동력이며, 새로운 학습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기심이 처벌을 받거나 호기심을 진행시킬 방향이 제한적이고, 세상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될 때, 텅 빈 호기심(empty curiosity)으로 전환이 되거나, 적응적이지 않은 방향의 호기심이 나타나게 된다(Miller, 2011). 이러한 호기심을 무엇이라고 불러

야 할까? Miller(2015)는 만성적인 실존적 지루함은 우울과 열망의 상실상태라고 하였다. 우울한 개인의 열망 상실은 곧 삶을 거절하게 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높은 호기심이 나타나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며 지속되었던 것은 살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의 호기심을 이해하는 것이 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호기심이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느꼈던 게 이제 저희가 슈퍼스타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 그 어떤 남자분, 선생님, 멘토? 맞아. 멘토 쌤. 그 선생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한 거죠. 우리 다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꿈도 잡자기, 더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꿈은 딱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죠 (Q)”

자기 가치감의 손상과 부정적인 정서는 미해결과제의 발생과 관련이 되며, 이러한 미해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융합, 호기심, 공격성, 즐거움의 추구는 대부분 비행을 발생시키고 비행또래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부적응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혼자 있으면 느끼게 되는 고통과 두려움, 분노 등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즐겁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호기심은 비행의 개시나 욕구의 충족에 사용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환경은 방임적이거나 심각한 통제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호기심이 진행되는 방향이 사회적으로 일탈적인 부분에 있었다. 이는 이들의 환경이 박탈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각할 시간과 경험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호기심의 방향이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할 때, 건강한 호기심이 발생하고 전환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안전한 환경에서의 생각할 시간, 그리고 희망 갖기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단 목표. 그냥 좀. 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그냥 딱 정신 차려보니까 진짜 이제 성인이에요. 난 이제 뭐 먹고살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애견미용 시작하고 나서 좀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일단 뭐 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F)”

5. 재미 행 요인

각 범죄유형별 분석에서 폭력에는 사고의 정지, 자기가치감의 손상, 융합, 권력의 행사, 오지각, 외상의 경험이 작용하였으며, 절도에는 욕구, 권력유지, 사고의 단순화, 긍정적 정서의 발생, 융합, 호기심이 작용하였다. 폭력을 통제하는데 작용한 조건은 의미 있는 타인, 결과인식, self-soothing, 적응적인 대처(대화 및 도움 요청)가 소용되었으며 절도를 통제하는 요소로는 결과인식, 의미 있는 타인, 부정적 정서의 발생(분노, 슬픔, 죄책감, 두려움)이었다. 성매매 발생은 인식의 부족, 융합, 호기심, 욕구의 충족, 권력의 획득이 동기가 되었으며, 성매매를 통제하는데, 결과인식과 부정적 정서가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범죄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력의 문제는 일찍이 아들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월감의 추구를 인간에게 중요한 존재론적 의미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것 대신에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을 형성하여 우월감을 획득하려고 하였으며, 집단 내에서는 다시 지위체계를 이루게 된다. 또한 이들의 우월감 추구가 열등감, 즉 자기가치감의 손상에 대한 보상행동이기 때문에, 보다 의존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니체는 차라투스타라를 통하여 ‘권력의지’(Wille zur Macht)를 이렇게 말

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 일체는 너희들에게 순응해야 하며 굴복해야 한다! 너희들의 의지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여, 이것이 권력의지의 일종으로서 너희들 의지의 전부다. 너희들이 선과 악에 대해, 그리고 가치평가에 대해 말할 때조차도 그렇다.”…해설자(고병권, 2013)는 여기서의 권력의지는 탐욕이나 '정치적 강제력'(Gewalt), 혹은 '힘'(Kraft)이 아니라 '능력'(potentia)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라게 하는 대지의 능력,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 실존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의 능력만큼 실존한다.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의 생애와, 또한 민중의 삶을 살펴본 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저 수목들은 과연 다가올 폭풍우를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외부로부터의 분리와 반대, 어떤 종류의 증오와 질투, 불신, 냉혹, 난폭과 같은 개념이 없었다면 인류는 도덕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 거대한 어린 새싹은 퍼붓는 빗속에서 더욱 강인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연약한 인간을 말살해버리는 외부의 고통도 결국 살아남게 될 인간에게 영양제에 불과하다.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고통을 아픔이라 부르지 않는다.”(즐거운 학문, Nietzsche. 김욱, 2004 재인용)

6.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문제에서 밝힌 비행 여자 청소년들의 범죄 발현 및 재비행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내적 과정을 탐색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양적 연구에서는 알 수 없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호기심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대의 유형에 따라 관여

하는 비행의 종류가 다르며, 그 중 언어적 학대의 경우에는 피해자 없는 범죄(자신이 피해자인)에 노출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인특성에 따라 비행 집단 내에서 계급의 차이가 발생하며,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를 위해 재비행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범죄 이론들이 우리나라 재비행 여자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고려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을 활용하면서 가장 최근의 방법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밝힌 절차를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연계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연구방법을 심리학적 발견에 적용하여, 이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7. 정책 방안에 대한 제언과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재비행 여자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개입 전략, 그리고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재비행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복합외상의 경험과 가정의 해체가 뚜렷하였으며, 이는 심각한 범죄에 관련되는 여성이나 여자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과 가족 구조 및 부모와의 애착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유영재, 2009; 황성혜, 2010; Barnert, 2015Weiss, 200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족 환경에 대한 개입에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보다 적극적이 된 점은 장기적으로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비행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미 학대에 노출되었던 비행 여자 청소년들에 대해 복합외상에 대한 평가와 치

료적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개인의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둘째, 비행 여자 청소년들의 경험에서 각 체계에서의 지지적 경험이 비행을 억제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비행 청소년들이 접촉할 수 있는 각 체계마다 지지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에게 친사회적 성향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관계로의 새로운 유대와 연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사하는 바, 이러한 성향을 적응적 사회체계 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삼을 수 있겠다. 특히 가정 내에서 지지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공기관, 사회복지 체계, 법체계 각 단계에서 비행 여자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 그리고 개입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상의 경험과 관련하여 관계에서 융합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관계에서 미해결과제를 해소함으로써(애정, 지지, 돌봄 등) 비행또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에게서 나타난 온정성이나 이타적 성향은 기존의 연구에서 반사회적 성향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이며, 이러한 친사회적 성향이 비행이나 범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행 또래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인이 되는 경향이 되었다. 친사회적 성향은 학대 상황에서 외부로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심리적 고통을 충족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비행 또래 내에서는 융합적 관계 양상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며 간접적으로 비행에 연루되는 경향을 보였다. 비행또래와의 강한 융합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장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자기주장훈련이 처우에 포함되어 있어(전영실, 2004), 국내의 개입 전략에도 이러한 요소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끝으로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호기심과 권력의 문제가 나타났

으며, 두 요인이 비행의 개시나 재비행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비행 청소년들의 열등감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및 특기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들 청소년의 환경적인 어려움은 좌절과 긴장을 발생시키고 건강한 호기심이 발휘되기 어려운 측면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호기심을 적응적으로 발산시키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자산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재비행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비행이나 비행 후 적응적 삶을 사는 여자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틀로 적용하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선정이 한 기관에서만 이루어져 지역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재비행 여자 청소년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주거지역은 서울, 인천, 춘천, 원주였으며, 추가 면접에서 경상도 지역 출신 청소년의 경험을 전사하였을 때, 연구 참여자들의 비행또래 유대보다 강력하고 관여가 많은 양상이 나타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들의 비행 전력에서 약물과 성매매를 경험한 사례의 수가 적었으며, 이로 인해 비행과정이나 재비행에 관련된 요인들을 부분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약물과 성매매 관련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비행과정이나 재비행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제시하였으나, 연구대상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재비행에서 탈비행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가 국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비행 여자 청소년에 대한 질적 연구로 그 의의가 있으나, 성차를 고려하자면 재비행을 하는 남자 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차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제언하는 바이다.

마치는 글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난 아이들은 마주칠 때마다 배시시 수줍은 웃음을 지었고, 자신을 바라봐주고 알아봐주면 뛰어와 안기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착취를 심하게 당했던 T는 기관에서 친해진 친구라며 한 아이를 데려와 “애도 인터뷰 하게 해주세요. 애 말 잘 해요. 제가 인터뷰 했던 거 말해줬더니 자기도 하고 싶대요. 꼭 하게 해주세요.”라고 마치 엄마에게 친구 소개하듯 친구 손을 잡아끌며 내게 소개를 하였다.

부(父)의 심각한 학대로 쉼터에서 생활하던 한 아이는 그토록 원하던 국가대표 선수의 꿈을 잃게 되며, 알콜과 성매매 알선으로 생활을 이어나갔었다. 그 아이는 인터뷰 후에 ‘또 (인터뷰) 할 수 있냐’고 묻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이 ‘네 칭찬 하더라.’는 말에는 얼굴이 환해지며, 상담 때마다 머리를 감고 옷을 단장하고, 일찍 와 기다리곤 하였다. 선머슴 같던 H는 인터뷰 중,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갑에서 나온 유서 이야기를 꺼내며 한참 울

었다.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진 친오빠와도 같이 놀아주던 친구들 중 하나가 갑자기 죽은 후, 축구와 장난으로 어울리던 시간을 차털이(빈 차를 터는 행위)로 보냈다. 그 아이는 “아빠가요...형사 아저씨들이 편지랑 돈봉투를 줬는데요...늘 그렇게 제 용돈을 챙겨 주셨었거든요...편지에는 오빠를 미워한게 아니라고...오빠를 늘 챙겨주던 딸이 항상 고마웠다고 써 있었거든요...” 한참을 우는 동안 물어뜯어 피가 나는 손가락을, 또 뜯으며 말했다.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하고 싶은 것도 없고...다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형사의 한 마디 “아. (H) 참 착하네.”라는 말에 범죄를 그만두게 됐던 아이이다.

기관의 원장님은 인터뷰를 요청한 연구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내가 비행청소년이기를 그만 두게 되었던 것은 이웃집 아주머니의 한 마디, ‘에유...계속 그렇게 살면 지옥 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주변에서 내게 한 마디도 못했거든요. 무서워서...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내게 진심으로 걱정 어린 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거지?’라고...나는 이곳을 최고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교육과정을 하는 곳이 되도록 해서 이 아이들이 높임 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게 해주고 싶어요...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론이나 연구가 아니어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 기관의 팀장 선생님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한 아이를 줄곧 돌보다가, 혼주가 되어 이번 6월에 그 아이를 시집보낸다. 그분이 청첩장과 환한 웃음을 건네며 묻는다. “제 딸 결혼식, 꼭 오실거죠?”

참 고 문 헌

- 강태신, 임영식, 이수정(2008). 비행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수준에 따른 외현화 문제. *미래청소년학회지*. Vol. 5, No. 1, pp163-182
- 곽한영(2007).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병권(2003).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주)그린비 출판사
- 김경(2004). *청소년 비행의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정, 김정규(2006).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가출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여자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006, Vol. 25, No. 2, 41-57
- 김보애(2003).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성 연구-인성 및 행동변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천(2013). *질적 연구방법론 I, II*. 아카데미 프레스
- 김영환·오상우·홍상환·박은영(2002). *PAI의 임상적 해석*. 학지사
- 김정규(2015). *계슈탈트 심리치료-창조적 삶과 성장-*. 학지사
-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박정선·이동원·박철현(2014). *청소년 비행론*. 청목출판사
- 김주섭(2000). *문제해결기술훈련과 심성수련훈련의 효과비교: 학교 폭력 가해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 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0). *청소년비행연구 동향에 대한 수량적 고찰*.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2호. 2000. 183-219
- 김진혁(2003).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교정의 방향*. *교정연구*(제16호), p29
- 김철호(2005). *일본의 소년비행 동향-2005년 일본 범죄백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 92호*.
- 김현수, 김현실(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신경정신의학* Vol. 40, No 2
- 김형수, 최한나(2004). *여자청소년에 대한 국내 비행 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 김혜운(2010). *재산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행원인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영숙(2012). *여자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9호 처분여자보호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p273-309

- 문영숙(2012). 비행청소년을 위한 자기통제력 강화프로그램 개발-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참여적 실험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문성미(2003).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 민원홍(2013).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수홍(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27-47
- 민수홍·박기석·박강우·기광도·전영실·최병각 공역(2011). *범죄학이론*. 로널드 L. 에이커스, 크리스틴 S. 쉐러스 저. 나남출판
- 박상주(2009). 여성범죄의 고전적 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2호:209-226
- 박소은(2008). 비행청소년의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범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범죄백서(2014). *법무 연수원*. 통권 제 31호
- 안현의·주혜선(2011). 단순 및 복합외상 유형에 따른 PTSD의 증상 구조. *한국 심리학회지:일반*. 제 30권 제 3호, 2011. 9, 869-887
- 이경숙(2012). 반사회적 특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APSD로 측정된 냉담/비정서, 자기애, 충동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2004).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 *교정연구* 제 24호. pp39-68
- 이동성,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

- 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12. Vol. 20. No. 2, pp1~26
- 이발희(2010). **소년원 퇴원생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운호(2015). **범죄학 제2판**. 박영사.
- 이상문(2013). 청소년 비행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 Thornberry의 상호작용 모델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Vol. 24. No. 3. pp. 220~258
- 이상문(2007). 비행발달과정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의 비교 연구 : 잠재적 특성시각과 생애과정 시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 18권 제 3호, 통권 제 71호. pp. 1129~1158
- 이선영(2009). **비행청소년에 대한 통합치료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원광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성식(1994). 구조적·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통한 청소년비행의 원인고찰-세인종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7호.
- 이수정(2015). **최신범죄심리학**. 학지사
- 이순목, 김종남, 최삼옥, 현명호, 김수진(2009). 도박의 정의와 범주화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009, vol. 28, No. 1-27.
- 이정미(2007).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 9, No 1, 63-83
- 이주영·오경자(2010). 청소년기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별의 효과: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0. Vol. 29, No. 1, 53-72
- 이주영·오경자(2011).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우울과 시간적 발달관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Vol. 30, No. 2, 497-518
- 이홍림(2004).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과 우울,品行장애 성향,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성은, 조주영(2005). 비행청소년의 초기 성행동에 대한 질적연구. *대한가정학회* 43권 3호 pp45-57
- 유정미(2009). *대인관계 및 우울에 대한 매개모형의 탐색과 비행청소년에서 매개모형을 이용한 미술치료의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봉언(2013). *청소년 비행의 남녀 차이에 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용주(2007). *인지행동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문제행동변화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순용(2008).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혜정(2013).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현정(2011). *개념과 범주적 사고*. 학지사.
- 신현정(2000). *개념과 범주화*. 대우학술총서.
- 전명희, 오익수, 김진희(1995) *청소년 비행화 과정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3,3('95.12) pp.91-113
- 전영실(2003). *여자비행청소년의 처우현황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18호.
- 정기명(2013). *비행청소년의 보호관찰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Vol. 15, No. 3, 95-127
- 정혜정(2012). *고도와 중도비행청소년의 지능과 관리기능 결손*.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경미, 강희숙(2008). *보호관찰청소년의 일상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한*

국청소년복지연구 제10권 4호 pp203-222

-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10). *질적 연구방법론-다섯가지 접근*
John W. Creswell 저. 학지사
- 주영신(2007).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타순(2002).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청소년백서(2013). *여성가족부*
- 최수형(2007). *비행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반응의 성별차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수형, 박현수 (2014).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옥채 · 이정미(2007).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교정연구 제3호
- 최정아(2010). 초기 청소년기의 비행과 우울의 상호 인과관계 : 자귀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Vol. 21, No. 4. pp 143-169
- 최종욱(2016). *비행 청소년의 복합외상노출경험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탁수연(2004).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과 개인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1년 전기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2011).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산하 범죄심리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
- Adler, Alfred(2015). 신진철 편역. *위대한 심리학자 아德勒의 열등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원앤원콘텐츠그룹
- Andrews, D. A., Bonta, James(2010).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 fifth edition. LexisNexis.
- Agnew, Robert(1985).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vol. 64:1, September 1985
- Akers, R. L., Sellers, C. S.(2009). *Criminological Theories*. 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최병각 공역. 나남.
- Akers, R. L., Matsueda, R. L.(1989). Donald R. Cressey: An Intellectual Portrait of a Criminologist. *Sociological Inquiry* vol.59, no. 4, November198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학지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하나출판사
- Andrews, D. A., Bonta, J.(2010).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fifth edition*. LexisNexis.
- Asscher, J. J., van Vugt, E. S., Stams, J. M., Dekovic, M., Eichelsheim, V. I., Yousfi, S.(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psychopathic traits, delinquency and (violent) recidivism: A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11(2011), P 1134-1143
- Barnert, E. S., Perry, R., Azzi, V. F., Shetgir, R., Ryan, G. Dudovitz, R., Zima, B., Chung, P. J.(2015). Incarcerated Youths' Perspectives on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for juvenile Offending: A Qualitativ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5. No. 7
- Bender, K. A. (2008). *Interrupting the Cycle of Violence: Identifying Gender-Specific Pathways from Childhood Maltreatment to*

Juvenile Delinquency in a National Sample of Youth involved in the Child Welfare Syste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octor of Philosophy.

Burton, V. S., Evans, T. D., Cullen, F. T., Olivares, K. M., Dunaway, R. G.(1999). Age, self-control, and adults' offending behaviors:a research note assess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7, pp 45-54

Chambers, J. C., Ward, T., Eccleston, L., Brown, M.(2011). Representation of Female Offender Types Within the Pathways Model of Assault.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5(6) 925-948

Charmaz, Kathy(2013).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근거이론의 구성:질적분석의 실천지침.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학지사

Church II, W. T., Tomek, S., Bolland, K. A., Hooper, L. M., Jagers, J., Bolland, J. M.(2012).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redictors of delinquency: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Mobile Youth Surve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Corbin, J.(2007). Advanced Workshop in Qualitative Analysis: How to Go from Description to Theoriz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한국질적연구센터. 2007년 10월.

Corbin, J., Strauss, A.공저(2009).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3e edition). 신경림, 김미영, 김정선, 신수진, 강지숙 공역. 현문사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Inc. 조홍식, 정선옥, 김진

- 숙, 권지성 공역(2010). *학지사*
- Cohen, Joel B., Basu, Kunal(1987). *Alternative Models of Categorization: Toward a Contingent Processing Framework.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3, March 1987*
- Cruise, K. R., Ford, J. D. (2011). Trauma Exposure and PTSD in Justice-Involved Youth. *Child Youth Care Forum*(2011)40:337-343
- Ellis, Lee & Walsh, Anthony(2000). Criminology. A Global Perspective
- Foley, A.(2008). The current state of gender-specific delinquency programm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 262-269
- Gelvin, Annie L. (2001). *Gender Differences in Juvenile Delinquency: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y*. Pacific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Doctor of Philosophy in Psychology.
- Glaser, B. G. & Strauss A. L.(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de gruyter*.
- Glaser, B. G.(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클레이저의 방법 - 김인숙, 장혜경 옮김. *학지사*.
- Graham, John R.(2007). *MMPI-2:Assessing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4/e*.이훈진, 문혜신, 박현진, 유성진, 김지영 역. (주) 시그마프레스
- Greene, R. W., Biederman, J. S. Z., Monuteaux, M. C., Goring, J. C., Faraone, S. V.(2002). Psychiatric Comorbidity, Family Dysfunction, and Social Impairment in Referred Youth with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m J Psychiatry* 2002; 159:1214-1224
- Harden, K. Paige, Patterson, Megan W., Briley, Daniel A., Engelhardt, Larua E., Kretsch, Natalie., Mann, Frand D., Tackett, Jennefer L.,

- Tucker-Drob, Elliot M.(2015). Developmental changes in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rule-breaking and aggression:age and pubert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Dec 2015, Vol. 56 Issue 12. p1370-1379
- Hagan, J., Forster, H.(2003). S/He's Rebel:Toward a Sequential Stress Theory of Delinquency and Gendered Pathways to Disadvantage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forces* Sep2003, 82(1):53-86
- Haynie, D. L. (2003). Contexts of Risk? Explaining the Link between Girls' Pubertal Development and Their Delinquency Involvement. *Social Forces*, Sep.2003, 82(1):355-397
- Hare, Robert D., Nermann, Craig S.(2009). Psychopathy: Assessment and Forensic Implication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vol 54, no 12, December 1, 2009
- Henriques, Z. W., Manatu-Rupert, N.(2011). Living On The Outside African American Woman Before, During, And After Imprisonment. *The Prison Journal* Vol. 81 No. 1
- Hoffmann, J. P.(2002). A Contextual Analysis of Differential Association, Social Control, and Strain Theories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March 2002, 81(3):753-785
- Jacobs, Lynne., Hycner, Rich(2009). Relational Approaches in Gestalt Therapy. *Gestalt Press*.
- Jones, Stephen(2006). Criminology.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Kaplan, Howard B., Johnson, Robert J., Bailey Carol A.(1987) Deviant Peers and Deviant Behavior: Further Elaboration of a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987, Vol. 50, No. 3, 277-284

- Kaplan, Howard B., Johnson, Robert J.(1991) Negative Social Sanctions and Juvenile Delinquency: Effects of Labeling in a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72, No. 1
- Kaplan, Howard B., Peck, B. M.(1992). Self- Rejection, Coping Style, and Mode of Deviant Respons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73, No. 4
- Kaplan, Howard B., Lin, Cheng-Hsien(2005). Deviant identity, negative self-feelings, and decreases in deviant behavior: The moderation influence of conventional social bonding. *Psychology, Crime & Law*, Sep. 2005;11(3): 289-303
- Kearns-Psarouthakis, D.(2004). *Conduct Disorder and Juvenile Delinquency in Females: A Meta-Analytic Review*. Michigan State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 Keenan, K., Loeber, R., Green, S.(1999) Conduct Disorder in Girls: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Vol. 2, no.1
- Kellogg, Scott H., Young, Jeffrey E.(2006). Schema 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April 1, 2006
- Kelly, P, J., Owen, S. V., Peralez-dieckmann, E., Marininez, E.(2007). Health Interventions with Girl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omen's Health Issues* 17, p227-236
- Krohn, Marvin D., Massey James L., Zielinski, Mary(1988). Role Overlap, Network Multiplexity, and Adolescent Deviant Behavio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988, vol. 51, no. 4, 346-356
- Krohn, Marvin D., Hall, Gina P., Lizotte, Alan J(2009). Family Transitions and Later Delinquency and Drug Use. *J Youth Adolescence*.

38:466-480

- Krischer, M. K., Sevecke, K.(2008). Early Traumatization and Psychopathy in Female and Male Juvenile Offenders. *I. J. of Law and Psychiatry* 31. 253-262
- Leverso, J., Bielby, W., Hoelter, L. F.(2015) Back on the streets: maturation and risk factors for recidivism amo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Adolescence* 41
- Loeber, R., Keenan, K.(1994). Interaction Between Conduct Disorder and its Comorbid Conditions:Effects of Age and Gen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14, No. 6, pp. 497-523, 1994
- Marmorstein, N. R., Iacono, W. G. (2001). An Investigation of Female Adolescent Twins With Both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0:3
- Marmorstein, N. R., Iacono, W. G.(2003).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a Twin sample: Gender, Functioning, and Risk for Future Psychopathology. *Child adolesc. Psychiatry*, 42:2, February 2003.
- Miller, Michael Vincent(2011). Teaching a Paranoid to Flirt: The Poetics of Gestalt Therapy. *The Gestalt Journal Press*.
- Miller, S., Malone, P. S., Dodge, K. A.,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0).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Boys' and Girls' Delinquency: Sex Differences and Links to Later Adolescent Outcomes. *J Abnorm Child Psychol*(2010) 38:1021-1032
- Murray, J., Farrington, D. P.(2010). Risk Factors for Conduct Disorder and Delinquency:Key Findings from Longitudinal Studie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Oct2010;55.10

- Nagin, D., Paternoster, R.(2000). State of the Evidenc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June 1, 2000
- Nietzsche, Friedrich Wilhelm(2004). *니체의 숲으로 가다*. 김욱 옮김. 지훈 출판사
- Reed, Stephen K.(2006). Cognition: Theory and Applications. 인지심리학:이론과 적용. 박권생 옮김. 시그마프레스.
- Perls, Frederick S., Hefferline, R., Goodman, Paul with a New Introduction by Isadore From and Michael Vincent Miller(1994). Gestalt Therapy: excitement and growth in the human personality. *The Gestalt Journal Press, Inc.*
- Sellers, C. S(1999). Self-control and intimate violence:an examination of the scope and specification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7(1999), pp375-404
- Simpson, Sally S. & Piquero, N. L.(2002). Low Self-Control, Organizational Theory, and Corporate Crime. *Law & Society Review*. Sep2002, vol. 36 Issue 3, p509. 40p.
- Simon, R. J., Ahn-Redding, H.(2005). The crimes women commit, the punishments they receive. *Lexington Books*.
- Smith, J. David(2014). *Prototype, exemplars, and natural history of categorization. Psychon Bull Rev(2014) 21:312-331*
- Smith, C., Thornberry Terence P.(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Involvement in Delinquency. *Criminology*; Nov 1995; 33, 4; Proquest Central Basic
- Sternberg, Robrt J. & Smith, Edward E.(1988). *The psychology of human thought*. 인간사고의 심리학. 이영애 역. 교문사

- Stile, Beverly L., Kaplan, Howard B.(1996) Stigma, Deviance, and Negative Social Sanction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77, No. 3
- Strauss, A. L. & Juliet Corbin(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second edition). *Sage Publication, Inc.*
- Strauss, A. L. & Juliet Corbin(2015).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fourth edition). *Sage Publication, Inc.*
- Strauss A. L. & Juliet Corbin(1997). Grounded Theory in Practice. *Sage Publication, Inc.*
- Subbarao, A., Rhee, Soo Hyun., Young, S. E., Ehringer, M. A., Corley, R. P., Hewitt, J. K.(2008). Common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J Abnorm Child Psychol* 36:433-444
- Thornberry, Terence P; Lizotte, Alan J; Krohn, Marvin D; Farnworth, Margaret; Jang, Sung Joon(1994). Delinquent peers, beliefs, and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theory. *Criminology* Feb 1994
- Tile, J. E., Rose, J. C.(2007).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13-to-18-year-Old Incarcerated Female First-Time Offenders and Recidivist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volume 5 Number 4
- Turner, M. G., Piquero, A. R.(2002). The stability of self-contro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2002) 457-471
- Trojanowicz, F. C., Morash, M.(1992). Juvenile Delinquency(Concepts and Control) fifth edition. *Prentice Hall*
- Walsh, Anthony(1992). Genetic and Environmental Explanations of Juvenile

Violence in Advantaged and Disadvantaged Environments.
Aggressive Behavior. Vol. 18, p187-199

Walsh, Anthony(2000). Behavior genetics and Anomie/Stain Theory.
Criminology;Nov. 2000;38, 4

Weiss, J. A., Hawkins, J. W. Despinos, C.(2010). Redefining Boundaries: A
Grounded Theory Study of Recidivism in Women.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Winkielman, P., Halberstadt, J., Fazendeiro, T and Catty, S(2006).
Prototypes are Attractive because they are Easy on the Mind.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Vol. 17, Num. 9

Widom, Cathy S., Brzustowicz, Linda M(2006). MAOA and the "Cycle of
Vilence:" Childhood Abuse and Neglect, MAOA Genotype, and Risk
for Violent and Antisocial Behavior.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2006;60:684-689

Young, Jeffrey E., Klosko, Janet S., Weishaar, Marjorie E.(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김진숙·서수균·주리아·유성진·
이지영 공역. 학지사

ABSTRACT

Exploration of the Process of Occurrences of the Delinquencies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Factors for Redelinquencies –Grounded Theory Study–

**Kim, Joo H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process of occurrences of female juveniles' delinquencies and the process that leads to repetitive delinquencies from the viewpoint of female juvenile using the approach of qualitative research. To explore the process related to the delinquencies of those female juveniles that are exposed to repetitive delinquenc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emale juveniles on probation and their experiences were analyzed using a grounded theory method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20 female juveniles being protected in probation institutions due to redelinquencies and the subjects were interviewed two times for 50 minutes per tim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method presented by Corbin(2015) among grounded theory methods; provided that, the terms converted into psychological terms were applied when the

foregoing method was used to make the procedures clearer and more easily understandab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 Experiences in complex traumas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appeared as backgrounds that can be said to be the causal conditions of the occurrences of the delinquencies of female juveniles that committed redelinquencies. The contexts were experiences in authority systems, the degree and kinds of traumas, and age and masculinity and curiosity as personal characteristics interacted with the occurrences of delinquencies. Curiosity mediated both the initiation of delinquencies and redelinquencies and individuals' unsolved problems such as the pursuit of affection, sympathy, support, and power acted for the formation of delinquent peer groups by the female juveniles. Since these unsolved problems tended to repeatedly regress, they were conceptualized as the category repetitive regression gestalt and theoretically explained. It was demonstrated that those unsolved problems stem from the violence and abuse that began from the initial development stage and that the female juveniles try to solve the unsolved problems through strong alliances with peers, that is fusion with peers.

In addition, their processes of delinquencies were analyzed after classifying them with thoughts, emotions, behaviors, images, and physical conditions by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es by type of crimes, stop of thinking, damage to the sense of self-worth, fusion, exercise of power, illusion, and experience in traumas acted toward violence and desire, maintenance of power, the simplification of thoughts, the occurrence of positive emotions, fusion, and curiosity acted toward

theft. Conditions that acted for control of violence were meaningful others, the perception of results, self-soothing, adaptive coping (request for communication and help) and elements that controlled theft were the perception of results, meaningful others, and the occurrence of negative emotions (anger, sorrow, guilty conscience, fear). The occurrence of prostitution was motivated by the lack of perception, fusion, curiosity, the satisfaction of sexual desires, and the acquisition of power while the perception of results and negative emotions were effective for control of prostitution. It was suggested that developing programs according to crime types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elements would be abl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that internal processes were explored from the viewpoints of the subjects in order to explore the processes of occurrences of the delinquencies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their redelinquencies. Through the foregoing, this study concretely presented those contexts that cannot be known through quantitative studies and also presented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masculinity, femininity, and curiosity interact with environments.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kinds of delinquencies involved are different among the types of abuse and among them, in the case of verbal abuse, the subjects are exposed to crimes with no victim (because the subjects are victims). In addi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differences in ranks occur in delinquent groups according to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nd showed the process through which redelinquencies are committed for the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power.

Another meaning of this study is that it used the most recent method while utilizing the grounded theory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linked the procedures identified as such to psychological concepts. This means that the research method developed by existing sociologist was applied to psychological and it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as it can provide guidelines to researchers that wish to use the foregoing method.

key word : female juvenile delinquents, redelinquencies, grounded theory study

연구대상자 설명서 ver.1.0

연구과제명 : 비행청소년의 일탈과정에 대한 내적과정 탐색 -근거이론 접근-

본 연구는 비행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김주희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일탈을 하게 되고 반복적인 비행으로 이어지는 내적과정을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반복비행으로 보호관찰기관에 보호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20~3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3. 연구 방법

귀하는 본 연구를 위해 한번에 40분 정도 2~3차례의 인터뷰를 하게 되며 모든 대화는 녹음이 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이 기관에 보호되고 있는 6개월 중 본 연구자와 2~3차례의 면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탈락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후에도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과거 경험을 기술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로 인한 불편감이 심하여 더 이상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비행 청소년들의 내적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연구 참여시 귀하에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성별, 연령.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5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문서함에 보관되며 본 연구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

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되며 이후 녹음파일의 삭제와 원자료를 소각시키는 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10.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 주 희 전화번호: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920-7756, 7739

